#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5월 8일 수요일(주간) 제 368 호







**법석 조대** 창조 스님 강릉 보광사 주지



"죽음은 새로 사는 길로 접어드는 전환점에 불과하다는 큰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피어 있는 동안의 어여쁨이 지는 동안에는 부질없게 보이겠지만 꽃이 져야 내년에 또 봄이 오는 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템플스테이 체험 반응

오는 20일부터 40여 일간 실시되는 템플스테이를 앞두고 봉은사가 4월28일 외국인과 내국인 대상으로 선체험 등 4시간 동안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했다.

낮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발우공양, 다도, 선체험, 사찰소개 순으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은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인 등 모두 13명.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무엇이 불편한 지를 살피기 위해 봉은사 관계자 등 내국인 5명도 함께 참가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외국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은 가장 인상깊은 프로그램을 발우공양, 참선, 사찰안내, 다도 순으로 꼽았으며,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도 없지 않았다. '좌선을 하는데 방바닥에 앉아 있기가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반응을 보인 사람이 세 사람이나 됐고, '좌선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싶었는데 초보적인 설명에 그쳐 아쉽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또 반 수 이상은 "프로그램에 등 만들기가 있어 참석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내국인들의 지적도 적지 않았다. "플라스틱 발우와 스테인리스 수저를 전통미 있는 토기나 목기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의사전달이 100% 되지 않은 것 같다"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상을 종합하면 작은 부분일지라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에 정확하고도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특히 예정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템플스테이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다. 한 치의 오차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찰 스스로 외국인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봉은사의 시범 실시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전국 31개 사찰에게 값진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불교의식

1. 불자님은 관혼상제(성인식, 결혼, 장례, 제사)를 불교식으로 하십니까?
①반드시 한다 ②전혀 하지 않는다
③경우에 따라서 한다 ④사찰에서 한다
2. 관혼상제를 불교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해야 한다 ②형편에 따라 자유다
③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사찰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설문 참여: 5월 9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69호 31면에 싣습니다.

# 불교문화재 3만 1천여건 DB화

## 2011년까지 분포지도 제작 GIS 구축
## 보수 정비 시급 135건 선정 중점 관리

### 문화재청 10년 계획 마련

2011년까지 전국 1천8백여개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문화재 3만 1천200여 건에 대한 일제조사 및 DB화 작업이 진행된다. 또 쌍계사 대웅전을 비롯해 석조문화재 7건, 건물지 12건, 사적1건등의 불교문화재가 국가지원 중점관리대상에 선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문화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시안)'을 4월 30일 발표했다.

시안의 정책과제는 건조물문화재 · 동산문화재 · 사적 등의 문화재와 그 주변경관을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한 '원형보존 부문', 문화재 관리행정 개선을 위한 '체계적 관리 부문', 문화재 유형별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효율적 활용 부문'으로 나뉜다.

이 중 '원형보존 부문'의 동산문화재 분야에는 전적(典籍)문화재 종합실태조사와 함께 2011년까지 전국 1천8백여개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문화재 3만1천200여 건에 대한 일제조사 및 DB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동산문화재가 집중된 사찰과 서원 등에는 유물의 도난 · 훼손 방지 및 전시공개를 위한 유물전시관 · 보호각 건립 기금을 지원한다. 문화재 사범 처벌 강화를 위한 문화재보호법은 2003년까지 개정한다.

매장문화재 분야에서는 2011년까지 전국 시군별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고, 황룡사지 9층 목탑 등의 소실 문화재 복원을 위한 한국문화재보존과학연구원을 2003년 법인으로 설립한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시급한 보수정비가 필요한 국가지정문화재 135건을 선정, 중점관리대상으로 삼고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 · 정비를 실시한다.

문화재청의 이번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는 2011년까지 10년간 총 5조 6천43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교역사문화관 건립 30일 첫 삽** 한국불교의 포교, 교육, 행정, 문화의 중심센터로서 건립되는 한국불교역사문화관 기공식이 4월 30일 조계사 경내 신축현장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교구 본사 주지스님 등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기공식에서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천7백년 한국불교의 문화와 역사를 한 눈에 살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천명했다. 사진= 고영배기자

#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 동국대서, 대학 · 연구소 학자 등 200명 참가

한국불교학결집대회가 4~5일 동국대 중강당과 명진관에서 열렸다.

동국대, 원광대, 위덕대 등 5개 대학과 14개 학회 10개 연구소 및 연구원에 소속된 200여 명이 11개 분과로 나눠 논문을 발표한 이번 대회는 그 동안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불교학 단체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타 학문과의 연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분과별 발표에 앞서 열린 공동 주제 발표의 화두는 '한국 불교학의 현황과 전망'이었다. '한국 불교학의 어제와 오늘'을 발표한 권기종 교수(동국대 교수)는 "해방 이후 한국 불교학계는 양적인 면에서 큰 발전을 이뤘고, 최근 원전 연구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점도 바람직한 현상이다"면서도 "불타의 교설에 대한 탐구와 해석보다는 불교사 연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보다 그 방법이나 절차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은 "한국 불교 교단은 전래 초기부터 보편화된 화엄신앙이 점진적으로 중요한 법풍을 형성하면서 화엄신앙으로의 통합을 이뤘다"며 "회통, 원융통합의 화엄신앙법풍은 한국불교의 전통이며 정체성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인도에 '傳法의 등'을

부처님 나라, 인도에 전법의 등이 희미해진 지 2천여년이 넘은 최근, 불가촉 천민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불교로의 개종과 전법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불교는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선우 등 불교단체와 공동으로 인도지원 사업을 본격 전개합니다. 그동안 4개월에 진행된 현지 조사활동 결과 파악된 정보를 중심으로 관련단체들은 올해 인도불교지원사업을 크게 6개 분야로 나눠 모금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인도불교 복원에 한국 불자들의 염망을 전달할 이번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 1인 수계비용 1달러 지원 '개종운동 지원 사업'

인도의 불가촉천민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개종운동은 변변한 불교교재, 염주 하나 없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수계식을 여는데 소요되는 1인당 비용 1달러(50루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불교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센터건립

불교 지도자가 부재한 인도 현지 스님들의 수행과 교육 및 생활보장은 물론, 재가불교 지도자 양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가칭) '불교지도자 교육센터'를 현지 불교단체들과 연대 건립을 추진합니다.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달러에서 30만달러까지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 법당 건립 및 불상봉안 지원

마을과 지역내 불상을 모시기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 불상봉안을 지원하고, 법당(문화복지센터 기능)건립을 추진중이거나 공사가 중단 및 지연 등에 법당 건립을 지원합니다. 법당조성은 30여평 규모의 경우 1만달러 정도가 소요되고 불상은 1,5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가 소요됩니다.

**불교지도자 육성 등 6부문 지원**
**불자들의 적극 동참 바랍니다**

■ 재가불교지도자 양성사업

인도내 불교개종운동은 불교교육과 함께 직업, 문맹퇴치 등 자활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재가불교지도자들의 육성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병행코자 재가불교지도자 학교, 전문연수원 개설을 지원합니다.

■ 불가촉 천민을 위한 자활 지원

인도전체 문맹률 62% 가운데 불가촉천민들이 절대다수를 점하며 대부분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법음을 전파하기 위해 직업교육과 불교교육을 병행할 교육공간의 건립을 지원합니다.

■ 티베트 난민 경작 메밀의 불가촉 천민 지원

인도내의 티베트 난민들이 경작한 메밀 5백여톤이 판로가 없어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메밀을 구입, 불가촉 천민 및 불교사원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 기간 : 2002년 5월~2004년 5월(3년간)
● 인도불교 전법지원운동 사무국 : (02)745-7799(참여불교재가연대)
● 사무국 통장번호 : 조흥은행 741-04-365950 계좌명: 인도등기

**주최: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선우**

**후원 : 한국불교중단협의회,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

## 삼보인 · 탁의 · 화혜 사진 3점 공개



숭유억불을 국시로 내걸었던 조선시대에도 큰 사찰들은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번창했음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들이 공개됐다.

고사료 수집가인 이종학 사운연구소장은 1일 조선 왕실이 신라고찰 봉국사에 불공을 드리며 보시한 예물을 찍은 일제시대 사진 3점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은 세종이 하사한 '삼보인'('불국사불법승'을 새긴 도장 · 사진과 숙종비 인현왕후가 아들 낳기를 빌며 바친 '탁의'(붉단 앞 제대상을 덮는 비단보), 비단신 '화혜' 등이다.

이들 문화재는 일제시대까지 봉국사에 보관돼 오다 해방 뒤 사라진 것들로 1936년 발행된 봉국사 염서 시리즈 속에서 발견됐다. 권형진 기자


# 5월 12일 종로는 연꽃세상

연등축제가 여러분 모두를 종로로 초대합니다

**연등놀이**

장엄등과 연희패의 신나는 놀이 마당

- 5월 11일(토)
  오후 7:00 – 9:00
  조계사 → 인사동 → 종로2가 → 국세청 → 우정국로



**어울림마당(연등법회)**

- 5월 12일(일)
  오후 4:00 – 6:30
  동대문 운동장
- 단체별 입장, 단체등 시상식, 그룹별 연희발표
- 봉축 상징물 개막
- 연등법회



**제등행진**

화려하고 장엄한 연등축제의 꽃

- 5월 12일(일)
  오후 7:00 – 9:30
  동대문 운동장 → 종로 → 우정국로



**대동한마당**

너 나 없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환희의 마당

- 5월 12일(일)
  오후 9:30 – 10:30
  우정국로 회향식장



**불교문화마당**

- 5월 12일(일) 정오 – 오후 9:00 조계사 앞 우정국로
  - 놀이마당 : 풍물, 영산재, 선무도, 네팔춤, 관불의식, 청소년 댄스경연
  - 먹거리 살거리 : 사찰음식 강좌, 전통된장 판매, 장식용 연꽃, 불교용품, 환경용품
  - NGO 마당 : 복지활동 홍보, 북한난민돕기 바자회, 희망의 등, 포교엽서 전시
  - 국제불교마당 : 외국인 등 만들기, 대만 불교, 동남아 불교, 티베트 만화전시
  - 전통문화마당 : 장승조각, 서각, 탁본, 전통매듭, 천연염색, 지화, 불화, 짐볼균예



봉축위원회 02)725-6641 www.LLF.or.kr

## 사 설

### 국제포교 지원책 시급하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지난 4월 26일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국제포교는 개방화 시대를 맞아 불타의 가르침을 외국에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며, 불교적 교양과 수양이 기본적으로 완비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 만큼 국제포교사의 양성은 쉬운 일은 아니다. 반면에 불교적 가치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전도선언에 나타난 불타의 정신은 부단한 전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불교의 해외포교 현황과 미래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밝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2000년 현재 국내 종교계에서 양성한 해외 선교사와 포교사는 1만명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개신교 내지 가톨릭 소속이다. 불교는 2.5% 수준인 240여명에 불과하며, 원불교의 300여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 충격을 준다. 숫자에 못지않게 시급한 문제점은 이들이 주로 교포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하여 불교적 기본 훈련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최근 조계종단은 포교사나 전법사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포교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불법을 전하는 첨병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종단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아래 양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영어권에서 신명을 바쳐 활동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이 시급하다. 또한 특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지원체제도 필요하며, 그것은 역시 종단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 승가대 校史전시실 개관에 부쳐

중앙승가대가 학교 역사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교사(校史) 전시실을 개관했다. 이 전시실엔 학교 연대사를 중심으로 △설립 및 성장기 △도약기 △팽창기 △김포학사 이전과 승가교육의 질적 발전기 등으로 나눠 주요 사건이나 사안들을 사진으로 제작하고 진열장엔 졸업장 학적부 각종 물품들을 전시했다. 승가대의 마크, 교훈, 교육실천 강령, 기수별 졸업생 명단에서부터 학교의 변천과정에 이르기까지 역사전체를 한 자리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꾸몄다. 중앙승가대는 이 전시실 개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료를 보완해 교사(校史)를 편찬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승가대의 이번 교사 전시실 개관은 하나의 조그만 전시관 개관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여러 면에서 큰 의의가 담긴 중요행사다. 한마디로 승가대가 이번 개관을 통해 승단의 가장 권위있는 교육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 동안의 경과를 보면 종단의 교육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총장스님이 사퇴했다가 복귀하는 등 승단만이 아니라 재가불자들도 편치 않은 마음을 안고 귀추를 지켜보아야만 했던 적도 있다. 종단과의 관계도 재정립하여 자율성이 더 많이 보장된 가운데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재학생과 졸업생이 더욱 밀접하게 교류하고 화합하는 전기가 돼 면면이 이어져 온 면학분위기가 더욱 활성화되고 한국승단 발전의 참된 모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만 승가교육의 최고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온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는 믿는다.

# 주5일근무 유례없는 '포교호기'

## 산사문화답사 도시인 요구 부합
## '국민에 사찰개방' 기본시각 필요
## 과학적 분석 · 철저준비 선결과제

### 조계종, 관련 첫 세미나

4월 27일부터 일부 공무원에 한해 '주5일 근무제' 가 시험적으로 실시되면서 그동안 찬반양론이 지속됐던 '주5일 근무제' 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포교여건 변화에 발맞춰 불교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렸다. 〈본지 제367호 2면 기사참조〉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장곡)가 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개최한 '주 5일 근무제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주5일 근무제가 역사상 유례없는 포교의 호기라며, 종단 및 사찰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부호 교수(서강대 경영학과)는 발제에서 "주5일 근무제에 맞춰 불교계는 포교성과를 얻기 위해 사찰을 국민에게 개방한다는 기본시각을 가져야 하며 일반인의 수행 정도에 맞는 단계적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는 토론을 통해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수련 및 지도인력의 양성, 문화재 도난 대비, 여가 박탈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활동 등 구체적 대응방안이 심도있게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 스님(대흥사 상설수련원장)은 "주5일 근무제는 포교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는 산사에서도 포교를 행하고, 도심 포교당에서도 수행정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가 불교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이전에,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만이 포교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교사전시실 개관 중앙승가대

중앙승가대가 학교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교사(校史) 전시실'을 1일 개관했다.

김포학사 4층 법당 양쪽 복도에 패널과 진열형태로 마련된 교사전시실에는 학교 연대사를 중심으로 주요사건이나 사안과 관련한 사진, 졸업장과 학적부, 학교 물품 등이 전시돼 있다.

중앙승가대는 계속 자료를 수집해 전시하는 한편, 학교 역사를 정리한 '교사(校史)'도 편찬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사진 왼쪽)이 중국불교협회 예강 부비서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 공찰 중창주 지위보전 추진

## 폐사지 보존·불사활성화 위해 법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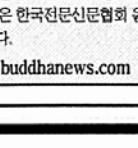
사찰을 창건하다시피한 공찰중창주의 지위를 인정하고, 사자상승도 가능토록 하는 공찰 중창주 지원보전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폐사지등의 보존과 불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창주의 지위를 사설사암처럼 인정해주는 공찰 중창주지원보전법을 마련키로 했다.

6월 중앙종회 상정을 목표로 준비 중인 공찰중창주지원보전법안은 지위보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찰의 기초불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키 위한 것이어서 교계의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계종이 공찰위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마련될 경우 주지 고착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김원우 기자

###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



영천 은해사는 3일 산중총회를 열고 새 주지에 법타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법타 스님(사진)은 65년 법주사에서 추담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광주 원효사 주지, 경주 기림사 주지, 재미 평불협 회장, 평불협 상임부회장, 조계종 총무부장, 불교시민단체협 상임공동대표, 경실련 지도위원, 은해사 주지, 불교대구방송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평불협 회장을 맡고 있다.

김원우 기자

# 진각종 중국과 불교교류 토대마련

## 학술·밀교문화 등 다양한 분야서 협력키로

진각종과 중국 불교계 간의 불교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효암 통리원장을 비롯한 진각종 대표단은 지난 4월19일부터 27일까지 중국불교협회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국 국가종교국, 중국불교협회, 중국불학원 고위관계자와 차례로 만나 밀교문화 및 학술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의 불교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진각종은 19일 북경 국빈호텔 만찬장에서 열린 진각종 대표단 환영만찬에서 중국불교협회 예강 부비서장이 "올해 한 · 중 수교 10년을 맞아 중국은 국가종교국은 물론 불교협회 차원에서 양국의 불교발전과 우호협력을 위한 다양한 교류를 모색하고 있으며, 발전적인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은 "양국의 불교가 맥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활발한 불교교류는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환영만찬에 앞서 진각종 대표단은 중국불교협회, 중국불학원 관계자들과도 만나 양국간의 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한명우 기자

### 지관 · 성오 · 현해스님 동국학원 새이사 선임

동국학원 이사회(이사장 녹원스님)는 1일 열린 제184회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황명수 이사와 도원 스님 후임으로 가산불교연구원장 지관 스님(조계종 원로의원)과 성오 스님(범어사 주지)을, 입적한 벽파 스님 후임으로 현해스님(월정사 주지)을 새 이사에 선출했다.

권형진 기자

### '현대' 만평

김 영 민



노후복지시설 마련을…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 성 명 서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라면 삼보정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또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누구나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지난 4월 26일날 각 사찰에 전달된 탄원서 첫 머리에 대한불교 조계종을 "한국불교 조계종"이라고 시작하여 본인의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삼현 문중의 이름을 도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수행 정진에 여념이 없는 문중스님들을 오히려 중상 모략자로 만들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든 찾아서 규탄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낸 탄원서 내용도 역시 누가 보아도 중상모략을 하기 위한 것임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치하게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탄원서 내용은 이미 1994년도에 삼현 문중 회장스님을 비롯하여 문중 대표스님들이 불교신문과 총무원에 성명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이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진 바의 천명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 천명되었기 때문에, 운달(박정화)스님은 현재 미타암주이며, 비구니 종회의원이며, 호법부 분과위원등 공직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삼보정재에 대하여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 왔기 때문에, 동학사 주지가 만기가 되어 바뀔 때마다 운달스님의 의지와는 달리 "동학사 주지직을 넘본다"느니 하는 온갖 중상모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삼현 문중에서는 "삼현문중 일동 합장"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사찰에 3번씩이나 똑 같은 내용으로 이름도 밝히지 않고 배포하여 문중을 마구 더럽히는 어리석은 마군 권속들을 색출하여, 하루 속히 그 잘못을 반성케 하고, 또 승려의 본분을 지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올바른 마음으로 인천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를 시키는데, 문중 일동은 뜻을 모을 것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또 다시 이러한 탄원서가 배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미스러운 탄원서로 인하여 전국의 모든 스님들의 심기를 잠시나마 어지럽게 하여 정진에 방해를 가하게 된 점을, 삼현 문중에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깊이 사과 드리는 바입니다.

불기 2546(서기 2002년) 4월 27일

**삼현문중 회장 보인** **삼현문중 대표 상륜** **삼현문중 대표 옥봉** **삼현문중 재무 승혜**

# 중앙선리연구원 내년초 설립

## 선학원 재단 설립 70돌 기념, 근 · 현대불교사 연구

### 내년 학술회의 … 논문 '선학원 학술총서' 수록

### 소장학자 6명에 매년 6천만원 연구비 지급

선학원이 설립 70주년(2004년)을 맞아 재단의 역사 및 근 현대 불교사료의 발굴 · 연구, '선' 등 불교 수행법 재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선리연구원을 내년 초 설립한다. 이와 함께 인재불사 차원에서 불교 소장학자를 지원하는 장학사업도 본격화한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정일)은 4월 25일 교무위원회 소속 위원, 전국 분원장 및 포교원장 등 27명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원 회의실에서 교육불사 관련 중진 분원장 스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재단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중앙선리연구원 설립과 불교 소장학자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과 20여년에 걸친 갈등관계를 청산한 선학원이 다소 지원이 뒤쳐진 교육불사에 나서는 등 불교발전을 이룰 새 역할도 모색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선학원 뿌리찾기 운동'이란 슬로건 아래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을 원장으로 강남포교원에 중앙선리연구원이 설치된다. 선리연구원에서는 선학원 관련 근 현대 불교사료 발굴은 물론 불교사 연구의 취약분야인 근 · 현대 불교사 재조명작업도 병행한다.

연구 성과는 <선학원사> <선학원연혁> <근 · 현대불교 인물지성사> <선학원 설립조사 문집> <정화운동 사상사> <근현대 불교 사상> 등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선리연구원은 또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오늘날의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선'을 위시한 다양한 불교수행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재단설립의 역사성과 정체성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도 내년에 개최한다. 학술회의 등을 통해 발표된 논문은 <선학원 학술총서>로 발간된다.

선학원은 중장기 학술 진흥 프로젝트인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2003년부터 시행될 불교 소장학자 지원사업은 불교학과 인접학문 연구자들의 개별적인 연구활동을 모아 지원, 격려하고 상호간의 연구역량을 높여 불교학의 지평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원전번역 예술 등 6개 분야 박사과정 학생이나 시간강사 6명에게 매년 6천만원을 연구비로 지원한다.

소장학자 지원사업은 소장학자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장학지원의 열외시기인 박사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 때까지와 학위논문 제출 후 시간강사를 전전하는 시기에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신진 연구 인력 박사논문 지원사업(2명, 각 720만원), 원전 번역 지원사업(1명, 1500만원), 연구 논문 지원사업(1명, 720만원), 불교 예술 관련 지원사업(1명, 720만원), 외국인 학생 불교 관련 연구자 지원사업(1명, 600만원) 등이다.

한편 선학원은 재단 발기인 및 역대 이사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 도봉, 남전, 석두 스님 등 설립 조사 3인의 영정을 봉안하고, 해마다 11월 30일 창건기념 행사도 봉행키로 했다. 또 재단법인 설립인가와 관련된 12월 5일을 분원장 및 도제들이 참여하는 선학원의 축제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원형보존 가장 큰 관심

## '문화재 관리 10개년 계획(시안)' 불교계 시각

### 불교계의견 반영 제도적 장치 필요

### 관광자원 활용사찰 지원누락 아쉬워

이번에 발표된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10개년 기본계획'(시안)은 그동안 단위사업별로 추진되어 오던 문화재 보수 · 정비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약 70%에 이르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불교계가 이번 계획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은 '원형보존 부문'이다.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부문 계획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해 사찰소장 불교문화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1800여 사찰 3만1천200여건의 불교문화재를 조사하고 이를 DB화해 사찰문화재의 도난 및 훼손 예방, 불법 밀반출 방지, 학술연구 등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동산문화재가 집중된 주요 사찰과 서원 등에는 유물의 안전한 보호와 전시공개를 위한 전시관 · 보호관 건립에 853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림사 유물전시관 건립 및 개 · 보수(2002), 전통단청 종합조사(2003~2006), 전국 부도조사(2004~2007), 전국 금석문 영상 DB구축, 전국 석탑(451건) 총람 발간(2005~2011), 전국 불교건축(362건) 종합조사, 석굴암 등 중요 문화재 보존상태 및 보존환경 조사(2002~2011) 등이 추진된다. 탑이나 불상 등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 불교의 성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기본계획의 확정 · 추진 과정에는 불교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보호 부문에서는 국토개발의 문화재영향 검토를 효율화하고 매장문화재 훼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지정 · 비지정 문화재와 매장문화재를 종합하는 전국 시군별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해 각종 건설공사 계획수립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문화재 사범 단속 강화를 위해 문화재 사범에 대한 선의취득 적용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2003년까지 개정한다.

'체계적 관리 부문'에서는 중요 문화재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위한 '문화재 보존관리기금'을 설립한다.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 연구를 위해 10억을 들여 목조문화재 생물피해 조사 및 종합 방제방안을 수립, 문화재 충균해 방지용 약재 개발연구를 실시한다.

'효율적 활용 부문'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와 문화재 주변 편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관광자원화를 위한 '효율적 활용 부문'에는 이미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찰과 불교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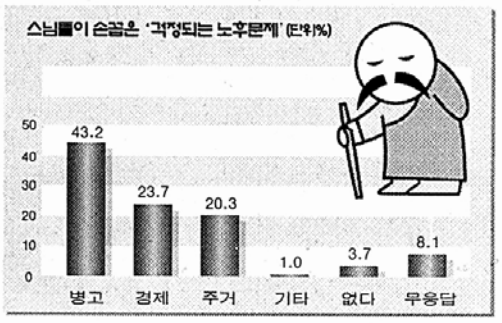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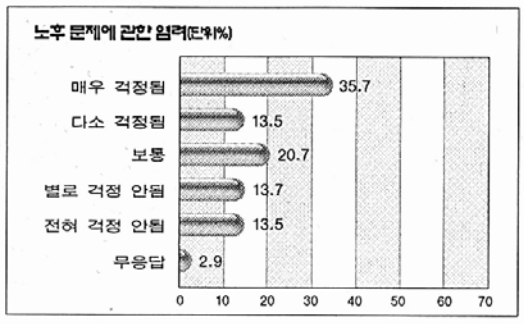
**조계종 승려노후복지 세미나**

# 승려노후복지 종단이 나서야

### 관련 종헌종법 제 · 개정, 예산 확보 시급

### 의료사업 5년 계획 · 수발보험 실시해야




승려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대책' 수립이 가장 중요하고, 재정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화범)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대)은 10일 오후 1시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조계종 승려노후복지 연구보고서' 발간 및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 하는 성운 스님(인덕원 이사장)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종회에서 제도 도입에 필요한 종헌 종법을 제 · 개정하고, 총무원에서는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 '보건의료' '소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는 김응철(중앙승가대), 김수영(국립보건원), 이혜숙(동국대)교수 등도 "종단 차원의 종합적 승려 노후보건 의료대책인 '조계종 노후승려 보건의료사업 5개년 계획'과 '(가칭)수발보험' 실시 등 병고이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조계종종회 사회분과위원회 간사 현각 스님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승가복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이념적 철학적 공감과 합의를 우선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구보고서 및 토론내용은 향후 종책 입안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세미나에서 발표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노후복지 연구보고서'는 중앙종회 사회분과위가 전국 2천여 사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설문지를 배포, 응답한 482명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진행해 발간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그 동안 구호에만 머물던 승려노후복지 문제를 종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승려노후복지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조계종의 의지표현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세미나에서 발표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노후복지 연구보고서'의 △주거 △보건의료 △소득 △종합대책 등 4개 분야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 '본사의 복지요양시설' 주거선호

스님들의 노후 주거문제에 대해 스님 106명(22.0%)이 공찰 내에서 수행과 치료기능을 갖춘 노후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5명(32.2%)의 스님들은 종단이 주체가 되어 설립 운영하는 공동주거시설을 원하고 있고, 이상적인 노후 시설로 377명(78.2%)의 스님들이 본사급 공찰의 복지요양시설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승려노후 주거시설은 △비구, 비구니 시설 구분과 시설내 주거와 수행공간을 포함한 치료요양 공간 △모든 스님에게 기회 제공 △공동주거 형태의 운영과 종단의 경상비 지원, 복지기금 조성 및 별도의 특별회계 운영 △시설 위치는 신도의 자원봉사와 연계한 수도권 위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보건의료 5개년 사업' 계획

조계종 스님들의 절반 이상이 노후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08명(43.2%)의 스님들이 노후에 얻게 될 병고 문제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의료비 대부분을 스님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와병시 당면문제로서 치료비 문제(30.3%), 간병인 부재(23.7%), 방사 부재(10.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스님의 소득보장과 주거보장 등과 연계해 종합적, 장기적인 계획하에 건강보호, 치료, 간병 등의 서비스가 무엇보다도 강구되어야 한다. 종단은 '노후승려 보건의료사업 5개년 계획'을 조성해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적인 여건 마련, 특히 각 교구별 예산 및 행정지원에 의한 승려건강증진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 복지기금 조성 절실

스님들의 한달 월평균 지출액은 50만원대 17.3%, 30만원대 16.5%, 100만원대가 15.1%로 평균이 61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달 월수입은 100만원대 18.4%, 50만원대 14.6% 등으로 평균수입액은 67만원으로 조사됐다. 결국 평균 6만원이 남는 셈이다. 또한 전체의 59%가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혀 노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교구 본 · 말사 중심으로 소속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책임지게 하는 '승가연금제'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승가복지기금' 조성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그 재정의 조달 방법으로 △관람료, 출판 문화사업 등 종단 내 수익사업 △본말사로부터 목적사업용 분담금 △특별 불사 기부금 △특별모금사업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출가수행자 본연의 도반 공동체정신을 회복하고 일미화합의 실천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승가연금제' 방안 모색

승려노후복지 부문별 종합의견을 정리하면, 먼저 보건 · 의료부문에 있어 종책으로 결정할 사항은 건강증진과 의료보장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서는 △승려의 의료보호 서비스 관리하기 위한 기관 설립의 문제 △의료보호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법의 결정 △연간 소요되는 의료보호비용의 산출 및 각출방법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수발보험' 문제 등이 종책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노후 연금 부문에서는 '승가연금제'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승려의 노후 공동주거시설은 공찰에 설립하고, 시설 운영비는 종단에서 승가복지기금을 조성해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어두운 곳에 연등의 불을




약사 제일 영험도량 실상선원
봉사와 무료복지관이 있는 천 축 사

선 원 장 성 환
주 지 종 일, 일 광 총 무 곽동훈
신도회장 김동호, 서정섭, 박공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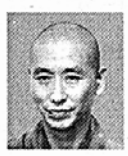
실상선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02)745-8503
천 축 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041)734-2680

## 일주문



### 의상백일장 개최

지홍 낙산사 주지는 4월 20일 제7회 의상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고 입상자들에게 15~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서울특별시상 수상

원경 서울 심곡암 주지는 4월 28일 인간성 회복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고건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상을 수상했다.



###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효범 통도사 교무국장은 2일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1995년 통도사 중강을 역임했다.



### 내영사 법당 상량식

명각 나주 내영사 주지는 4월 28일 5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법당 상량식을 봉행했다.



### BBS 개국 12주년 기념식

김규칠 불교방송 사장은 4월30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개국 12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 "월 1회 철야참회 기도"

### 나가자불자회 안규준 회장



"회원 모두가 한달에 한번씩 기도처를 참배하며 철야로 참회기도를 할 것입니다. 또 청소년 선도 및 독거노인들을 후원하는 일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창립해 현재 2백여명의 회원이 활동중인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사랑하는 불자 연합회(이하 '나가자 불자회')' 안규준 회장(사진)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자비행이 불국토 건설에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나가자불자회 회원이 되려면 봉사행과 기도정진을 철저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안회장은 4월 27일 회원들과 영월 법흥사에서 철야정진 법회를 봉행했으며, 다음날인 28일에는 홍천 연화사에서 경기 · 강원 지역의 노인 5천명을 초청해 위안잔치도 벌였다. 또 오는 19일에는 강화 전등사에서 개최되는 전국팔씨름대회에서 회원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할 계획 등 내실있는 신행단체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친진난만한 동자승 얼굴이 부처님 얼굴이네." 4월 27일 출가삭발식을 갖고 30일간의 스님생활에 들어간 조계사 동자승들.

## 동자승, 30일간의 출가

조계사(주지 지홍)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4월27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동자승 30일간의 출가 삭발식'을 거행했다.

올해로 4회째인 동자승 출가식은 조계사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어린 불제자들에게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주고 외부로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법할 수 있는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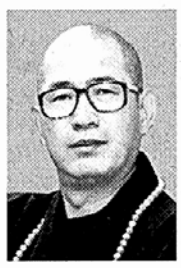
이날 동자승이 된 4~7세의 어린이 12명은 부모님께 드리는 삼배를 시작으로 삭발의식, 장삼착복, 연비 등을 거쳐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았다.

동자승들은 앞으로 30일간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의 예불과 도량청소, 포교 활동 등 스님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과 연등축제, 시청 앞 점등식 등 주요행사에 참석하며, 14일과 25일 두 차례 중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어린이들과 함께 월드컵 성공을 기원하는 '동자승 축구대회'와 사찰 순례 등의 행사에도 참여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불심 깊게하는 계기 됐으면"

### 선시명상곡 발표회 갖는 지범 스님



'불음포교사' 지범스님(제주 불광사 주지 · 사진)이 불기 254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과 독집음반 제6집 '부처님 마음' 발간을 기념한 선시명상곡 발표회를 11일 오후 3시 제주도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갖는다. 올해가 불음가수로 데뷔한 지 꼭 10년째인 스님은 "초창기에는 스님이 수행이나 하지 왠 노래냐고 따가운 눈총을 많이 받았으나 이제는 전문포교시대의 한 장르를 개척한 불음포교사로 모두가 좋아한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의 정화는 물론 불심을 깊게하는 불음포교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지범 스님은 이번 발표회에서 '먼길' '봄꿈' '청산은 나를 보고' '묵상' 등 고려시대 혜심, 의천, 나옹 스님과 중국 야부스님 선시에 조영근씨가 곡을 붙인 명상곡과 '부모은중경' 노래를 부르고 직접 작사한 '바닷가 불광사'도 소개한다.

### 먼길 · 봄꿈 · 부모은중경 등 노래

지범스님은 "고승들의 높은 정신적 깨우침이 들어있는 선시 노래가 불자들의 가슴에 각별한 울림을 주어 한층 정진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64)767-2580

이경숙 기자 gslee@budchapia.com

## "광주에 불교바람 일으킬 것"

### 창립 10돌 맞은 광주운불련 김재덕 회장



"불교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광주지역에 불교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포교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거리의 포교사'로서의 제 역할을 해야죠."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광주지역회(이하 광주운불련) 김재덕(54 · 사진) 회장은 1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포교활동 강화에 중점을 둔 활동 계획을 밝혔다.

김회장은 "회원과 회원 차량을 확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자연보호캠페인을 공동으로 펼쳐온 가톨릭, 개신교 운전기사회와 유대를 강화해 종교간 화합활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참 갖기 등 개별 신행활동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김 회장은 "법회를 충실히 열어 회원들이 신심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타종교 기사회와 화합 활동

광주운불련은 92년 5월 1일 창립 이후 무각사와 동림동 사무실에서 월 1회씩 법회를 열고 있으며, 교통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각종 봉사활동과 성지순례, 전국 운불련 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광주지역 불교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동산반야회 범종조성 법회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2일 동산불교회관 법당에서 월드컵 성공기원 범종조성 법회를 봉행했다. 무진장스님, 가수 김흥국 씨 등 1백여명이 동참해 월드컵 축구볼 사인회도 열렸다. 한편 동산반야회는 4월 30일 일본 홋카이도 양원사와 염불, 찬불가 등 불교교류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흥국 씨, 무진장 스님, 김재일 회장.



### 인천사암련 월드컵 성공 기원 법회

인천사암연합회(회장 지첩)는 4월 26일 인천 보각사에서 월드컵 성공기원 및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 전등사 주지 계성스님 등 인천 경승지단 스님들과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경찰불자 3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약사사 주지 화응스님의 낭독으로 인천지역 발전을 발원하는 발원문도 봉독됐다. 법회후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한 모습. 한수갑 인천지사장



### 영월 망경산사 개산법회 봉행

강원도 영월 망경산사는 4월 28일 500여 불자가 모인 가운데 개산법회를 봉행했다. 전 불국사 주지 설조스님을 증명법사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법주사 노전 동성스님, 성주 선석사 주지 선경스님, 김태수 영월군수, 설조스님, 해동불교대학장 대은스님,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 등이 참석했다(사진 왼쪽부터).



### 일붕선교종 경주 연화사 기공식

경주 연화사가 4월 29일 법당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일붕선교종 무찰 종정(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 동붕 총무원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동봉스님은 인사말에서 "삼국통일의 발원지 경주에 도량이 세워지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므로 원만회향을 위해 모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 원주 구룡사 경로위문법회

원주 구룡사(주지 원행)는 4월 27일 2002년 한일월드컵 성공기원 임오년 산신대재와 경로위문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월정사 회주 인허스님과 주지 현해스님, 전용찬 강원경찰청장, 박형진 원주문화원장과 지역노인 2000여명이 참석했다. 원행스님이 이날 모인 사부대중들에게 법문하고 있다.



### 광주사암련 불교합창예술제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벽상)는 4월 26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광주전남 불교합창예술제를 열었다. 이번 합창제에서는 한마음선원, 광주사암연합회 연합합창단이 참가해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였다. 광주 · 전남 보리살타연합합창단이 '부처님이야기'를 공연하는 모습. 주용직 광주지사장


찬탄의 연등
- 창작등 경연대회: 부처님 오신날을 찬탄하는 아름다운 창작등을 만들어 보세요! / 접수 : 5월 1일 - 10일 / 시상 : 5월 19일
- 등만들기 마당: 온국민의 등축제 '제등행진'에 온가족이 함께 만든 꽃문양 팔모등, 사경등을 들고 나갑시다!
- 家家연등 운동: 개장 : 4월 19일 - 5월 11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집집마다 아름다운 연등을 달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시다!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나눔의 손길
- 이웃을 위한 등 달기
- 자비의 선물 나누기
- 어버이날 노인잔치

염색체 이상으로 소이증을 앓고 있는 최지연 어린이(8세) 수술비 마련을 위한 자비의 등불을 밝힙시다.
선물내용 : 경전말씀(소책자), 합장주, 캐릭터카드, 음료수, 빵, 과자, 사탕 등 / 배포처 : 논산훈련소, 연천훈련소
동참방법 : 자비의 선물 1인 1구좌(5,000원 - 10,000원) / 주관 : 조계사, 포교사단 / 주최 : 봉축위원회 / 후원 : 포교원
5월 8일 오전10시 30분 - 오후 2시 / 장소 : 대웅전 앞 / 식순 : 기념식 - 문화공연 - 점심공양
주최 : 조계사 / 주관 : 불교대학 총학생회, 서울노인복지부센터

자비 수행 찬단

정진과 예경
- 큰스님 초청대법회
- 心淸淨 · 國土淸淨 실현을 위한 3000배 용맹 정진
- 봉축 전야 철야정진
- 관불의식
- 타종의식
- 부처님 오신날 저녁기도

5월 12일 - 19일 오전 10시
초청 법사진 : 정대스님, 보성스님, 무비스님, 도영스님, 지하스님, 종범스님, 무진장스님, 주지스님

5월 4일 저녁 7시 - 다음날 새벽 4시 / 주관 : 불교대학 총학생회
5월 18일 밤 9시 - 다음날 새벽 4시
5월 12일 - 19일 새벽 4시 - 오전 9시 30분, 낮 12시 - 밤 10시
5월 19일 낮 12시 - 밤 10시
5월 19일 저녁 6시 - 9시 / 내용 : 예불 및 기도의식, 탑돌이

화합

즐거운 부처님 오신날
- 동자승 30일간의 출가
- 동자승 축구대회
- 축구공등 터널

어린이들에게는 부처님과의 소중한 인연을, 시민들에게는 맑고 순수한 동심을 심어줍니다. / 출가식 : 4월 27일 / 환계식 : 5월 26일 / 참가인원 : 12명
일일 일정 : 예불 참석, 발우공양, 목탁 · 반야심경 · 찬불가 배우기, 등 만들기
월드컵 공동개최국인 일본과 예선 경쟁팀인 미국의 어린이들을 초청해 축구대회를 벌입니다. / 일정 : 1차 - 5월 14일, 2차 - 5월 21일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개최를 축하하는 2002개 축구공등을 밝혀 등터널을 세웁니다. / 기간 : 5월 13일 - 6월 30일

평화

문화의 향기
- 봉축 문화마당
- 문화강좌 '작가와의 만남'
- 민요와 함께하는 불교음악강연회
- 영화 시사회
- 전시

5월 19일 오후 3시 / 장소 : 대웅전 특설무대 / 사회 : 김병조 / 출연 : 장사익, 해바라기, 김정민 명창, 중앙국악관현악단, 중앙전통무용단, 조계사 합창단, 조계사 어린이 합창단, 동자승
구도의 열정으로 글을 써온 한국 대표작가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5월 4일, 11일, 18일 오후 4시 / 장소 : 대웅전 / 초청작가 : 신경림(농무), 고은(만인보), 김성동(만다라) / 주관 : 청년회
5월 11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문화교육관 / 주제 : 민요에 나타난 불교사상 / 강연자 : 박범훈 교수(중앙대 부총장, 전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장)
상영작 : '동승' / 일시 : 5월 18일 저녁 7시 / 장소 : 대웅전 앞마당
부처님오신날 기념 석불전(오채현, 5월 10일 - 6월 16일) / 연꽃전(정명스님, 1차 : 5월 16일 - 19일, 2차: 5월 27일 - 6월 16일) / 서도전(조계사 서예반, 5월 12일 - 15일)
사진전(대한민국불교사진협회, 5월 11일 - 19일) / 토우전 (허경혜, 6월 10일 - 20일)

### 전남도 · 대구시 불자회 연합법회

전남도청 및 시 · 군 불자회와 대구시 불자회는 4월 28일 장성 백양사에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와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양 시 · 도 공무원불자회 회원 및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영호남 공무원 불자들이 화합을 다지고 올 하반기에도 대구법회를 갖는 등 교류를 넓혀가기로 했다. 사진은 전남도 · 대구시 불자회 연합법회 모습.



### 불교 전국산악인련 임원 수련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정인악)는 4월 27~28일 공주 갑사 유스호스텔에서 임원수련법회를 봉행했다. 중앙회 임원, 각 시도지회 및 단위 산악회 임원 80여명이 동참한 이날 수련회에서 산악인불자들은 불교산악회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했다. 정인악 총재가 참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향신문불자회 개심사 순례법회

경향신문사 불자회(회장 강신철)는 4월 27일 서산 개심사와 보현사지, 서산마애삼존불을 찾아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40여명의 회원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는 석불선양회 불교유적답사팀이 동행해 사찰과 문화재에 대한 설명과 의식을 집전했다. 개심사 대웅보전 앞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 경불회 첫돌…회원확대 나선다

## 10개 지방경찰청 · 200여 경찰서 불교회 갖춰

### 수덕사서 기념법회…화합 · 발전 서원

### 인천 등 지방경찰청 연내 결성 추진

전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 충남지방경찰청장, 이하 경불회)는 창립 1주년을 맞아 4월 27~28일 예산 수덕사에서 총회 및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경찰불자들의 화합과 발전을 서원했다.

지난해 4월 28일 대전 구암사에서 창립한 이후 경불회는 내실있는 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회원들의 신심 다지기와 불자회가 창립되지 않은 지방경찰청 및 각급 경찰서의 불교회 창립 지원에 주력했다.

그 결과 경찰불자들의 신행을 돕는 경찰법요집 발간, 법회 지원 및 활성화 등 각급 경찰서 불교회별 신행활동이 크게 확대됐다. 단위 경찰서 불교회 창립도 늘어 전남 · 충남지방경찰청 등 2개 지방경찰청과 30여 경찰서의 불교회가 새롭게 창립됐다. 이로써 인천 · 울산 · 강원 · 전북지방경찰청을 제외한 10개 지방경찰청과 200여 경찰서에 불교회가 꾸려졌다.

이같은 경불회의 성장은 상하 관계가 분명한 경찰 조직의 특성을 활용한 체계 확립을 통해 가능했다는 평가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 지방경찰청과 관내 경찰서를 연결한 불교회의 체계가 탄탄한 조직력을 갖출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 게다가 지난해 11월 창단한 경승단의 재정, 법회, 신행활동 등 활동 지원도 큰 힘이 됐다.

경불회는 올해 불교회간 협의체제와 회원교육 등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또 불교회가 구성되지 않은 4개 지방경찰청 불교회의 연내 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원진 개편을 단행해 사무국장에 김진홍 포교사를, 총무부장에 이을수(충남지방경찰청) 경위를, 조직부장에 김덕수(대구 서부경찰서) 경사를 선출해 활동력 강화를 꾀하는 한편 경찰청 경승실에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찰내 포교사들을 상임포교사로 임명해 회원들의 신행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총무단 회의를 신설해 사무국장이 주재하도록 했다.

불교회가 없는 4개 지방경찰청은 7월 강원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전북 · 인천 · 울산지방경찰청을 연이어 창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원 · 인천지방경찰청의 경우 이미 불자회 창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조계종 포교원과 협의 단계에 있다.

김진홍 사무국장은 "전국 경찰서에 불교회를 결성해 명실상부한 경불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불자들의 신심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4월27~28일 월정사에서 열린 불자 방송 · 언론인 연수에서 참가자들이 발우공양을 하고 있다.

### 불자 방송 · 언론인 월정사서 연수

## 연합단체 구성 긴밀 협조

불자 방송 · 언론인 연수가 조계종 포교원 주관으로 4월 27~28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열렸다.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 불자회와 경향신문사, 중앙일보사, 한겨레신문사 등 언론사 불자회 회원 30여명이 동참한 이번 연수에서는 상호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불자방송언론인 연합단체 구성을 위해 조계종 포교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은 연내 구성을 목표로 중앙과 지방언론사 불자들의 만남도 주선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연수에 참가한 불자 방송 · 언론인들은 새벽예불, 발우공양 등 전통불교 체험은 물론 상원사 적멸보궁을 참배했다.

### 충남대병원 불자회 창립

충남대학병원 불자회가 27일 오후 3시 병원 강당에서 창립법회를 갖는다. 이광순 씨 등 12명의 창립준비위원들이 지난달부터 회원 모집에 들어가 현재 50여명의 회원이 확보되어 있다.

불자회는 3교대 근무로 회원들의 법회 참석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매주 정기법회와 환자법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참석 기회를 제공해 신심을 다질 계획이다.

### 전력인불자련 참회법회

### 장기파업 국민불편 죄송

전력인불자연합회(회장 김영창)는 4월 28일 공주 동학사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발전자회사 파업여파로 발전소지회가 불참해 규모가 축소돼 열린 이날 법회는 장기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한 참회법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처음으로 지방 사업소 불자회 주관으로 열려 타지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는 물론 불자회가 미결성된 사업소의 새로운 지회 결성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날 본사, 전력연구원, 한일병원, 고리원자력, 월성원자력, 영광원자력, 삼천포, 서인천 복합화력, 성서지점, 북부지점, 고흥지점, 장수지점 등 12개 지회에서 130여명이 참가했다.

한편 전력인불자연합회는 10월경 영광원자력 선우회 주관으로 장성 백양사에서 전국 규모의 연합수련회를 갖기로 했다.




◇전력인불자들이 동학사 불교문화원 앞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 "신심고양, 공부하는 모임으로"

### 대전광역시청 불자회 곽무영 회장



"회원들의 신심과 불교적 소양을 키워 공부하는 모임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신심이 강해야 탄탄한 불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4일 창립한 대전광역시청 불자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곽무영(57 · 사진) 지적과장은 회원들의 신심 고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포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 3명의 회원들을 지도법사로 자체 교육을 마련하는 한편 분기마다 관내 사찰에서 철야정진 개최, 기도성지 순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년소녀가장과 무의탁 독거노인 등에 대한 봉사활동도 병행한다.

회원 확대와 관련해 곽 회장은 "대전지역 직장불교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힘입어 광역시청 불자회 창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신심이 깊지 않다고 생각하는 불자들은 가입을 주저하고 있지만, 이들을 불자회에 가입시켜 신행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자회 운영에 반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광역시청내 4명의 국장급 간부불자들로 구성된 고문단과 각 국별로 임명된 운영위원, 회장단 등 20여명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근무처마다 다양하게 배정된 운영위원들의 활동은 광역시청내 불자회 홍보 효과도 기대된다.

대전 중앙불교대학을 졸업하는 등 신심이 두터운 곽 회장은 지난해부터 불자회 창립을 발원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불자들을 섭외, 불자회 창립의 산파역할을 담당해 왔다.

### 분기마다 철야정진 · 성지순례

### 운영위원 20명 근무처 배정

**우리 모임에선**

### 국회직원신도회 축서사 신행실수

국회정각회 직원신도회(회장 김종환)는 25~26일 봉화 축서사에서 야외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주지 무여스님의 법문과 108배, 염불 등 신행실수로 진행된다. 법회 후에는 청량사와 부석사를 순례한다.

### 경찰청불교회 청내법당 부처님 점안

경찰청 불교회(회장 박재진)는 청내 법당에서 9일 오후 5시 부처님 점안 및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한다. 4월 20일 법당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 · 보수와 개금불사에 돌입했던 경찰청 불교회는 이날 법회를 계기로 모임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다.

티베트의 자연과 문화안내서 세 권

# 티베트를 알아야 '달라이 라마'가 보인다

언제나 연꽃미소를 띤 자비와 평화의 화신, '달라이 라마!'
그의 고향은 아득히 눈 덮인 히말라야 설역고원(雪域高原). 그 신비와 명상의 땅에 한국인 세 사람이 조심스레 발걸음을 들여놓았다.
현대인들에게 비폭력의 성자로 혹은 다정한 친구로 존경받는 '달라이 라마'를 찾기 위해…. 화가, 탐험가, 의사. 그들은 마침내 온갖 역경을 이기고 수많은 '달라이 라마'를 찾아내었다.
한국인 모두에게 바치는 이 책은 티베트 곳곳에서 발견한 '달라이 라마'에 관한 특별 보고서이다. 글, 사진, 그림을 한꺼번에 동원해 티베트의 문화와 자연을 입체적으로 담아 내었다.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
- 포탈라에서 수미산까지 -
■ 반양장 올컬러 416쪽
■ 글 · 사진 / 김규현 / 값 17,000원




**지도의 공백지대를 가다**
- 티베트 8만 Km -
■ 반양장 올컬러 388쪽
■ 글 · 사진 / 박철암 / 값 15,000원




**히말라야 있거나 혹은 없거나**
■ 반양장 올컬러 368쪽
■ 글 · 사진 / 임현담 / 값 15,000원

· 종이거울 자주보기 — 유리거울은 내몸을 비춰주고 종이거울은 내 마음을 비춰준다. 도서출판 도피안사 DOPIANSA · 전화 : 031) 676-8700 · E-mail : dopiansa@kornet.net · 서점에 있습니다.

# 한국불교학 발전 새로운 가능성 모색

학문의 즐거움 중 하나는 새로움이다. 소재나 주제의 새로움,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해석, 통설을 뒤엎는 반론, 미답의 연구 영역에 대한 도전…. 공동 주제 발표문을 포함 200편의 논문이 발표된 불교학결집대회에서 주제나 방법론상의 새로움이 엿보이는 논문들을 살펴봤다. 논문의 질적 우열은 절대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 불교학자가 아니라도 관심을 가질 만한 논문들이다. 〈편집자〉

## 주요논문으로 보는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 '진심직설' 저자 정언선사

**최연식**(서울대 강사)

2년 전,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까지 보조국사 지눌의 저서로 인정받아 온 <진심직설>이 지눌의 저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던 최연식 씨가,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진심직설>의 저자는 중국 금대의 선승 정언(政言) 선사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주장의 근거는 현재 중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 정언선사 탑명>의 탁본 자료다. 정언선사탑은 1188년

정언선사의 행적과 사상 경향을 살펴본 최 씨는 "<진심직설>의 첫부분에는 선종의 문헌으로서는 흔하지 않게 <성유식론>과 <성유식론 술기>가 인용되

### '진심직설' 보조 저술 아니다

에 세워진 중국 금대의 승려 정언선사의 모탑으로 현재 탁본만 남아 있다. 파손이 심해 읽을 수 없는 글자가 많긴 하지만 정언선사의 저술을 나열한 제4면 5행 윗부분에서 <진심직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최 씨는 밝혔다. 이어 <…탑명>과 다른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

어 있는데 이는 젊은 시절에 유식학을 공부한 정언선사의 행적과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또 <진심직설>에 다양한 선사들의 공안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도 송고(頌古)와 염고(拈古)를 각기 100편씩 지은 정언선사의 저술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비구니 게송서 본 출가동기

**정인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중앙승가대 교수로 있는 정인 스님은 팔리어 남전대장경 속에 들어 있는 '비구니 게송(Therigatha)'을 분석해 부처님 생존 당시 출가한 비구니들의 출가

자비로운 모습을 보고 출가, ②자식의 죽음으로 인해 출가, ③천민의 신분에서 출가한 경우, ④타종교에서 불교에 귀의, ⑤생활고를 피하기 위해 출가, ⑥친족들의 죽음 때문에 출가, ⑦남편의 학대로부터 출가, ⑧나이가 많아 늦게 출가, ⑨늙음의 무상함 때문에 출가, ⑩부처님의 출가를 따른 친족들의 출가로 나눌 수 있다.

16장 522게송으로 이뤄진 Therigatha에는 모두 70명의 비구니 이름이 나와

### 내면 경험에 따른 10가지 출가 유형

동기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비구 게송인 Theragatha가 외적인 자연 묘사와 자기 신앙의 고백적 성격이 강하다면, Therigatha는 내면적 경험 묘사로 인간적 감정이 풍부하다는 전제하에 비구니의 출가 동기를 10가지 유형별로 나눴다. 이에 따르면 ①부처님의

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은 불법이 '무상의 정각'임을 자각하여 깨달음이라는 순수한 동기에 의한 출가라고 밝혔다. 게송에 비해 비구니의 수가 적은 것은 한 비구니가 2개, 3개, 많게는 40게송까지 읊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집성은 74게송으로 엮어져 있다.

### 조선 명종조 승과 부활

**김경집**(진각종 종학연구실 연구원)

불교의 암흑기, 혹은 배불정책(排佛政策)으로 표현되는 조선시대에도 불교가 명맥을 이어온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김경집 씨는 왕실 신앙의 힘이나 민중들의 정서 속에 남아 있는 신앙의 잔형이라는 외형적 힘도 무시할 순 없지만, 불교계의 내재적 의식이 더 중요한 동인(動因)이 되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그 동인으로, 조선조 연산군과 중종조를 거치면서 폐지됐다 명종조에 잠시 부활한 승과 제도를 지목했다.

김 씨는 명종조의 승과 제도 부활이 기간은 십여 년에 불과하고 승과가 치러진 횟수도 몇 번 되진 않지만

### 억불 속 불교유지 動因

이 틈에서 자라난 불교계의 내재적 의식은 그 후 조선사회에서 불교가 유지되는 동인으로 자리하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음성적으로 이어가던 불교가 양성적으로 세상에 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에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여기에서 배출된 인물과 그 후학들에 의해 계승된 선맥은 그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불교의 흐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이들에 의해 저술된 문집과 중요한 경론들의 사기(私記)는 상대적으로 다른 왕조에 비해 열악했던 학문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이다.

### 호탄불교에 대한 연구

**한지연**(동국대 박사과정 수료)

한지연 씨의 논문은 한국 불교학계에서 거의 연구 성과가 없었던 서역 불교, 그 중에서도 호탄 불교에 대해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호탄은 인도와 중국의 불교 교류에 있어 가교 역할을 했던, 서역의 남북 양로 가운데 남로를 대표하는 불교국가다.

이 논문에서 한 씨는 호탄 불교가 부파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발전했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불교 전래 그 시점부터 대승불교의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서역 불교가 부파→대승 불교로의 발전 과정을 거쳤다는 연구 때문에 호탄 불교 역시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었다는 설명이다.

### 호탄불교 정체성은 '대승'

호탄 불교가 부파에서 대승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은 <출삼장기집>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소승행이 <대방광경>을 구하기 위해 서역으로 떠난 것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보이는 '소승학도'라는 말에 주목한 것이다. 하지만 한 씨는 주사행이 호탄에 갔던 이유가 <대방광경>임을 고려할 때, 소승 불교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은 <대방광경>과 그 성격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기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호탄에 대한 적의적 표현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법현의 저술을 보면 401년 호탄에 당도했을 때 이미 대승에 속하는 승려가 삼천 명에 이른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점을 봐도 소승 후 대승의 발전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 현대시와 불교적 상상력

**홍신선**(동국대 교수)

현대시에서 불교적 상상력과 세계 인식이 미치는 영향은 '불교시'라는 장르의 타당성을 넘어 이미 하나의 '당위'가 되고 있다. 홍신선 교수는 90년대 들어 이른바 정신주의란 이름표를 달고 등장한 불교적 시들은 "전통적 사상이란 명분론 때문만이 아니라 탈근대를 위한 대안 사상으로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홍 교수의 논거를 따라가 보면, 정신주의 시에 대한 부정적 담론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인들이 선(禪)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를 인식의 틀로 삼은 작품들을 생산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지훈은

### 불교사상 현대시에 활력

'현대시가 섭취한 것은 선의 사상 자체보다는 선의 방법의 적용'이라고 했다. 즉 선의 비논리성, 비약, 정중동이나 동중정의 미학을 현대시의 기법으로 적용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홍 교수는 오히려 기법보다는 세계 인식의 틀로서의 선(禪)에 주목했다.

또한 현대시의 창작 모티브로 작용하는 불교적 상상력은 연기설이나 윤회 사상을 밑바닥에 깔고 있고, 이는 불교적 상상력에 기댄 정신주의 시가 단순히 정신의 해방이란 좁은 영역을 벗어나, 탈근대의 이데올로기와 만날 수 있는 대안 사상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리=권형진 기자

# 한국불교학 한단계 레벨업

## 이덕진 씨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기고



## 연구성과 공유·타학문과 교류 긍정적

### 총론 그친 연구·북한불교 언급없어 아쉬워

### 원효를 노장사상과 연계한 발상 주목할만

이제 한 세기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기가 도래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정보사회로 달려가고 있고, 학문은 더욱 세분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6개의 불교계 대학, 14개의 불교학회 그리고 10개의 불교계 연구소가 합심하여 개최하는 '한국불교학결집대'는 그 의미가 심장하다. 200편의 논문이 한꺼번에 발표되는 학술대회는 한국 역사상 그 전례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교리연구에만 치중했던 지금까지의 태도를 지양하고,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현실사회와의 접목을 시도하려는 새로운 시도는, 지금까지의 한국 불교학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초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편의 논문이 모두 땀을 흘린 흔적이 보이지만, 특히 주목되는 논문은 우선 김호성 교수의 '힌두교와 불교에 나타난 폭력/전쟁의 정당화 문제'이다. 최근의 테러사태와 팔레스타인 문제 모두 그 뒤에 종교갈등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 논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항배 교수가 '노장과 원효'에서 원효를 노장사상과 연계한 발상도 주목할 만하다. 이 이외에도 이종표 교수의 '칸트와 붓다', 허인섭 박사의 '전산화본 고려대장경 2002(TK2002) 완성의 학술적 의미', 박화문 교수의 '장애인의 심리와 유식불교' 등도 일독을 권하고 싶다. 주제나 연구방법이 참신한 논문은 우선 최연식 박사의 '<진심직설>의 저자 정언선사'가 있다. 기존의 입장에 반론을 펴는 그의 주장이 좋다. 이 이외에도 키츠카와 도모아키(橘川智昭)의 '일본 법상종의 형성과 신라 유식학', 김형중 교법사의 '불교종립학교(중·고)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종교교육 방안' 등이 주제나 접근방법이 새롭다. 박범훈 교수의 '불교사상으로 본 판소리 심청가 연구', 박영의 교수의 'In Watermelon Sugar와 불교', 백원기 교수의 'Thomas Hardy의 시와 불교', 서혜숙 교수의 '예이츠와 화엄사상', 최희섭 교수의 '엘리엇과 불교' 등의 논문은 불교학결집대회가 아니면 볼 수 없었던 논문에 속한다.

이번 불교학결집대회는 불교학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점이 아주 많았다. 첫째, 불교학과 타학문과의 교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불교학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셋째, 불교학자들간의 교류의 가능성을 터 주었다. 넷째, 한국 불교의 축인 동국대와 비 동국대 학자들간의 학적교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한국 인문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았다. 첫째, 북한불교에 대한 연구가 한편도 없었다. 둘째, 학제간 연구에 대한 논문들이 대부분 총론에 그치고 구체적인 접근이 없었다. 셋째, 특정인물에 대한 경도가 심했다. 넷째, 기존에 발표했던 논문의 축약이 너무 많았다. 이 문제는 불교학결집대회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숙제도 있었다. 첫째, 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어떻게 계속해서 보장 할 것인가 하는 숙제이다. 결집대회에 발표하는 논문이 학술적 업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수한 논문이 생산될 까 하는 점이 우려된다. 자칫하면 일회용 잔치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발표주제를 연구자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숙제도 남겨 주었다. 이 문제는, 주관하는 측에서 미리 1년 전쯤 큰 주제를 선정 제시하고, 발표자들이 그 범주 안에서 논문을 저술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요논문을 선정하여 영역하는 방법은 없을 까 하는 것이다. 제대로만 된다면 한국불교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려대 강사


부처님 마음! 아시아로 세계로!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 내사랑 부산! 시민연등축제

**시민연등축제 상징물 점등식**
- 일시 : 5월 2일(음. 3. 20/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 부산역 광장
- 내용 : ① 탑, 옹, 연등 점등식
② 2002명이 만들어내는 '부처님 마음! 아시아로 세계로' 촛불 점등

**부산발전기원 「3천배 철야정진」**
- 일시 : 5월 11일(음. 3. 29/토) 오후 8시~ 12일(일) 오전 4시
- 장소 : 부산역 광장
- 내용 : 500여명의 스님과 500명의 불자들이 부산발전을 기원하는 3천배 철야정진

**부산불교 합창제**
- 일시 : 5월 13일(음. 4. 2/월) 오후 7시
- 장소 : 문화회관 중강당
- 내용 : 1,500여 합창단원이 함께 하는 찬불가 공연

**시민문화축제**
- 일시 : 5월 12일(음. 4. 1/일) 오후 2시~4시
- 장소 : 부산역 광장
- 내용 : 체험마당 - 연등만들기, 컵등 만들기
놀이마당 - 불자노래자랑, 풍물공연,판소리, 장구와 민요,불교무용, 시낭송, 어린이 찬불가, 천공다례
불자노래자랑 참가신청 : 5월 2일(목)까지 – 선착순 50명
문의 : 대한불청 부산지구 467-5241, 011-881-6376

**연합대법회**
- 일시 : 5월 12일(음. 4. 1/일) 오후 4시
- 장소 : 부산역광장
- 내용 : ① 부산발전기원 영산재 ② 3만 여명이 참석하는 연합대법회
③ 부산발전을 기원하는 1,500명 합창단원의 대합창

**제등행진**
- 일시 : 5월 12일(음. 4. 1/일) 오후 6시 30분
- 코스 : 부산역광장 → 부산진역 앞 → 부산불교방송 앞 → 범냇골로타리 → 서면로타리

**시민과 함께 (전시, 공연)**

| 행사명 | 일시 | 장소 | 주관 | 연락처 |
|---|---|---|---|---|
| 환경보호활동 | 4. 11 | 해동용궁사 | 부산불교문전기자회 | 624-2207 |
| 푸른부산기루기(물댐이 살기) | 4. 14. 10 00 | 초읍 아시안도 | 범어사신도회 | 898-2672 |
| 녹색 도시 가꾸기를 위한 꽃씨 나누어주기 | 4. 21. 10 00 | 어린이대공원 | 범어사신도회 | 898-2672 |
| 2002 세계고등대전 입주, 선서와 폐별전 | 4. 26 ~ 5. 2 | 국제전시센터 4층 대전시실 | 연합도장 | 032-885-9711 |
| 제20회 불교 및 전통문화사진공모대전 | 4. 27 ~ 29 | 부산진구청 1층 전시실 | 주)대한불교신문 | 867-1515 |
| 선진 모터 교통 캠페인 | 4. 28 | 사직운동장 | 범어사,운불련 | |
| 연등만들기 경연대회 | 4. 28 | 범어사 티켓 | 조계종부산광역시불교청년회 | 867-8048 |
| 외국인연등만들기 | 4. 28. 14 00 | 통도사부산포교원 3층 법당 | 통도사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 | 816-2241 |
| 연등만들기 | 4. 30. 11 00 | 삼광사 지관전 | 삼광사 | 808-7111 |
| 삼칠일정진시 | 5. 2. 18 30 | 부산역 광장 | 동주위원회 | 867-0501 |
| 무차라마음으로 아시아로 세계로 촛불 점등식 | 5. 2. 19 30 | 부산역 광장 | 한마음선원 | 403-7077 |
| 봉축탑탑돌이 | 5. 2 ~ 18 | 부산역 광장 | 삼광사 | 808-7111 |
| 환경·정화 캠페인 | 5. 2 | 오륜도 | 동명불원/푸불련 | 624-7667 |
| 시청의 어린이 이름표 달아주기 | 5. 5. 09 00 | 금강공원 | 범어사신도회 | 898-2672 |
| 제 2차 부처님세계이나 (주제 : 불교시회복지사상과 실천과제) | 5. 10. 13 00 | 부산일보 대강당 |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 | 868-0951 |
| 연극공연 "관세음보살 이야기" | 5. 11 20 30<br>18. 20 30 | 삼광사 지관전 | 삼광사 | 808-7111 |
| 외국인에게 연등 나눠주기 | 5. 11. 08 00 | 부산역 광장 | 통도사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 | 816-2241 |
| 연등시연회 및 다도 시연회 | 5. 11 | 부산역 광장 | 한마음선원 | 403-7077 |
| 불교사상 대강연회 | 5. 11. 14 00 | 부경대학교 대강당 | 부경대학교교수회 / 동명학생회 | 620-1597 |
| 푸르아의 업적 상영 | 5. 11 15 00 | 롯데백화점 8층 문화센터 | 롯데백화점 | 405-5223 |
| 봉축지당법회 | 5. 11 | 부산역 광장 | 부산불교문화협회 | 011-870-9811 |
| 3,000배 정진기도 | 5. 11. 20 00 | 부산역 광장 | 통도사부산포교원 금강회 | 816-2241 |
| 자비의 업수 나누어 주기 | 5. 12. 10 00 | 범어사 | 범어사신도회 | 898-2672 |
| 낙동강 도보 순례 회향 및 환경캠페인 | 5. 12 | 부산역 광장 | 대불청부산지구 | 467-5242 |
| 어린이다례시연, 헌공다례 | 5. 12 | 부산역 광장 | 아여선원 | 011-558-9911 |
| 홍보공연(영남농악) | 5. 12 | 부산역 광장 | 통도사부산포교원어린이유치원 | 816-2241 |
| 무아이무등단공연 | 5. 12 | 부산역 광장 | 통도사부산포교원어린이유치원 | 816-2241 |
| 어린이찬불가 | 5. 12 | 부산역 광장 | 통도사부산포교원어린이회 | 816-2241 |
| 어린이죽경 | 5. 12 | 부산역 광장 | 동명불원 어린이회 | 624-7667 |
| 찬불가자율동 | 5. 12 | 부산역 광장 |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 | 852-5414 |
| 장구와민요 | 5. 12 | 부산역 광장 | 통도사부산포교원 한국장구부 | 816-2241 |
| 불자노래자랑 | 5. 12 | 부산역 광장 | 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구 | 467-5241 |
| 연합대법회 | 5. 12 | 부산역 광장 | 봉축위원회 | 867-0501 |
| 제등행진 | 5. 12. 18 30 | 부산역 광장 | 봉축위원회 | 867-0501 |
| 열린시회 열린음악로가는길 경연회 | 5. 12, 13, 14<br>11 00 | 이룸사 대웅전 | 자비원 | 403-4848 |
| 부산불교합창제 | 5. 13 |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 867-0501 |
| 봉축음악제 | 5. 15. 20 00 | 삼광사 지관전 | 삼광사 | 808-7111 |
| 연등합기 밝은 세상 | 5. 16 | 낙동강합사회복지관 강당 | 낙동강합사회복지관 | 271-0560 |
| 푸차란발공양 | 5. 16. 11 00 | 부산역 광장 |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 867-0501 |
| 재활관 및 청정 마스터앤 하하사물놀이 공연 | 5. 18 | 이룸사 | 이룸사 | 403-4300 |
| 금정산 환경살리기 및 자연보호 | 5. 19 | 범어사 | 개인택시범어회 | 016-864-1212 |
| 행차시행(차인회 협찬) | 5. 19 | | 동명불원 | 624-7667 |
| 동남아 근로자 초청 위안잔치 | 5. 19 | 동명불원 | 동명불원 | 624-7667 |
| 외국인에게 사찰안내 봉사활동 | 5. 19 | 범어사 경내 | 범어사신도회 | 898-2672 |
| 연화사 산사 음악회 | 5. 19 19 00 | 연화사 도량 | 연화사 | 504-5522 |
| 무료영화 상영 | 5. 25 | 양정청소년수련관 3층 소극장 | 양정청소년수련관 | 868-0750 |
| 제16회 삼광한글백일장 시상 및 제8회 대학생 논문발표대회 수상자 시상식 | 5. | 삼광사 지관전 | 삼광사 | 808-7111 |
| UN묘지 - 민주공원 대청소 | 5. 30 | UN묘지 - 민주공원 | 부산불교문전기자회 | 624-2207 |

**나눔의장 (복지행사)**

| 행사명 | 일시 | 장소 | 주관 | 연락처 |
|---|---|---|---|---|
| 영정사진 무료촬영 및 무료 수제등 제로 | 4. 4 | 김해 주촌 보현행원 | 부산불교문전기자회 | 624-2207 |
| 영정사진 무료촬영 | 4. 5<br>4. 25<br>5. 19 | 화엄법계사<br>장유 보현선원<br>부산역 광장 | 운불련 | 624-7667 |
| 제5회 눈기른이들 경로잔치 및 자비로운 어머니상 시상식 | 4. 17 10 00 | 관음사 앞이당 | 늘 기쁜아침 | 265-9471 |
| 부산교도소 방문 | 4. 23 | 부산교도소 | 효자암 | 555-9702 |
| 교도소 위문 법회 | 4. 24, 12 00 | 김해 부산교도소 | 부산여성불자회 | 817-3166 |
| 군부대 방문 | 4. 24 | | 동명불원 | 624-7667 |
| 자원봉사자 등반대회 | 4. 24 | 승학산 | 울산대종합사회복지관/대한정사/대한불사회회 | 264-9033 |
| 양로원 방문 | 4. 25 | | 동명불원 | 624-7667 |
| 독거어르신 생신잔치 | 4. 27 | 용호복지관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 628-6737 |
| 소년소녀가장에게 쌀(100포)전달 | 4. 27 | 효자암 | 효자암 | 555-9702 |
| 자비의 탁발 봉사 | 5. | 광복로 입대 | 울산대종합사회복지관/대한정사/대한불사회회 | 264-9033 |
| 정신지체장애아동 이유회 | 5. | 금정산 | 윤호종합사회복지관 | 628-6737 |
|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실금전달 | 5. | 영도구청 2층 회의실 | 이룸사 | 404-4300 |
| 국립마산 결핵병원 위문 | 5. | 마산결핵병원 법당 | 자비원 | 403-4848 |
| 성우원 위문 | 5. | 성우원 | 자비원 | 403-4848 |
| 부산교도소 위문 | 5. | 부산교도소 | 이룸사 | 404-4300 |
| 부산구치소 위문 | 5. | 부산구치소 | 이룸사 | 404-4300 |
| 사회복지시설 위문 | 5. 1 ~ 17 | 친미재활원, 성우원, 정화양로원 등 11개 단체 | 삼광사 | 808-7111 |
| 동래구거주 독거노인 무료급식 | 5. 1 ~ 18 | 보현의 집 | 부산 보현의 집 | 505-0146 |
| 양로원 봉사활동 | 5. 4 | 김해 보현행원 | 부산 보현의 집 | 505-0146 |
| 제8회 삼광효행상 시상 및 제 12회 경로잔치 | 5. 7 | 삼광사 지관전 | 삼광사 | 808-7111 |
| 제11회 어르신 경로잔치 | 5. 7 10 3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 532-0115 |
| 경로잔치 | 5. 7 11 00 | | 개금사회복지관 | 893-5034 |
| 경로잔치 | 5. 8, 12 00 | 복지관 노인정 | 공장중합사회복지관 | 363-2063 |
| 소년분류심사원 방문 | 5. 8 | 소년분류심사원 | 진여원 | 337-1080 |
|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 5. 8 | 복지관 및 대상가정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br>개금사회복지관<br>공장중합사회복지관<br>낙동중합사회복지관 | 532-0115<br>893-5034<br>363-2063<br>271-0560 |
| 비상약품 지원 | 5. 8 | | 개금사회복지관 | 893-5034 |
| 어르신 큰잔치 | 5. 8 | 중호복지관 앞이당 | 중호종합사회복지관 | 628-6737 |
| 우로급식 | 5. 9제주 제일 | 구서동 자천협력 3번 출입구 | 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 865-7277, 867-7015 |
| 독거노인 초청 점심공양 및 위안잔치 | 5. 9, 12 00 | 동래문화회관 | 동래구불교사암연합회 | 552-8909 |
| 독거어르신 온천관광 | 5. 10 | 태종대 온천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 628-6737 |
| 아동성교육 | 5. 10, 10 3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 532-0115 |
| 결식노인 무료급식 | 5. 11제주 6일 | 구포역 앞 | 진여원 | 337-1080 |
| 정신지체아동 발과후 교실(베델교실) 야외활동 | 5. 11<br>18<br>25 | 적십자 수영장<br>어린이대공원<br>시청공원나들이 | 개금사회복지관 | 893-5034 |
| 제3회 대위문 | 5. 12 10 00 | 제3회대 | 연화회 | 807-8811 |

| 행사명 | 일시 | 장소 | 주관 | 연락처 |
|---|---|---|---|---|
| 생수공양봉사 | 5. 12 | 부산진역앞도로변 | 부산불교방아선 | 521-5022 |
| 아동문화행사 (나의문화유산 탑사기) | 5. 12 | 불국사및 경주일원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 628-6737 |
| 부처님오신날 무료급식 | 5. 14. 12 00 (대구 회오일) | 초읍 자유총연맹 | 동도사부산포교원 연화공양 | 816-2241 |
| 불우이웃 및 소년 소녀 가장돕기 | 5. 15. 11 00 | 삼광사 법화당 | 삼광사 | 808-7111 |
| 자비실천 후원행사 | 5. 18/19 | 내원정사 | 울산대종합사회복지관/대한정사/대한불사회회 | 264-9033 |
| 키다리교실 | 5. 18 | 어린이대공원 | 개금사회복지관 | 893-5034 |
| 부산구치소 위문 | 5. 19 | 부산구치소 | 삼광사 | 808-7111 |
| 육군 제53사단 위문법회 | 5. 19 10 00 | 53사단 자운사 및 신고대 | 삼광사 | 808-7111 |
| 해군 위문 법회 | 5. 19. 13 00 | 해군 3함대 사령부<br>해군작전 사령부<br>해군교육 사령부<br>해군 사관학교 | 삼광사 | 808-7111 |
| 부산교도소 위문 | 5. 19 13 00 | 부산진해교도소 | 삼광사 | 808-7111 |
| 김해공군기지 위문 | 5. 19 13 00 | 김해공군기지 | 삼광사 | 808-7111 |
| 재가노인 일일나들이 | 5. 23 10 00 | | 개금사회복지관 | 893-5034 |
| 심인정신장애인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 5. 28 14 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및 법어사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 532-0115 |

**미래의장 (청소년행사)**

| 행사명 | 일시 | 장소 | 주관 | 연락처 |
|---|---|---|---|---|
| 재가아동 문화고적 탐사 | 5. | | 공장중합사회복지관 | 363-2063 |
| 글사랑 전처어린이백일장 대회 | 5. 3 | 이기대공원 | 윤호종합사회복지관 | 628-6737 |
| 율운대 어린이중요대회 | 5. 4 | 율운대복지관강당 | 율운대복지관/대한정사/대한불사회회 | 264-9033 |
| POWER1318페스티벌 | 5. 4. 15 00<br>11. 15 00<br>18. 15 00<br>25. 15 00 | 양정청소년수련관 3층 | 양정청소년수련관 | 868-0750 |
| 밝은 세상을 청소년에게 환경공모전 푸른부산 가꾸기 | 5. 10 | 파라이타 사무국 | 사)파라이타무산청소년협회 | 853-2445 |
| 청소년 응원 페스티벌 | 5. 11. 15 00 | 어린이대공원 | 양정청소년수련관 | 868-0750 |
| 재가아동 일일나들이 | 5. 11. 10 00 | | 공장중합사회복지관 | 363-2063 |
| 어린이독경대회 | 5. 19 | | 동명불원 | 624-7667 |
| 제10회 삼광백일장 | 5. 19. 13 00 | 삼광사 | 삼광사 | 808-7111 |
| 제10회 삼광천불가 경연대회 | 5. 19. 13 00 | 삼광사 | 삼광사 | 808-7111 |
| 제10회 삼광독경대회 | 5. 19. 13 00 | 삼광사 | 삼광사 | 808-7111 |
| 지역문화예술활동 전시회 | 5. 19 ~ 25 | 부산광역시청 지하 전시실 | 사)파라이타무산청소년협회 | 853-2445 |

■주최 : 부산광역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주관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051)867-0501

# "금강산 신계사 3층석탑 통일신라때 조성된 것"

금강산 4대 사찰의 하나인 신계사 터에 대한 현장 조사 보고서인 <금강산 신계사지 지표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조사 보고서는 해방 후 북한지역 문화재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학술 보고서란 점에서 향후 북한지역 불교 문화재 조사 연구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련)와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정각)이 지난 해 11월 2일부터 열흘간 신계사 터 일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는 조사 성과 이전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 해방 후 최초로 북한 당국의 허가를 얻어 실시한 조사라는 점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신계사 복원에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해방이후 첫 북한지역 문화재 조사, 보고서 발간

신라 법흥왕 때 창건된 신계사는 현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이 수행했던 곳이기도 하다.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대웅전과 만세루를 중심으로 21채에 이르는 전각을 갖춘 대가람이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불에 타 지금은 삼층석탑 1기와 만세루 돌기둥, 일부 건물의 주춧돌만 남아 있으며 현재 북한의 국보유적 95호로 지정돼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신계사터에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유일한 유물인 삼층석탑이 9세기 후반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이라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고려시대 조성설이 우세했던 이 탑에 대해 문명대 교수(동국대)는 기단부에 새겨진 비천상과 팔부중상의 조각 양식이 같은 강원도 지역의 9세기 석탑인 진전사지 삼층석탑과 선림원지 삼층석탑 양식과 같은 계열의 것이라며 이 같이 결론지었다. 하지만 한국 전쟁 당시 폭격으로 기단부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붕괴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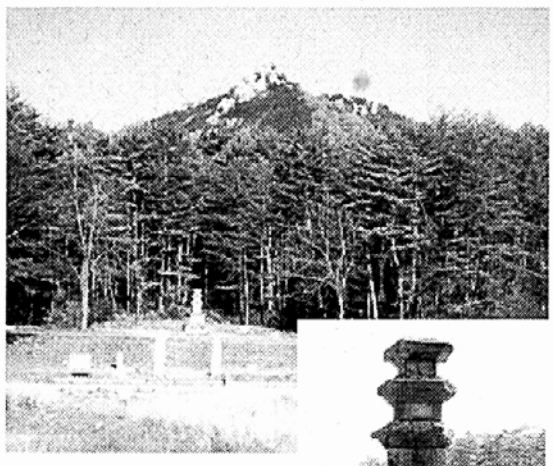
보고서를 보면, 현재 북한이 정비해 놓은 가람 배치에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미 1974년 <신계사터 발굴조사보고서>를 펴냈으며 1998년에는 일제시대 자료를 토대로 중창 당시의 대웅전과 만세루 등의 설계도를 완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터에는 건물터마다 전각 이름이 적힌 푯말을 설치돼 있는데, <유점사 본말사지>의 '신계사지'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한 것이다.

기록에는 요사채로 추정되는 최승전이 60여 칸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 반면 현장에는 조그마한 요사채 규모의 건물터 앞에 최승전터라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 규모로 봐서는 1926년 최승전터 뒤에 4칸 규모로 신축했다는 창고일 가능성이 높다. 현 최승전터 동쪽의 넓은 소나무 군락에서 기와 조각과 건물의 초석이 발견되는 것을 볼 때 이 소나무 군락이 원래의 최승전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 대웅전 · 만세루 등 전각 21채 대가람
### 북한 당국 허가 · 복원 첫 발 의미
### 일부 전각배치 기존문헌과 차이 발견

이번 보고서에는 <신계사지>에 기록된 연혁 부분 이외에도 일지시대 자료를 집대성해 신계사 연혁을 새로 정리해 실었다.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실어 앞으로 신계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했다.







◇해방 전의 신계사 모습(위)과 현재 모습(가운데). 대웅전 앞에 있던 삼층석탑(사진 아래)은 붕괴위험이 높아 복원이 시급한것으로 조사됐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문어체 경전 구어체로 번역

## 역경헌신 백용성 스님 활동 재조명 세미나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 스님)은 2일 '백용성 스님과 한국 불교 역경의 역사적 조명'을 주제로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에 삼장역회(三藏譯會)를 설립, 한글 역경에 헌신한 백용성 스님의 활동을 재조명함으로써 역경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대각사상연구원 김광식 연구부장은 "용성 스님은 3·1 운동의 영향, 수감생활에서 타 종교의 서적이 모두 한글로 번역된 것에 대한 충격, 민중불교에 대한 관심 등으로 경전을 한글로 번역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 '3·1운동'으로 수감중 한글화 발원
### 삼장역회 설립 체계적 번역 시도

'백용성 스님의 역경 활동과 그 의의'를 주제 발표한 보광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장)은 용성·스님이 삼장역회를 설립해 경전을 번역한 것은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경전을 한글로 번역한 이후 처음으로 체계적인 한글 번역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무주상 보시를 당연시하던 당시 풍토에서 판매용으로 유포한 것 역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수익금이 재투자됨으로써 지속적인 역경 사업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광 스님은 "용성 스님은 과감한 번역으로 문어체 경전을 대화체로 번역해 마치 부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했다"며 "특히 조선시대 배불 정책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용어를 새롭게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는 "불교 경전은 문장체보다는 구어체가 더 자상하고 의미전달도 유리하다"며 역경의 방향을 제시했다. 윤 씨는 "문장체가 구어체에 비해 격조는 있는 편이지만 뜻이 추상적으로 굴절되어 애매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경전 특유의 구구 절절하고 자상한 모습도 살릴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결국 불교는 어렵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김수로왕 허황후 인도출신 아니다"



## 이경식 교수 '가야사 학술회의'서 주장

금관가야(가락국, 김해지역)를 세운 김수로왕의 부인 허왕후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평안도나 황해도에서 김해로 이주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4월 30일 열린 제8회 가야사 학술회의에서 '대가락과 대가야의 건국 신화'라는 주제 발표를 한 인제대 이영식(사진) 교수는 "'<삼국유사> 가락국기'는 허왕후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전하지만 현재까지 김해지역의 고고학 조사에서 인도 계통의 유물이나 유적이 확인된 적이 없고, 이를 보완할 만한 문헌자료적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 서북한 지역서 김해이주 가능성
### 기록상 문물 평안도 등 漢계통 확인

대신 이 교수는 허왕후가 중국 한(漢)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서북한 지역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즉 '가락국기'에서는 허왕후가 배에 싣고 들어왔던 물건들을 한(漢)의 호화로운 여러 가지 문물, 즉 한사잡물(漢肆雜物)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김해의 회현리 패총, 양동리와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한 나라 양식의 중국식 거울, 세 발 달린 청동솥, 통용되던 화폐 등에서 한 나라 계통의 문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수는 "허왕후가 가지고 들어왔던 문물은 낙랑 등 한4군이 설치된 서북한 지역인 평안도나 황해도 지역의 선진문물로 추정되며 허왕후 역시 이 지역의 지배계급 출신으로 김해로 이주해 왔다"고 주장했다. 금관가야가 건국된 서기 42년 당시 평안도 지역에 한4군이 있었고, 한 나라 화폐가 서기 40년까지 통용된 점, 김해가 서기 3세기까지 동북아시아 교통로의 중심지로서 북방민족의 이주가 많았다는 점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이 교수는 "'<삼국유사> 가락국기'가 불교가 가장 성행했던 1076년(고려 문종)에 편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교 발생지인 인도에서 허왕후가 출발한 것으로 윤색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 문광부 '100대 한국문화유산' 선정

## 석보상절 · 월인석보 · 능엄경언해 등

# 불교자료 17종 포함

석보상절, 월인석보, 능엄경언해, 초발심자경문언해…. 불자들에겐 이름도 친근한 한글 불교 문헌들이 문화관광부가 추천한 '100대 한글 문화유산'에 선정됐다.

'100대 한글 문화유산'은 한글 창제 후 1910년까지 나온 한글 문헌 가운데 문화사적,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만을 뽑은 것이다. 훈민정음이나 소학언해, 용비어천가, 춘향전 등의 유학서, 문학서 뿐 아니라 구급방, 선조 국문교서 등 기술서, 생활사 자료까지 포함됐다. <혈의 누>와 <서유견문> 같은 신소설도 있다.

불교 관련 자료는 17종이 들어갔다. 수양대군(세조)이 아버지 세종의 명을 받아 부처님 일대기를 한글로 기록한 <석보상절>은 한글로 옮겨진 최초의 불교 문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세종이 이를 보고 지은 찬가인 <월인천강지곡>, 세조가 다시 이 둘을 합본해서 펴낸 <월인석보>는 불자가 아니라도 귀에 익다.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은 세조와 그의 왕사인 혜각존자 신미, 상원사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가장 오래된 한글 필사본이면서도 보존 상태가 완벽해 1996년 보물에서 국보(292호)로 등급이 오르기도 했다.

<능엄경언해> <금강경언해> <법화경언해> 등 최초로 한글로 번역된 불교 경전류, 선종의 6대조사인 혜능의 저술을 한글로 옮긴 <육조법보단경언해>, 원나라 승려 몽산화상의 법어집인 <몽산법어언해> 등도 조선 초기 국어 연구에 귀중한 자료들이다.

문화관광부는 △원본 영인 △현대어로 완역 △작품 해제와 연구 자료 정리 및 영역 △CD-ROM 디지털화 등을 통해 이들 한글 자료의 가치를 재조명해 나갈 계획이다.

## 괘불 7점 보물지정 예고



◇최근 보물로 지정예고된 천은사괘불탱.

조선후기 17~18세기 불교회화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 주는 괘불 7점이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은사괘불탱, 오덕사괘불탱, 도림사괘불탱, 미황사괘불탱, 다보사괘불탱, 금탑사괘불탱, 만연사괘불탱을 보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2일 이를 예고했다. 이들 괘불들은 30일간의 지정예고 기간이 지난 후 정식 보물로 지정된다.


天藥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樂也(연년 불로 선경악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2004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삼각산 도선사 봉축행사 안내

| 일 자 | 내 용 | 장 소 | 시 간 |
|---|---|---|---|
| 4월 23일 | 태풍전망대 점등식 | 태풍전망대 | 오후 6시 |
| 5월 5일 | 산사음악여행 | 도선사 경내 | 오후 1시 |
| 5월 9일 | 봉축관내경로위안잔치 | 우이동 돌집 | 오후 10시 |
| 5월 15일 | 안양교도소 수계식 및 위문법회 | 안양교도소 | 오후 2시 |
| 5월 19일 |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및 봉축산사음악여행 | 도선사 경내 | 오전 10시 / 오후 3시 |

호국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주지 慧慈 청담문도회 청담 문화재단 대중일동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전화 02)993-3161~3 팩스 02)993-3164

이시우 박사가 쓰는

## 불교와 우주 27

### 우주의 신비와 불법 II

# 우주적 종교감각 과학탐구 동기

상의적 수수관계를 통해 유전변천하는 만유는 가능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반응하고 또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머물면서 무자성 상태에서 평등성과 보편성을 이루어 간다. 에너지가 모여 유형의 창생이 일어날 때는 혼돈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 후의 진화에서는 타자와 에너지 수수관계를 통해 가능한 안정과 평형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것이 소위 무질서의 증가(인위적 견지에서)이고 조화의 증가(자연적 견지에서)이며, 또한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이다. 우주 내 만유의 생주이멸은 반드시 이러한 이치에 따라 이루어진다. 비록 무기적 생명체나 동식물의 단순한 지향심이나 무의식적 본능보다 훨씬 발전된 복잡한 의식과 지혜를 지닌 인간도 궁극에는 우주적 진화의 이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자연의 최소 작용의 원리와 이완의 섭리를 따르는 무분별지(無分別智)가 얻어지고, 다시 이를 통해 현실태를 올바르게 관조할 수 있는 무분별후득지(無分別後得智)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섭대승론석>에서 "근본적인 지혜는 객관세계를 지향(緣)하지 않으므로 눈을 감는 것과 같고, 그 뒤에 얻어지는 지혜는 객관세계를 지향하므로 눈을 뜬 것과 같다"고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주의 신비는 곧 우주의 근본 섭리인 동시에 불법으로서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주의 신비에 접근하려면 먼저 자연의 섭리를 가능한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자연 친화적이고 범생태적인 전일적 사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경험과 지혜를 수용하는 아량이 필요하며, 나아가 지구밖에도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우주론적 문명체 원리를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열린 마음'을 지니면서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이해에 한계성이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유기체 철학자인 화이트헤드는 "과학은 자연에서 어떠한 개체적인 향유도 발견해 낼 수 없다. 과학은 자연에서 어떠한 목적도 찾아낼 수 없다. 과학은 자연에서 어떠한 창조성도 발견해 내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계기(繼起)의 규칙들을 찾아낼 뿐이다. 과학은 겉의 외투만을 검토할 뿐 외투 속의 몸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지성의 한계에 서 있다는 안타까운 감정 없이 시간과 자연의 창조적 추이의 신비를 명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리의 과학은 시공적 제한성 때문에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투를 조각내듯이 전체적인 이해를 오히려 흐리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잘못을 막기 위해 전체를 종합적이며 논리적으로 일반화하는 형이상학적 철학이 필요하다고 화이트헤드는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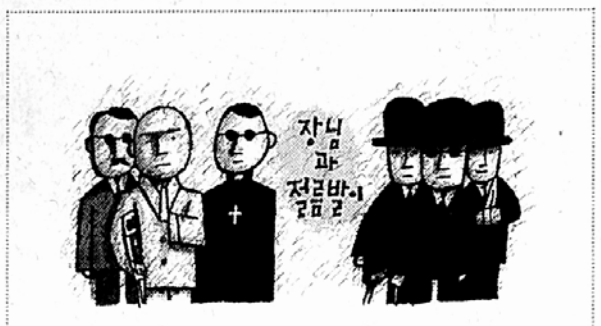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 "자연현상 올바른 이해 위해 합리 · 신비성 융합돼야" 佛法의 中道사상과 일치

한편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며,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라고 하면서 "우주적 종교감각이야말로 과학적 탐구의 가장 강렬하고 숭고한 동기"라고 생각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도덕적 선(善)을 구현하기 위해 인격적인 신(神)의 교리를 던져버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주적 종교 감각이란 우주적 신비를 뜻하는 것으로 불교는 이러한 우주적인 종교 감각을 매우 깊이 간직하고 있기에 과학이 없는 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주의 신비를 깊이 이해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철학자 베르그송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 …인류는 자신이 성취해낸 진보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가 미래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계속 살아 남아야할 것인지 아니면 사라져 버릴지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과학적 합리성을 논할 때, 합리성이란 대체로 이미 설정된 어떤 논리적 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 틀에 맞지 않으면 비합리적이라 한다. 따라서 합리성만 요구한다면 인식한계를 넘어서는 신비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 이런 행위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고 구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해 물리학자 파울리는 "합리성은 신비로움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그는 자연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극단의 대립을 지양하면서 이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바로 불법의 중도사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우주의 신비는 바로 이러한 중도사상을 기초로 하여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대립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의 여러 대상을 여실지견(如實知見)으로 받아들여 통합하고 융합하여 <금강경>의 말처럼 '일체개시불법(一切皆是佛法: 일체 만법이 불법이다)'을 이룩하는 것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 이렇게 들었다

### 가족의 의미 되돌아 보게…

**영화 '집으로…'**

시골에 사는 외할머니와 일곱 살 손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집으로…>가 개봉 후 4주 동안이나 매진 행진을 계속하며 전국 관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영화는 초대형 블록버스터와 '조폭' 영화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할머니의 손자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그리고 있어 현대인들이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실제로 극장에서는 손자 · 손녀, 며느리, 할머니 등 3대가 함께 영화 관람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극장 관계자들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족과 함께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사건은 늘어만 간다. 4월 3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4분기 지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사건은 모두 2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4%가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폭력발생의 원인으로는 가정불화와 음주 후 폭행이 2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처님은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하는 것이 가족<잡아함경>"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 시달리더라도 가정에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다. 구성원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이해할 때 비로소 가정은 안락한 휴식처가 될 것이다.

▧자비스러운 부모가 오래 길러 주셨기 때문에 모든 남녀가 더 편안할 수 있는 것이니, 아버지의 은혜는 높아서 수미산과 같고 어머니의 은해는 깊어서 대해(大海)와 같다. 〈심지관경〉

▧자식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경제적 활동을 생각함이다. 둘째는 일찍 일어나 때에 맞추어 밥을 지음이다. 셋째는 부모의 근심을 더하게 아니함이다. 넷째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함이다. 다섯째는 부모가 병들었을 경우, 의사를 구해 치료함이다. 〈육방예경〉

## 禪과 21세기

###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⑩

# 어떤 경계 닥쳐도 구속 없어져

### 마음에 통달하라

흙 · 물 · 불 · 바람의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그대들의 육신은 법(法)을 말하거나 들을 줄 모르며, 지라 · 위 · 간 · 쓸개도 법을 말하거나 들을 줄 모르며, 허공도 법을 말하거나 들을 줄 모른다. 그러면 무엇이 법을 말하고 들을 줄 아는가? 바로 그대들의 눈앞에 분명한 것, 어떠한 모양도 없으면서 홀로 밝은 이것이, 바로 법을 말하고 들을 줄 아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곧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으며, 단지 언제나 끊어짐이 없게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이것이다. 다만 정식(情識)이 생겨서 지혜가 막히기 때문에, 생각이 변하고 바탕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 때문에 삼계를 윤회하며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는다. 나의 견처(見處)에서는 깊지 않은 것도 없고 해탈치 않은 것도 없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은 모두 마음이다. 눈앞에 펼쳐지는 색깔과 모양이 모두 마음이고, 귀앞에 나타나는 소리가 모든 마음이며, 코앞에 출현하는 냄새가 모두 마음이고, 혀 위에 느껴지는 맛이 모두 마음이며, 손에 잡혀지는 촉감이 모두 마음이고, 의식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온갖 경계가 모두 마음이며, 아는 것도 마음이고, 모르는 것도 마음이며, 알려지는 것도 마음이고, 알려지지 않는 것도 마음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통하면 모든 경계에 다 통달하게 되어 막힘이 없지만, 마음에 통하지 못하면 모든 경계에서 어둡고 가로막히게 된다.

마음에는 어떻게 통하는가? 다음은 어떠한 모양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모양에 의지하거나 모양을 통해서는 마음에 통할 수가 없다. 오직 마음 홀로 밝다고 말하지만, 홀로 밝은 것이 어떤 모양은 아니다. 오히려 정해진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홀로 밝을 수가 있어서, 어떤 경계가 다가와도 모조리 밝혀서 조금의 의심도 없다. 홀로 밝은 마음의 빛이 밝혀주지 않으면 어떤 경계도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경계는 마음의 힘에 의하여 나타난다. 즉 볼 줄 아는 것이 마음이요, 들을 줄 아는 것이 마음이요, 냄새 맡을 줄 아는 것이 마음이요, 맛볼 줄 아는 것이 마음이요, 감촉을 느낄 줄 아는 것이 마음이요, 의식할 줄 아는 것이 마음이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정해진 그 무엇'은 없다.

'정해진 그 무엇'을 두고 마음이라고 일컫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의식적으로 헤아려 판단하거나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안다기 보다는 마음에 통한다는 말이 보다 적절하다. 통하기 위해서는 막힘없이 트여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마음을 허공과 같다고도 한다. 마음은 허공처럼 크기와 방향이 없어서 막힘없이 통하는 것이다. 모든 경계에 막힘없이 통하여 그 경계와 더불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러므로 마음과 경계는 서로 둘이 아닌 하나이며, 한 순간 하나의 경계에서도 마음은 끊어질 수가 없다.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경계와 함께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경계라는 모양이 곧 마음은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통하는 일은 경계 위에서 발생하지만, 마음이 경계의 형태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경계를 모양으로 파악하는 정식에 구속되지만 않는다면, 마음은 바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 막힘없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막힘없이 통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이런 경계는 나타나지 못한다. 바로 지금 숨쉬고 맥박이 뛰면서 글을 읽는 여기에서 마음에 통하면 경계에서 자유롭게 풀려나게 된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http://www.mindfree.net/

##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마지** Rice offering to the Buddha

Chanting and offering rice, thus remembering the buddha's custom of eating once a day, take place at 10:30 a.m. After the ceremony, the monks have lunch. Rice offering to the Buddha is the main meal of the day for the buddha did not eat after noon. They chant before the meal and remind themselves to take food to sustain the body, not from greed or from a desire to beautify themselves.

예불과 공양은 하루에 한 끼만 공양했던 부처님의 관습을 상기하기 위한 것으로 오전 10시에 이루어진다. 의식이 끝나면 스님들은 점심 공양을 한다. 사시 마지는 부처님이 저녁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았기에 하루 중 유일한 공양이다. 스님들은 식사 전에 예불을 한다. 이는 음식을 탐욕이나 일신의 아름다움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다.

After lunch and a short free period, all retum to their respective activities until supper-time at about 5 p.m.

점심 공양 후 오후 5시 저녁식사까지는 각각의 활동 영역으로 돌아가는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


간 (肝) 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덕왕사 지장대불 조성불사 권선문



산승은 부처님전에 귀의한 후로 항상 지장보살님전에 몸과 마음을 다받쳐서 기도중에 지장도량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하고 발원하여 「경북 안동시 녹전면」 일출산 자락에 「덕왕사」를 창건하여 지장대불을 조성하여 모시고 일체 중생에게 다겁생에 지은 죄업을 소멸하고 육도윤회 모든 고통을 멥하여서 지장보살을 친견하여 모든 소원을 이루고 하는 일마다 마장장애 없도록 유주무주고혼영가와 상세 선망부모영가를 왕생극락하실 수 있도록 기도발원 하옵고 이생에 지장대불 조성불사 인연공덕으로 세세생생에 무량복덕을 성취하옵길 두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또한 덕왕사 대작 불사인연으로 성불하십시요.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 법회일시 ▷ 매달 초하루 ~ 초 3일까지 신중기도
▷ 보름 인등법회
▷ 18일 지장재일 영가천도 법회

● 덕왕사에서는 평생동안 영가위폐를 모시고 천도제를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천일동안 모든 조상영가를 영단에 모시고 매달 지장제일마다 천도제를 하여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불사에 동참하여 주시는 분께는 천일동안 기도하여 드리겠습니다 ※

※ 온라인 : 국민은행 622-24-0064-982 농협 729-02-117074
우 체 국 700435-0029797 예금주 : 유재하

연락처 :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녹남 455-5 번지
일출산 덕 왕 사 주지 유용각(만덕) 합장
전화 : 054)853-3855 854-3855 휴대폰 : 011-522-1237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왕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신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게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 목어 가족, 그리고 눈물



요즘 '울어보겠다' 고 보러가는 영화가 있다. 산촌, 쓰러져 가는 너와집에 혼자 사는 꼬부랑 할머니와 서양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있는, 도시에서 온 철없는 외손자와의 동거 이야기, '집으로…'라는 영화다.

눈물은 주로 할머니 때문에 흘리게 된다. 왜일까. 혼자 사는 꼬부랑 할머니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연민의 정을 불러 일으킨다. 하지만 눈물은 그 때문에 흘리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연전에 한국에서도 개봉된 적이 있는 일본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의 주인공 할머니도 관객들의 눈물을 꽤나 흘리게 했다. 비록 스토리는 전혀 다를지언정 두 영화가 사람들을 울리는 대목은 비슷하다. 다름 아닌 할머니들의 '조건 없는 내리 사랑'이다. 가족들을 위해 현신적으로 살다가 그 가족의 '먹는 입' 하나 줄이기 위해 스스로 고려장을 택하는 '나라야마…'의 할머니나, 장터에서 외손자위해 돈 쓰느라 버스 탈 돈이 모자랐던지 손자만 태워 보내고 먼 길을 혼자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집으로…'의 할머니 모습이란….

이런 모습으로 해서 흘리게 되는 눈물은 사람들의 감성을 순화시키고 가족사랑의 감정을 불러들인다. 가족만일까. 세상은 그런 울음들로 하여 정화될 것이며 '내리 사랑' 뿐 아니라 전방위의 모든 '조건 없는 사랑'들이 그런 울음을 자극해 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눈물을 영화를 보면서나 흘린다. 일상에서 그런 눈물을 기대하기는 심히 어렵다.

하긴, 가족에 얽힌 사연들은 미담도 환상도 아닌 각박한 현실일 뿐이다. '가족주의는 파시즘적인 집단최면으로 야만'이라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고, 에이지이즘(Ageism) 즉 연령차별이란 단어가 세대를 나누고 있다. 에이지이즘은 고령자에 대한 편견과 부당한 차별대우에 항거 한다. 당연한 주장들이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해체, 붕괴되고 있다는데 웬 가족 이기주의는 그렇게 성해가는 것일까.

감동의 눈물이 드문 우리들 가정은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것일까. 황폐화되고 있는 것일까.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 불자의 생각

### 공양게




94명이 동참한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에서 36명(38%)의 불자들이 식사를 할 때 공양게를 외우지 않고 마음으로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29명(31%)은 간단하게 합장을 한다, 19명(20%)은 별 생각없이 식사를 한다, 10명(11%)은 공양게를 외우며 공양의 바른 의미를 되새긴다고 답변했다.

공양게 의식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는 질문에는 37명(39%)이 가끔 한다, 22명(23%)이 매번한다, 25(25%)명이 절에서만 한다, 7명(7%)이 주변 사람들이 하면 함께 한다, 6명(6%)이 기타라고 밝혔다.

임영태 기자

### 식사때 '마음으로만 감사' 38%

## 불자 세상보기

# 세상을 바꾸는 인터넷 위력



정호영
충북대 교수
철학과

개인적인 호 · 불호를 떠나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정치적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목격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비단 나만의 경우는 아닐 것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늘 현장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정치 감각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던 신문 · 방송의 기자들도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이른바 대세론이 그 시작부터 빗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위력을 꼽는다. 소위 일간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조선 · 중앙 · 동아일보도 인터넷의 힘 앞에서는 맥을 못쓰고 있는 형상이다.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의 하루 접속자가 작년 7월 12일의 경우 50만에 육박했다고 하니, 지금은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가 있기라도 하면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독자들이 그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더욱 확산시키는 것을 감안하면 인터넷의 위력은 통상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정치인의 홈페이지는 개설 2년 8개월만에 1,927만 여명이 접속하였고, 그와 관련된 소위 노사모의 홈페이지는 2000년 5월 17일 개설된 이래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동안 115만 8천 여명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라 하겠다.

4월 22일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이 발표한 '2002 한국인터넷백서'에 따르면 2001년 말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2,436만 명이라고 한다. 전년보다 524만 명이 증가한 숫자다. 전년비 28%가 증가한 것이며, 유아층과 노년층의 인구를 제외하면 절대 다수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7~19세의 이용자는 834만 명으로 이용율이 93.3%에 이르며 20대는 708만 명으로 이용율이 84.6%라는 점은 가까운 장래에 소년기와 청년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것임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엽기 김대중'이라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이, 조지 부시? 나여!"라는 호남 사투리로 시작돼 "거, 자네가 팔겠다고 하는 F-15라는 자전거 말일시…."로 이어지는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가상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간의 F-15 전투기 구입문제를 신랄하게 비꼬고 있는 이 MP3 음성파일은 전국민에게 폭소와 자괴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음성파일이 3월 20일 한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처음 제작 방송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복사하여 각 동호회와 친목회 등 사이트에 유포시키고, 이를 본 사람들은 다시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메일로 보내면서 순식간에 확산된 것이다. 인터넷의 위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사건이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깊이 침투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인터넷은 개인정보 누설, 유해사이트 남발, 스팸메일 확산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독점을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여론의 민주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보의 확산과 공유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만약 인터넷의 이러한 점을 무시한다면 또는 인터넷 활용에 뒤쳐진다면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끝내는 소외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불교정보화 실태 조사가 시급히 요청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불교계 정보화실태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된다고 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교계는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대책과 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인터넷 사이트의 숫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및 형식을 담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열린마당

## 어린이포교 활성화 방안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는 1일 국제신문 중강당에서 어린이 포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어린이포교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혜총스님의 주제발표와 토론자들이 밝힌 어린이 포교방법론, 종단적 제도 정비,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 어린이포교 활성화 방안을 요약했다.




◇1일 국제신문 중강당에서 열린 어린이포교 활성화 토론회. 왼쪽부터 박용하, 이수만, 김선형, 덕진스님, 이만, 박용규, 김광호 씨.

### '종단 역점사업' 인식 시급

**혜총스님** (어린이불교교육원장)

대불어 연수회에 참석한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린이포교가 종단의 역점사업이라는 인식과 어린이포교 예산증액, 지도자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보상 등 종단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불교의 존립과 직결되는 현안인 어린이포교에 대한 종단의 인식부족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종단의 무관심은 어린이포교 1년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0.03%인 4,700만원이 책정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제 어린이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어린이포교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린이 포교가 종단의 역점사업이라는 인식을 통해 강원에서 어린이포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사연수회 지원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증액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회현장에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적용해야 한다. 각 학년의 교과과정에 맞는 법회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거나 어린이불교교육연구기관을 통한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불교가 21세기 사회와 정신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린이포교에 대한 사부대중의 자성과 동참이 요구되며 특히 종단의 인식전환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을 중심으로한 교재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포교기금 책정 사찰별 지원을

**덕진스님** (前불교어린이지도자련 회장)

현재 어린이포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수익사업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조계종단에서의 지원은 불가피하다. 포교기금 전달금을 책정해 사찰별로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법회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정하지 말고 평일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평일날에 학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회를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이법회, 중등법회, 고등법회, 대학생법회가 단계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도 시급하다.

### 교사대 정식인가 지도자 육성 주력

**김광호** (대한불교교사대 홍보부장)

어린이포교의 활성화는 지도자 양성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어린이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한불교교사대학을 발전시켜 지도자의 질적, 양적 향상에 힘써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조계종단은 전국 유일의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인 대한불교교사대학을 정식인가해야 한다. 그것은 대한불교교사대학을 통해 양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현직 지도자들의 실체성와 정체성을 인정하는 일이다. 또한 어린이포교는 개종률 저하는 물론 자연스런 청소년포교, 군포교로 연결되는 파급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종단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경전 · 한자 교육등 학원기능 법회를

**이 만**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어린이포교방법론에 있어 어린이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이 새롭고 과감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어린이법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글반야심경의 경우, 뜻도 모르고 무조건 외우게 함으로써 오히려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에게 맞는 경전 연구나 한자 교육을 병행한 경전 공부 등의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한자나 기타 다른 공부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학원기능의 법회는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어 법회참석율을 높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린이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나 위상이 높아지도록 사찰업무의 분담과 전문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 온가족 참석 프로그램 개발해야

**김선형** (대전 · 충남불교어린이지도자련 사무국장)

순수한 신심으로 어린이법회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인정해야 한다. 열악한 상황속에서 어린이법회를 이끌어온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것은 법회를 진행할 지도자들의 충원이다.

또 하나는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요법회가 일반화되어 전가족이 함께 사찰에 오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회프로그램이 빠른 시일내에 개발되어야 한다.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는 포교야말로 자연스런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는 책
서옹큰스님 연의
차별없는 참사람 출판법회




임제스님 말씀 『**차별없는 참사람**』, 이 책을 보라.
이 책은 나의 **혼**이요 나의 **생명**이다.
인류여! 인간을 존중하라.
우리 인간은 사량분별망식이 다 떨어진 청정한 마음이다. 우리 인간은 부처님 모습을 본래 갖춘 절대적 차별없는 참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분별하고 집착하지 말라. 분별과 집착은 고통과 지옥, 중생과 윤회에 들어가 끔찍한 일을 범하게 된다. **오직 인간은 합장예배를 받고 합장예배를 해야 할 사람들뿐이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절대적 주체로서 지금 현재 깨달음을 회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해탈열반인 것이다. 임제스님 말씀 『차별없는 참사람』은 오늘의 인류에게 해와 달 천만 개 걸어 놓은 으뜸가는 지혜광명이라 하겠다.
※법회에 참석하시는 분에게 책 1권을 법보시합니다.

법어 : 일산 임조 대선사
차별없는 참사람 운동본부/일산임조선사/차별없는 참사람 삼보제자불자회

**출판기념법회 : 2546년 양력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차별없는 참사람 출판사/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09번지 전화 031)903-9121

아미타불을 친견, 직접 극락을 다녀오다!
중국 관정 큰스님의 6년 5개월 극락체험기




극락은 있다
석관정 지음 | 대주 옮김 | 신국판 | 정가 8,000원
심화 체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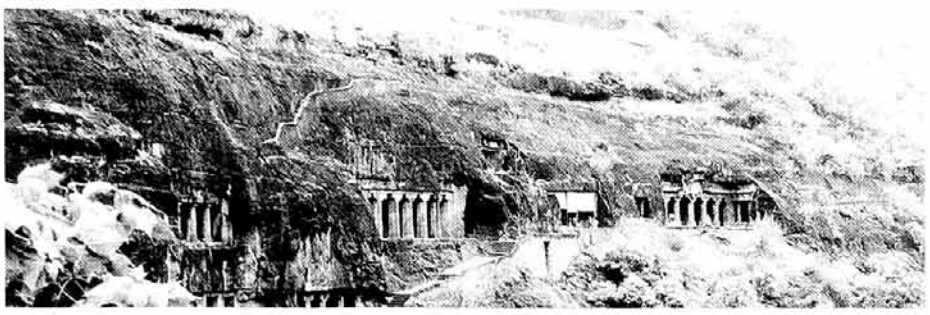


"실제로 내가 서방극락세계에 다녀온 시간은 대략 스무시간 정도라고 생각되었는데, 다시 인간세상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6년 5개월 지나있었다"
본문 중에서-

극락세계 체험의 내력 / 도솔천에서 스승 허운화상과 상봉
미륵보살의 설법 / 아미타불을 친견 / 하품 · 중품 · 상품연화
아미타불의 부촉 / 인간세계로 돌아오다 ……

관정 큰스님은 현재 중국 복건성 선유현 적수암사에 주석하시면서 미국·캐나다 한국 등 전세계 21개국을 순회하며 법을 전하고 있다.

좋은 책을 좋은 인연을 만드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59 갤러리상 405호 ☎ 02)722-0292~3
붓다의마을



◇오랜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벽화와 불상으로 전세계 불자들의 참배 대상이 되어온 아잔타 석굴이 인도 정부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수된다.

# 아잔타·엘로라 석굴사원 개발

## 40억 루피 투입 교통시설 확충·불상벽화 보존·보수

인도의 유명한 불교 유적중 하나인 아잔타와 엘로라의 석굴 사원을 보존하고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아잔타-엘로라 개발 계획에는 총 40억 루피(1천1백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인도의 불교 전문지인 '빔 빠뜨리까' 최근호에 의하면 아잔타-엘로라 석굴 개발계획은 일본의 국제협력 은 행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약 35억 루피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인도 관광부의 관광 개발계획의 하나로 선정되어 다방면에 걸친 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부분은 교통 편의시설의 확충이다. 인근 아우랑가바드 공항의 보수는 물론이고, 대형 비행기도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도 확장할 예정이다.

석굴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작업도 진행된다. 아잔타와 엘로라 석굴 내에는 고대 시대의 불상과 벽화 등 수많은 불교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는데, 인도 고고학 연구회에 의뢰하여 보존 관리와 일부 파손된 문화재에 대한 보수를 맡길 계획이다.

자그모한 인도 관광부 장관은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이라는 모토로 이번 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다. 석굴 지역을 편리하게 개발하되,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했다. 특히 두 지역의 석굴군 주변의 땅 740헥타르(약 220만평)를 훼손시키지 않고 녹지로 보존하기로 했다.

아잔타와 엘로라의 석굴군은 기원전 3세기 경까지, 아잔타 석굴은 기원전 약 3세기 경부터 당시 수행승들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하여 기원후 6~7세기 경까지도 계속 조성과 보수가 계속되었다. 아잔타는 현재 알려진 29개의 석굴 모두 불교석굴이며, 인근의 엘로라는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 석굴 사원 34개가 함께 있다. 두 석굴군은 뛰어난 역사성과 예술성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도 뿌나= 이지은 통신원

## 세계 최대 玉佛 관음성상 봉안

### 26일 중국 옥불원서

중국 요녕성(遼寧省) 안산시(鞍山市)에 세계 최대의 옥(玉) 관음상이 봉안된다.

옥불원(玉佛苑)은 26일(중국의 부처님오신날) '옥불사 세계최대 옥불 관음성상 봉안법회'를 수만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할 예정이다. 120명의 장인이 18개월에 걸쳐 조각한 무게 260톤, 높이 19m의 이 옥불은 1997년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의 옥불로 기록된 바 있다. 안산시는 옥불 봉안식에 맞춰 26일부터 28일까지 '옥불문화 관광절'을 개최할 계획이다.



◇4월 20일 중국 구화산 육신보전 앞에서 제막된 '김지장 스님 차시비' 앞에서 주지 성부스님이 헌다의식을 봉행하고 있다.

## 김지장 스님 탄생 1300돌 기념

## 중국 구화산서 茶詩碑 제막식

한중수교 10주년 및 김지장스님 탄신 1300주년을 맞아, 신라왕족 출신으로 중국에 들어가 지장보살의 화신이 된 김지장선사 (659~794)를 헌창하는 행사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한국차문화협회와 가천문화재단, 불교춘추사는 중국 안휘성불교둔화연토회와 공동으로 4월 20일 중국 구화산 육신보전 앞에서 2m 높이의 김지장스님 차시비 제막식과 한중 다도표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차시비 제막식에서 구화산 육신보전 주지 성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7세기경 지장스님이 구화산에 75년간 주석한 이래 구화산과 한국불교는 오랜 우의를 맺어왔다"면서 "이번 지장스님 차시비 제막식을 계기로 중한 우의의 꽃을 새롭게 꽃피우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와 함께 중국 '안휘 구화산불교문화연토회' 및 구화산불교협회와 한국 불교춘추사는 오는 9월5일 구화산 경내에서 '한중 김지장 국제학술 및 차문화 연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구화산불교협회는 2004년 완공을 목표로 김지장 보살의 비원이 담긴 세계 최대의 지장 청동불상을 총 7천만 달러(9백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하고 있다. 2000년 말에 착공한 지장보살상은 연화좌대를 포함 155m(무게 1천여톤)에 이르는 높이로 지난해 3월 파괴된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불의 3배에 달한다.

# 달라이 라마 활동 재개

## 건강회복, 이달중 호주·뉴질랜드 방문



올초 가벼운 위장장애로 인해 인도 보드가야의 법회를 연기한 후 수개월간 휴식을 취해왔던 달라이 라마(사진)가 건강을 회복하고 활발한 해외 순방일정에 나설 예정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달중에 5일간의 일정으로 뉴질랜드 티베트 관련 단체와 호주 자유당 등의 초청으로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달라이 라마는 5월 27일 웰링턴에서 열리는 대중포럼에서 연설하고, 5월 29일에는 넬슨에서 설법회와 고등학교에서의 연설회를 갖는다. 5월 30일에는 제2회 '세계 불교청년포럼'(IBYF)에 참석하며, 오클랜드의 이든공원에서 대중연설을 한다.

달라이 라마는 7월에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체코를 잇달아 방문한다. 달라이 라마는 체코에서 세계종교의 공존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가하며, 슬로베니아 루블라나 대학의 명예고문직을 수락할 예정이다. 크로아티아 대학 연합에서는 올해의 인물로 '대화의 인물-달라이 라마'를 선포할 예정이다.

달라이라마는 이어 10월 11일부터 23일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인 그라츠의 시장 초청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칼라차크라(Kalachakra) 대법회'를 주관한다. 이번 오스트리아 칼라차크라 법회는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1만여 불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릴 전망이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판첸라마 구출 캠페인 벌여

### 국제 티베트 지원연대



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아동권리 헌장'을 인용, 중국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International Tibet Support Network(국제 티베트 지원연대, 이하 ITSN)는 최근 7년전 중국에 의해 납치된 11대 판첸 라마(사진)의 13번째 생일(4월 25)을 맞아, 내년 4월까지 진행될 '판첸 라마 구호 프로젝트' 제안서를 전세계 ITSN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ITSN(www.tibet.org/itsn)은 이 제안서에서 "중국이 판첸 라마를 납치함으로써 환생한 종교 지도자를 찾는 티베트의 전통을 훼손했으며, 이같은 행위는 앞으로도 달라이 라마의 환생에 관여하겠다는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ITSN은 또 '어떠한 어린이도 사생활과 가족, 집, 동료들과의 관계를 임의로 또는 불법적으로 방해받아서는 안되며, 어린이가 가진 존경과 사회적 위치로 인해 불법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아동권리 헌장'을 인용, 중국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ITSN은 이번 캠페인에서 아동권리위원회나 국제적십자, 고등인권판무관 등의 단체장이 독립적으로 판첸라마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해, 중국 당국이 판첸 라마의 안전을 증명하도록 압력을 넣을 계획이다.

## 日 국제불광회 9차 세계총회

### 각국서 3천여명 참석, 성운스님 '4대 발심' 제안

국제불광회 세계총회 제9차 대회가 4월 30일 일본 동경 국제논단회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제불광회 총회장인 성운스님과 부회장인 오백웅(중국국민당 부주석) 거사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3천여 대의원이 참석했다.

'발심과 발전'을 주제로 한 이번 총회에서 성운스님은 주제발표를 통해 4가지의 발심과 발전을 제시했다. 성운스님이 제시한 4대 발심은 모든 사람을 평등히 대하는 발자비심, 정과 혜를 함께 닦는 발증상심(發增上心), 나와 타인을 하나로 보는 발동체심, 자재원만한 발보리심이다. 또한 4대 발전은 인간성의 진선미, 세간의 복과 지혜, 사람들간의 화목과 공경, 미래의 생불과 합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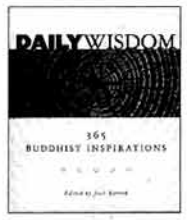
## 中 아미산 낙산대불 보수

중국 사천성(四川省) 낙산시(樂山市) 정부는 4월 26일 심천(深?)에서 '아미산-낙산대불 세계유산보호위원회' 보고회를 갖고, 5월부터 3년간 1억8천元(150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보수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중 낙산대불 좌대 보수공사는 오는 9월 열리는 낙산 제4차 국제 관광 대불절 및 아미산-낙산대불 세계유산보호절 전에 준공된다.

해외불서

• Daily Wisdom: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게 하는 책이 나왔다. Wisdom 출판사는 최근 하루에 한 구절씩 불교의 가르침을 읽을 수 있도록 365개의 구절을 뽑아 <Daily Wisdom>(Wisdom Publications)로 펴냈다. Wisdom 출판사에서 출간한 불교서적 중 55권의 책에서 40여명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모은 것이다.




석가모니와 달라이라마, 틱낫한 스님 등 동서양의 여러 불교 스승들의 글을 모은 이 책에는 금강경독송회 김재웅 지도법사의 <닦는 마음 밝은 마음> 중 '나를 깨우쳐 주는 사람은 모두 나의 부처님이시다. 부처님을 높고 귀한 곳에서만 찾으려 하지 말고 당신의 마을이나 시장 또는 길에서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People who enlighten me are all my buddhas. Instead of trying to find buddhas in high and precious places, shouldn't you be able to find your buddhas in your town, in your marketplaces, and in your streets?)' 등 12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김 법사의 <닦는 마음 밝은 마음(Polishing the Diamond)> 영문판은 1999년도에 Wisdom출판사에서 나와 서부 아메리카 서점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교서적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판매순위 9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Josh Bartok 엮음.

여수령 기자

진각복지재단 스리랑카 JGO센터

# 부처님오신날 기념체육대회



◇4월 28일 스리랑카 카타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기념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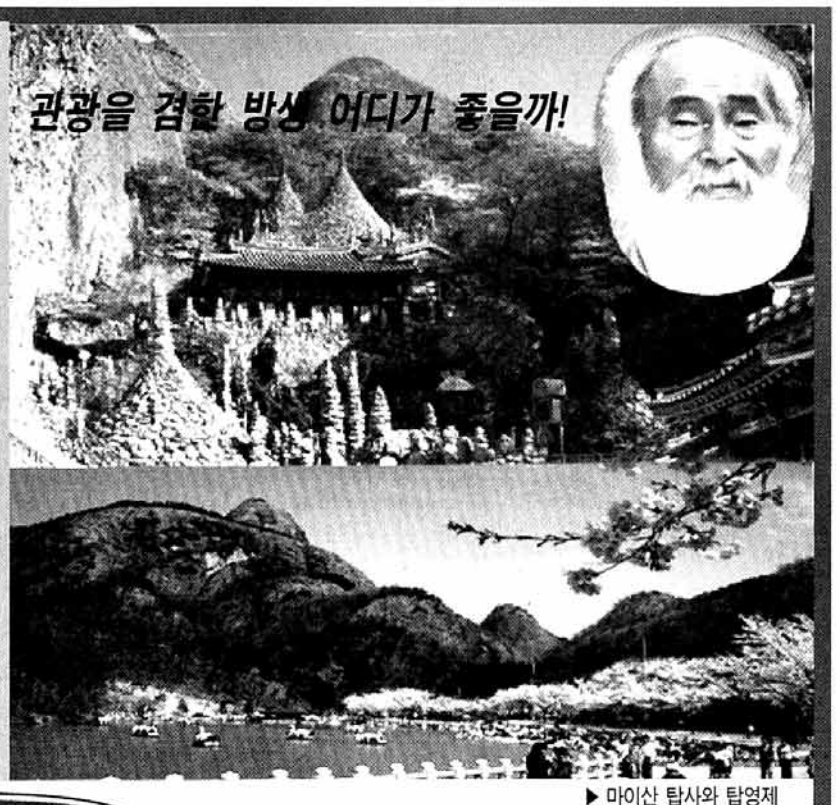
진각복지재단 국제지부인 스리랑카 JGO센터(지부장 야팔라마테 와나타나 스님)는 4월 28일 스리랑카 네곰보 카타나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센터 졸업생 및 재학생을 비롯해 지역 주민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라톤, 100m 달리기, 줄다리기, 장기자랑, 부모님과 함께 달리기, 과자 따먹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센터 지부장 야팔라마테 와나타나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센터 이용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자유롭게 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센터에서 행하는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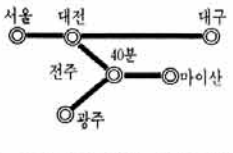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 063)433-2900,0303
432-0652,0072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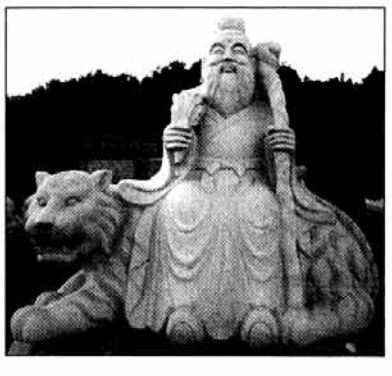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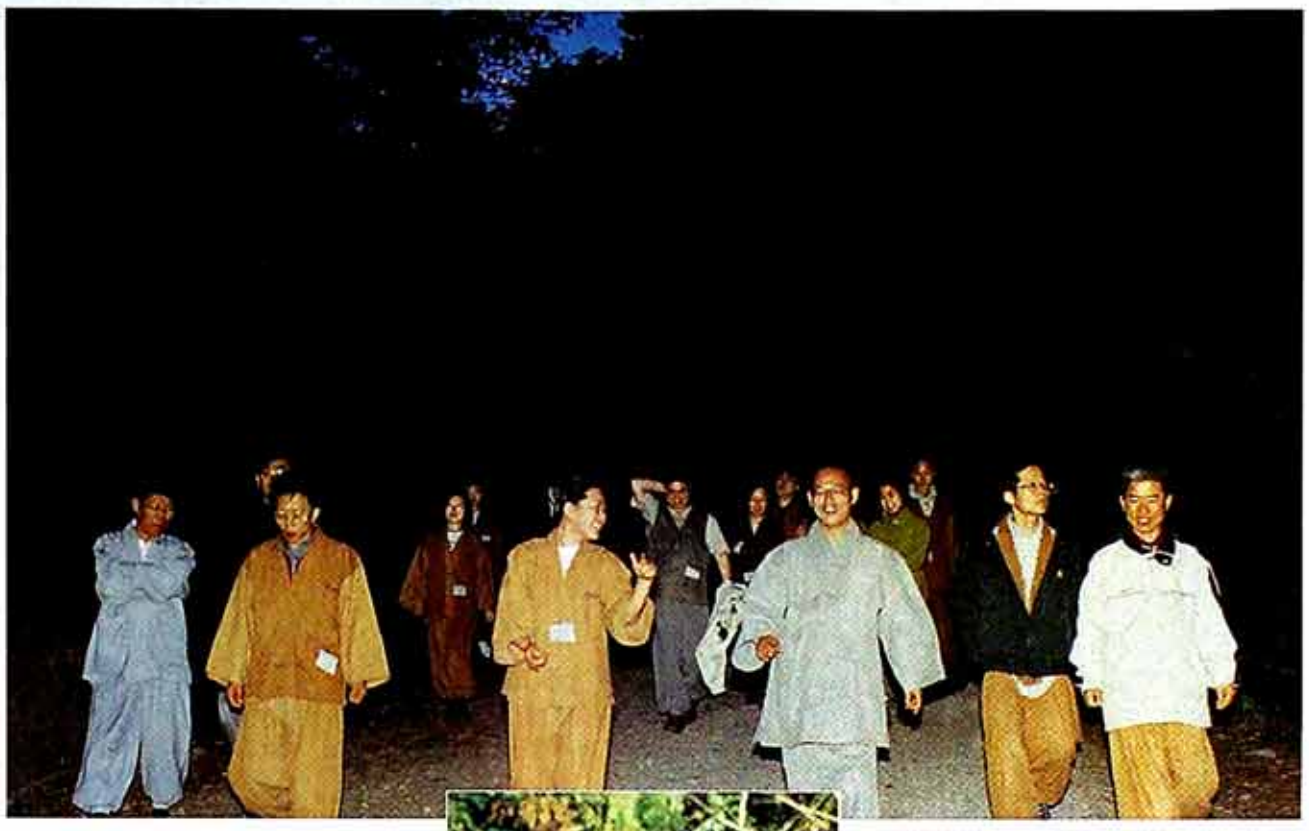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각종 佛事 상담
一心佛院
大佛, 小佛
佛塔, 탱화,
단청, 단청
불교용품일체
☎ 02)725-2030, 2040 (조계사옆 포교원 입구)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www.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새벽숲길'은*
*땅끝 마을 웅장한*
*두륜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해남 대둔사(주지 보선)가*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여유가 많아질 일반인들에게*
*각박한 도심과 일상에서 벗어나*
*한적한 산사에서*
*자신을 반추할 수 있도록*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시범적 수련프로그램이다.*





◇"다선일미의 세계는?" 수련생들이 대둔사 주지 보선스님과 함께 찻잎을 따고 있다(위). 자신의 불성을 보라는 깨우침을 주신 선조사들의 부도를 참배하며 그 정신이 이어지기를 기원했다.(아래)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해 불교계 처음으로 선보인 주말수련회 '새벽숲길'. 산책, 예불, 자유정진, 스님과 차마시며 대화하기 등 산사에서 자신을 성찰할수 있도록 배려됐다. 어슴푸레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 5시, 스님과 숲길을 산책하는 수련회 참가자들.

# 새벽숲길 거닐며 자신을 반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연초록 신록이 눈부신 숲길은 약동하는 자연의 숨소리를 내뿜는다. 고요를 깨는 작은 소리 하나도 자연의 일부로 동화시키는 새벽숲길의 넉넉함은 중생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관세음보살님의 품을 닮았다. 살랑살랑 봄어오는 바람결에 묻어오는 산새들의 지저귐. 그 지저귐조차 일상을 벗어난 수행자에겐 정진을 독려하는 청량제로 다가설 터였다.

4월26~28일 열린 대둔사 '새벽숲길' 수련프로그램에 참가한 22명의 수련생들은 천천히 새벽맞이 산책에 나섰다. 한결 여유가 있는 발걸음 마다 새벽이슬이 툭툭 묻어난다.

옷마를 걸었을까. 푸른 산빛이 서서히 세상 가득 물들일 즈음 수련생들은 고즈넉한 산사로 돌아와 저마다 빗자루를 들고 도량 구석구석을 쓸었다. 마치 속세에서 찌들어버린 해묵은 마음의 때를 털어내기라도 하듯 정성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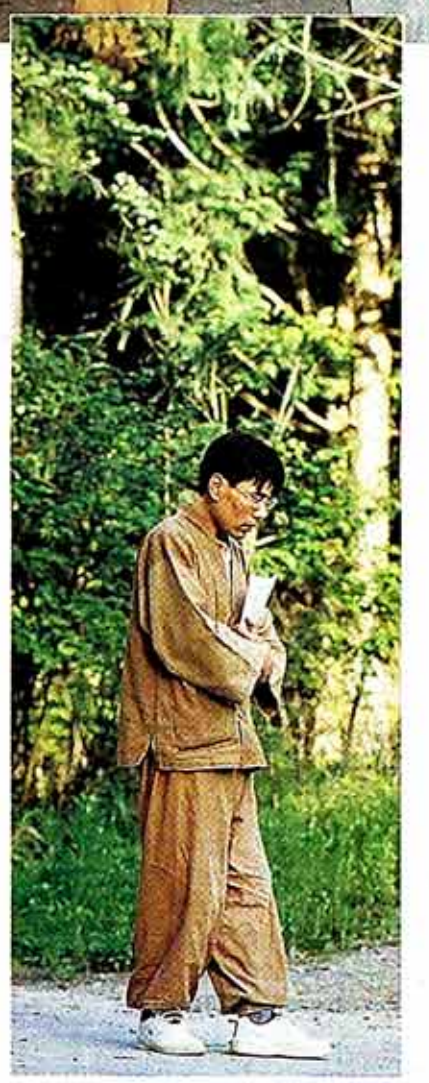
새벽숲길은 조석 예불, 참선, 진리의 말씀 강독 등 불교적 이미지를 함축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서도 새벽숲길 산책, 자유정진, 스님과 차마시며 대화하기, 도량 청소 등 불교적인 내용을 담되 일반인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의 종교는 대부분 불교였지만 절반이 사찰에서 예불 한번 모셔보지 않은 무늬만 '불자'였다.

새벽숲길 산책과 도량 청소가 끝난 후 수련생들은 공양게를 외우고 아침 공양을 했다. 수련회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발우공양이 아니었다. 발우공양이 없는 수련회라니…, 수련회가 이래도 되는 거냐는 수련생들의 무언의 질문에 지도법사 도정스님은 웃을만으로 화답했다. 어떤 격식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련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둔사의 배려였다.

공양을 마친 수련생들이 다시 모인 곳은 대둔사에서도 가장 깊숙이 자리한 청운당. 산사의 정취를 맘껏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 이곳에서 수련생들은 녹차를 우려내며 스님들의 수행담에 귀를 기울였다. 스님들이 만행을 다니며 체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자 수련생들은 진지하게 귀를 귀울였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스님들이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느껴진 시간이었다. 차담이 끝날 즈음 스님들은 지도법사라는 앞가슴의 명찰이 무색할 만큼 수련생들과 마음을 나누는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 있었다.

차담에 이어 자유 정진 시간이 주어졌다. 지도법사 스님들은 마음껏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라는 화두 같은 말을 던져놓고 사라져버렸다. 수련생들은 서너명씩 짝을 지어 여기 저기 흩어졌다. 법당으로, 다경실, 사경실, 선방으로. 임자순례에 나선 이도 있었다. 수련생들은 2박 3일 동안 자유 정진에 배정된 10시간 중 첫 번째 3시간을 가장 힘들어 했다.



◇'나는 누구인가'. 자유정진 시간에 한 참가자가 숲길을 거닐며 깊은 사색에 잠겨있다.

"모두들 규제와 통제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랬는지 자유정진 시간이 되자 어떨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늘 자유를 갈구하면서도 눈앞에 주어진 자유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린 거죠. 하지만 오후에 있었던 두 번째 자유정진 시간부터는 모두들 저마다 생각했던 일을 찾아 나서더군요." 김경석(삼호중공업) 씨는 자유정진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자유정진 시간이 각기 다른 참가 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자유 정진으로 여유로웠던 분위기는 저녁예불을 모시면서 다시 엄숙해졌다. 경전읽기 시간에는 짧은 시간동안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경전을 함께 읽으면서 산사에서 보낸 하루를 정리했다. 저녁 9시, 하루를 접는 수련생들의 시선이 차분해 보였다.

수련 마지막 날인 28일. 새벽산책을 하는 동안 수련생들은 상쾌함이 묻어있는 새벽공기를 조금이라도 오래 간직하고 싶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가 내렸다. 찻잎을 직접 따고, 차를 덖을 기회를 주겠다는 주지 보선스님의 약속을 받아냈건만 야속하게도 비는 멈추지 않았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다 예정시간 보다 늦게 차밭에 도착했다. 비를 맞은 차 차밭에서 수련생들을 기다려준 주지스님은 차를 따는 때도 직접 시범을 보이며 '다선일미'의 세계로 안내했다.

오후 2시. 수련복을 벗고 입고 왔던 옷으로 갈아입은 참가자들은 회향식에서 서로서로 약속했다. 가장 친한 벗과 함께 다시 대둔사에서 만나자고.

경기도 시흥에서 '새벽숲길' 수련회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는 정상숙 씨는 "'절 문턱이 이렇게 낮을 수 있구나' 감탄했어요.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 내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 모든 일들을 여유롭게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요. 정말 소중한 산사체험이 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의 때를 털어내듯 정성껏 도량을 청소하고 있는 참가자들.

## 대둔사 첫수련회 22명 참가

### 예불·자유정진·차담…마음의 때 말끔히

### "소중한 체험…뿌듯한 마음으로 귀가"



◇경기도 이천에서 온 어머니 김미정씨와 아들 재완군이 진리의 말씀을 다정스럽게 읽고있다.

라며 수련회 참가 소감을 밝혔다.

글=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a.com

## 주5일 근무제 대비 30여 사찰 준비 박차

대둔사의 새벽숲길 프로그램은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해 마련된 것으로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프로그램이다. 대둔사 뿐만 아니라 봉화 청량사와 공주 마곡사, 김천 직지사 등 30여 사찰이 기존의 프로그램 또는 시설을 활용해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고 있다.

청량사에서는 대학생, 직장인, 40~50대, 가족 단위 순으로 월1회 주말 수련회를 순환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철도청과 연계한 무박 2일 기차여행도 계획하고 있다.

### 템플스테이·계절수련회 주말 프로그램으로 전환

2000년 5월부터 경내 임야 150여만평을 개방해 적송산림욕장을 운영, 일반인들을 사찰로 이끌고 있는 마곡사는 이를 활용한 '열린 수련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김천 직지사도 템플스테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프로그램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불교계는 템플스테이와 사찰수련회를 연계한 주5일 근무제 대비 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름과 겨울에 국한된 수련회를 주말 수련회로 전환하고, 사찰마다 특성화된 수련프로그램을 상설화 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를 고려해 수련회 운영사찰 소임자 연수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실무자 연수 등을 주5일 근무제와 연계해 실시하고 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혜경스님의

## 경전읽기

법화경 ㉘ 견보탑품 제11

### 허공법회와 진리는 하나

이 '견보탑품'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허공회(虛空會)라는 것과 보배탑 안에 여래의 신체가 흩어지지 않고 한 덩어리로 안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허공회에 관해 허무맹랑하고 꿈같은 이야기라서 믿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법화경>이 드라마로 엮어져 있음은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이다. 허공회는 가능한 모든 지각과 감각 기능을 총망라한, 총지성적인 의식을 통한 상상에 의해 시간과 공간을 상호 관통케 하여 체험하도록, 즉 그 속에 몰입하여 감지하도록 극화(劇化)한 것(지식을 통한 이해를 배제하고, 다시 말해 분별을 버리고 오직 순박한 마음으로 지혜의 문으로 들어오게끔 의도된 것)으로서 긴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믿음도 없이 인간의 때묻은 지식만을 가지고 이 무습(相)을 가진 부처님이 아니라 다만 '진리 그 자체' '진리의 완전한 모습'을 인격화하여 이름한 것이다. 즉 보정세계(寶淨世界, Ratnavis-raddhalokadhatu)란 어머님의 태내(胎內)라는 말인데 그 태내에서 인간이라는 자연현상이 출현했다는 뜻이다. 이 말은 곧 불성(佛性) 즉 진리 그 자체에 의해서 왔음을 일컫는다. 불성이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말하는데 이 부처가 된다는 성질이 왜 진리인가 하면, 진리의 성질은 외향성(外向性) 또는 향상성(向上性)이기 때문에 불성이 바로 진리라고 한다. 그런데 불성이 바로 진리 그 자체라든가 또는 진리의 완전한 모습이라고 말한다 해도 그 당시의 인도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부처님으로 인격화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이다. 그런데 이 진리는 자성(自性)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헝태로 나타나지만 그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한 덩어리로 뭉쳐서 통일된 모습으로 상징한 것이 바로 다보여래이다. '많은 보배를 모은 여래' '많은 불성을 한데 모은 것, 즉 사람'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래의 전신(全身), 즉 여래의 신체가 한 덩어리로 되어 안치된 의미는 무엇일까?

불전(佛典)문학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반열반(般涅槃)에 드신 후, 그 유골(佛舍利)은 재가 신도인 여덟 부족들에게 분배되어 여덟 지방에 모셔졌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래의 신체가 한 덩어리로 되어" 라고 하여 일반적인 전승(傳承)을 부정하고, 영원히 가르침을 설하는 부처님의 출현이라는 복선(伏線)을 깔고 있다. 아무튼 <법화경>은 진리 그 자체 내지 모든 사상의 통일 즉 일승(一乘)이라는 거대한 의의를 가진 경전이다. 최상승(最上乘)의 법문이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무설정사 조실

## '다보여래=완전한 진리' 인격화
## 법화경 사상통일 最上乘 법문

구청정한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를 자기의 작은 잣대로 가늠하여 해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짓인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믿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마당이며 부처님과의 대화의 광장이다. 이 대화의 광장 밖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설명하려 함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에 지나지 않는 어리석은 소행일 뿐이다. 선정(禪定) 즉 삼매(三昧)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근(信根)이 필요한 것이다.

허공회 즉 허공법회란 하늘에서 법회를 가졌다는 것이니 '하늘'은 인간계를 떠난 이상(理想)의 세계를 말하며 '땅'은 인간과 가장 밀착된 현실의 세계다(천태대사는 땅은 무명을 말하고 하늘은 제1의공(第一義空) 즉 진리를 뜻한다고 함). 석존께서는 보배탑의 주체는 아득히 먼 동방 즉 과거의 세계에서 오신 다보여래(Prabhuta-ratna)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아득히 먼 동방의 부처님'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아득히 먼 과거에 출현하신 부처님, 즉 다보여래는 실제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모



◇보광사 대웅전 앞에 모란이 한껏 벙글어있다.



## 가까이서

# 창조스

# "나쁜 일이면 범치 않는다"



◇나쁜 일인줄 알면 행하지 않는 것이 삶의 기본자세라고 강조하시는 창조스님.

한껏 부풀었던 모란이 봄비를 맞고 있었다. 아름했던 모란. 창조(昌祚 88세)스님은 뚝뚝 빗물 긋는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봄비와 모란 그리고 미수(米壽)의 노스님. 그 정기척도 못하고 서 있었다. 모란을 보면서 '모란이 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요' 라는 김영랑의 시 구절을 떠올렸다.

하고 있지. 참회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해야 하는 성스러운 것이지만 이렇게 늙고 보니 더욱 절실해. 그렇다고 내생(來生)에 좋은 몸 받고 싶다거나 좋은 곳에 태어나길 바라는 것은 아니야. 그것도 탐착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을 안 내는 것이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새로 사는

## 변화 대응 방편 사
## 불성·본래심·법
## 죽음은 새로운 삶 사

그러나 봄비에 젖고 있는 모란을 완상(玩賞)하고 있는 노스님을 가까이서 뵙고 있자니 일본의 일휴(一休)선사가 남긴 임종게가 생각났다. '십년동안 꽃그늘 아래서 부부언약 잘 지켰으니 한 가닥 풍류는 무한한 정취여라. 그대 무릎 베고 이 세상을 하직하니 깊은 밤 운우 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十年花下芳盟 一段風流無限情 惜別枕頭兒女膝 夜深雲雨約三生)'. 일휴스님의 이 시를 읽는 순간 한 생을 마감하면서 살아온 나날들을 한바탕의 풍류로 보았던 애증의 정서가 마냥 좋게만 느껴졌었다. 죽음 앞에서 풍류를 즐겼던 선사의 마음자리가 봄비 오는 날 모란을 바라보는 노스님을 목도하면서 새삼 멋스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없었다.

"뉘시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전화 드렸던 기자입니다."

스님은 모란에서 눈을 거두며 절 마당 앞에 서 있는 불청객을 맞으셨다.

"아, 그래? 오지 말랬잖아. 비도 오는데 괜한 걸음을 했구먼. 나는 아무 할 말도 없는데…"

하지만 스님은 반쯤 열렸던 문을 열어젖히며 불청객이 들어갈 공간을 넉넉하게 내 주었다.

"봄비가 참 잘 오십니다. 스님께서 꽃을 감상하시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아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궁상떨지 마시게. 다 늙은 사람이 무슨 꽃구경이겠는가. 그저 방이 답답해 문을 열고 앉아있었던 게지. 오늘따라 식구들이 다 외출을 했어. 그건 그렇고 무슨 볼일이 있어 여기까지 온 겐가?"

"좋은 법문 좀 들으려고 왔습니다."

"법문이라…"

스님은 한동안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었다. 절에는 스님 혼자 있었고 동네는 조용했다. 때문에 스님이 입을 다문 동안에는 사륵사륵 봄비 내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혹시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에 무정설법(無情說法)을 다 들어버리고 오도송을 읊어 냈던 소동파(蘇東坡 · 1036~1101 · 당송 8대가의 한사람)처럼 봄비 소리나 실컷 듣고 가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밀려왔다.

그렇다면 큰일이 아닌가. 무정설법은커녕 고함치는 듯한 고성에 친절한 법문을 들려주어도 알아들을 귀를 갖지 못한 탓에.

정말 스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 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조급해진 마음마저 '그냥 앉아 있어보자'는 배짱으로 바뀔 때쯤까지.

"스님, 저는 아직 공부가 얕아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많은 독자들을 위해 좋은 말씀을 내려 주십시오. 초파일도 다가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고마감일까지 염두에 둔 고백을 꿰뚫어 보셨을까?

"나는 법문을 할 줄 몰라. 젊은 시절부터 생각나는 걸 말로 만들어 내는 것에는 소질이 없었어. 거기다가 이제 늙어서 생각이 깜빡깜빡 끊어지니까 말하는 것도 맘대로 되질 않아. 날도 굳은데 여기까지 왔으니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두어 가지만 물어. 참한 대답은 기대하지 말고."

긴장이 조금 풀리면서 스님을 바로 볼 수 있었다. 골 깊은 주름이 먼저 눈에 들어왔지만 젊은 시절엔 무척 건장했을 풍모였다.

"미수이신데 건강해 보이십니다."

"또 궁상스런 소릴 하는군. 껍데기는 그렇게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아. 큰 병은 없지만 정신이 자주 끊어지니 이보다 더 큰 병이 어디 있겠는가.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야 정진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볼 수 있어. 어느 하나가 허물어지면 그 자리에서 다 끝나는 거야. 병원이나 드나들면서 부질없는 목숨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야 목숨 붙어 있는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욕심이지만 한편으로는 잘 죽을 준비도 해야 하는 거야. 아무 준비 없이 죽는 것은 비참한 노릇이야. 그렇게 죽으면 좋은 내생을 기약할 수도 없어."

침묵 뒤에 터져 나오는 사자후. 봄비처럼 자분자분 이어지는 스님의 이야기는 죽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발칙하게도 스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사실, 일휴선사의 임종게를 떠 올리는 순간, 비에 젖는 모란을 바라보는 노스님으로부터 삶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짧게 스쳤었다.

"어떻게 하면 죽을 준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좋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나는 참회를 하고 있어. 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생에서 지은 업장들을 녹이길 발원

길로 접어드는 전환점에 불과하다는 큰마음을 가질 때 죽음을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

갑자기 스님은 말을 끊고 일어섰다. 시렁에서 작은 상자를 내리더니 종이뭉치를 뒤지다가 한 장의 작은 종이를 꺼내 놓았다.

수호금의고환신(雖好錦衣故換新)
기분상쾌본래인(氣分爽快本來人)
근수복혜비한사(勤修福慧非閑事)
응비백년신후신(應備百年身後身)

"입은 옷 좋다 해도 언젠가는 갈아입고


## 달마도 배우는 정각사 '화엄대학' 수강생 모집안내
### (서울 경기 남부지역 : 안양 · 의왕 · 수원 · 안산 · 군포 · 사당)

**화엄도량 정각사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하여 신 지식인을 양성하고자 「화엄대학」을 개설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근 서양에서 신 지식인은 불교 배우기에 대단히 열중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이 신 지식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 개강일시 : 6월 첫째주(6월 3일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
2. 개설과목 및 강의내용 (교수진 소개)
   1) 참선 수행반 : (연담 거사님 매주 월요일 7시 30분 ~ 9시) 참선 경력 30년의 베테랑 연담거사와 함께 하는 '나 자신에게로의 여행'선 수행의 기초 이론, 앉는 법, 화두 드는 법, 선종사, 雜師어록 등
   2) 경전 연구반 : (정엄 스님 매주 수요일 주간반 11시 30분 / 야간반 : 밤 7시 30분 ~ 9시) 동경대 문학박사 정엄 스님과 함께 하는 재미있는 경전 이야기 천수경,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아미타경 등 대승경전 및 율전 등
   3) 기초 교리반 : (정엄 스님과 철학박사 허정희 선생님, 매주 수요일 2시 30분 ~ 4시) 왕 초보도 쉽게 배우는 불교 이야기 사찰 참배법, 기초 수행법, 예불문, 반야심경, 불교와 전통문화 등
   4) 노래 음악반 : (장연수 선생님 목요일 2시 ~ 3시 30분) 장연수 선생님께서 음치도 가수로 노래 잘하는 비법을 특별 공개함. 발성법, 창법, 악보 보는 법, 흘러간 노래, 최신가요, 가곡, 찬불가 등
   5) 요가 체조반 : (장연수 선생님 목요일 4시 ~ 5시) 완년의 보디빌더 장연수 선생님께서 직접 지도합니다. 식단편성, 요가이론, 자세, 건강체조, 호흡법, 스트레스 해소법 등
   6) 요가 명상반(야간) : (임승택 선생님 매주 목요일 밤 7시 30분 ~ 9시) 정통 인도 요가를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개발한 재미있는 요가명상
3. 수학기간 : 3개월 과정(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4. 수 강 료 : 한 강좌당 3개월 3만원 (3강좌 이상 수강하시는 분은 분납도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지스님이나 종무소 031)398-8001에 문의바랍니다.
• E-mail : so0113@yahoo.co.kr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 2동 1138-1 거성 3차빌딩 6층 (우 435-042)
• 위 치 : 산본 중심상가지하철 4호선 산본역 앞) 주택은행과 시네마극장 중간

대한불교 조계종 화엄도량 정각사 주지 정엄스님



##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031) 986-0277~8
http://www.bulje.co.kr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 큰스님

(강릉 보광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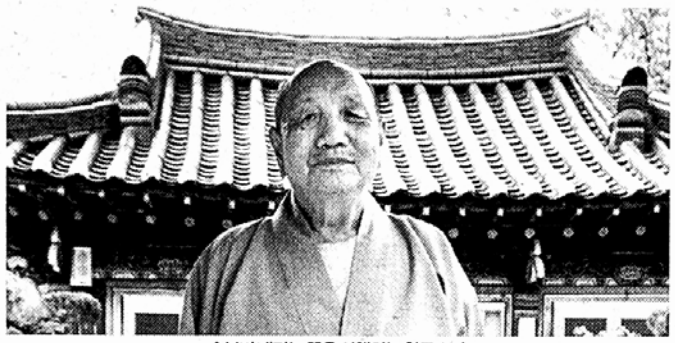
# 지키면 세상 훨씬 따뜻

### 日유학승 생활 3년…77년 보광사 창건 · 주석

**창조스님은?**

1913년 동해 삼화리에서 출생했다. 법호는 등운(騰雲). 시절이 그러했듯이 17세에 보통학교를 마치고 18세에 월정사 만운스님 아래로 출가했다. 절 살림이 가난하여 운력이 많았고 교육체계가 바로 잡혀 있지 않은 때여서 8년이 걸려서야 대교과 이력을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월정사에서 선발해 보내준 유학승이었다. 임제종 불교전문대학에서 3년간 공부를 하고 돌아와 월정사 종무소에서 잠시 사무를 보다가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1년간 시봉했다. 이후 강릉 보현사에서 6 · 25를 맞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보현사 주지를 지냈다.

1977년에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에 절을 창건해 주문진 동명사에서 투병 중인 지암스님(이종옥박사)에게 절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물으니 "보광리에 지었으니 보광사라고 하지"했다. 현재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절이다. 태고종 강원도 종무원장 등을 지냈다.



◇봄비 내리는 뜰을 산책하는 창조스님.



◇창조스님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참회하는 마음으로 미수를 지키고 있지만 돋보기를 쓰고 신문보는 일도 잊지 않는다.

앞에서 붉게 봄날을 장식
서 흠뻑 젖고 있는 모란을

가 너무 죄송스러워 잠시
,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

입었다손 사람마저 달라

백년 뒤엔 무슨 옷을 입

번째 행을 애써 해석하지 않
를 물어도 한사코 "그냥 이렇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거야. 글
고 들면 노래가 재미없어.
몸 갈아입는 일이 죽음임을
이지 굳이 문자를 희롱하고

라 큰 차

할 지켜야

## 되는 전환점

뒤를 따질 필요는 없어. 죽
죽음을 잘 맞는 것 외에 뭐가
가…"

숨을 고르고 나서 설명을 이
본래 변하지 않는 것이다. 환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
라라 마음을 변화시켜 간다.
사는 이치일 수 있지만 본
잃어버리고 주변 환경에 따
보니 자신의 본래 정신이 없
그러니 자기 마음을 잘 붙
제자리에서 반듯하게 중심
도록 해야 한다. 변하는 것은
이치이지만 그 변화에 대응

하는 방편은 사람마다 천지 차이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불성'이라거나 '본래심'이라거나 '법신'이라는 표현들이 다 주변 환경에 물들지 않고 부모이전에 이미 갖추고 받아 온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것을 잘 지키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스님은 힘주어 말했다. 말하자면 스님은 어느새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었다.

"지이불범(知而不犯)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잘 사는 길이야."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일이 나쁜 것임을 알고 범한다. 스님은 나쁜 줄 알면 범하지 말아야 하는 도리는 도덕적 판단은 이미 잃어버린 것이다. 스님은 평생 알면서 범하는 일은 삼가고자 노력해 왔다.

"그런 노력은 언제부터 가슴에 새기셨습니까?"

"월정사로 출가해서 내전 공부를 하다가 상원사에 올라가서 한암 스님을 1년여 동안 시봉한 적이 있었지. 그때 한암 스님은 늘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범하지 말라고 하셨고 매사를 불평등하지 않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어. 또 한암 스님께서 인가하신 탄허 스님도 늘 바르게 사는 것이 수행이전에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지."

스님은 방문을 열고 비가 잦아진 뜰을 바라보면서 월정사로 출가하던 당시를 회고했다.

"그때는 집안 살림이 어려워 학교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었어. 동해 무릉계곡 삼화사 아랫마을에서 태어나 늦은 나이에 보통학교를 마쳤는데 중학교 공부는 할 길이 없었지. 그런데 삼화사 주지 스님이 월정사로 가면 공부를 시켜 준다고 하기에 그렇게 해 달라고 졸랐어.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에서 월정사로 갔는데 그게 출가의 길이 되어 버렸지. 절에서 강원 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나는 참으로 멋진 사람 한 분을 볼 수 있었어. 푸른 두루막을 입고 갓을 높이 쓴 젊은 선비였지. 그 분이 바로 탄허 스님이야.

속가에서 이미 한학을 많이 공부하고 필체도 좋았던 그 분은 월정사를 거쳐 상원사로 가서 한암 스님으로부터 재능을 인정받고 선방 수좌들에게 '금강경'을 강의했지. 나도 상원사 시절에 탄허 스님에게 강의를 들었는데 참으로 훌륭한 스님이야."

살아가는 구석구석이 다 번뇌다. 하지만 그 번뇌는 깨달음의 씨앗이라 했다. 인간의 양심에 떳떳하지 않은 일은 아예 행하지 말라는게 창조스님의 당부다.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천년을 수행해도 이룰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미수를 맞은 창조스님에게 봄비가 그친 후 똑똑 스러져 갈 모란들은 어떤 의미로 보일까?

"피어 있는 동안의 어여쁨이 지는 동안에는 부질없게 보이겠지만 꽃이 져야 내년에 또 봄이 오는 법이지."

글=임연태 기자 ytim@buddhapia.com

만 잘 지켜도 이 세상은 훨씬 밝고 따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쩌다 방송을 보면 무슨 게이트들이 그리 많은지…, 그 사람들이 그 일이 좋은 걸로 알고 했을까? 속으로는 나쁜 줄 알면서 그렇게 하거든. 이미 양심에 먹구름이 끼인 것이고 인간의 도덕에 대해 감각이 없어진 탓이겠지. 권력과 탐욕이 그렇게 하는 거야. 종교 이전에 사람마다 바르게 사는 길을 지켜야 해. 요즘엔 종교인들도 좋은 일 나쁜 일을 구별하는데 있어 잣대가 모호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더 가슴이 아파."

부지불식간에 지은 잘못 가운데 그리 큰 잘못은 없는 법이다. 진짜 엽기적이고 황당한 사건들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다. 나쁜 일인 줄 알면서 저지르는 잘못들이다. 잘못인줄 알면 저지르지 말아야 하

---



##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평곡스님**

내가 스님을 처음 뵌 것은 60년대 중반 스님께서 입적하기 한두 달 전이었다. 평곡스님은 통도사 스님이었다. 스님이 해인사에 언제 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팔만대장경을 지키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평생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다. 대중이 잠든 시간에 장경각 야경을 돌았기 때문에 스님을 '야경스님'이라고 불렀다.

당신의 임종이 가까워짐을 아신 스님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열반당(涅槃堂)으로 거처를 옮겨 달라고 부탁하셨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 해인사에는 열반당이 있었다. 열반당은 성철스님이 계시던 퇴설당 선원 아래, 관음전을 한 면으로 하여 건물들이 'ㄷ'자 구조로 둘러선 곳 한 모퉁이에 있었다.

관음전은 강원의 윗반 스님들이 사용했고, 해인사에서 열렸던 종회에서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영암스님의 방이 그 옆에 있었다. 그 곁에 지월, 자운, 홍교 스님, 그리고 평곡스님의 방이 차례로 있었다. 그 맞은 편에는 채공(菜供)들의 반찬 일



을 도와주던 본연성 보살의 방이 있었고, 그 옆에 법정스님의 방이 있었다. 관음전의 뒤편 맞은 쪽으로 곡루(穀樓)가 있었고 법정스님의 방과 곡루 사이에 한 사람이 누울만한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 바로 열반당이다. 대중이 많이 모여사는 곳에 임종이 다가온 스님이 스스로 그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임종을 맞도록 준비해 놓은 장소다. 그러므로 그 곳은 사찰에서 가장 한갓진 곳에 있었다.

일생을 수행 외길에서 오직 생사문제라는 대사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온 수도자들이 자신의 임종을 눈앞에 두고 조용히 숨을 거두기 위해 들어가는 방이 열반당이다.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는 방이기도 하다. 그 방문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연결되는 곳이라고 생각되던 어린 사미 시절, 도량을 뛰어다니다가도 그 방문 앞을 지날 때는 다소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꽤히 걸음이 조용해지곤 하던 곳이었다.

세속인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남을 의미하지만,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열반당에 들어온 사람이 있게 되면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대중들의 나무아미타불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누구나 평소보다 더욱 진지하게 자신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임종을 맞이한 사람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당시 법정스님은 화엄경을 독경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나에게 유별나게 숭고해 보였던 것도 바로 그 옆방이 열반당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요즘엔 수행자들도 임종이 다가오면 병원으로 가곤 한다. 평생을 생사문제 해결을 위해 공부한 수행자들에게 죽음이란 그다지 유별난 것이 아닐 법도 한데 병원으로 실려가는 것을 보면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아야 할 수행자로서 무언가 마음이 석연치 않다.

평곡스님은 평생을 이름없이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지키다가 가셨다. 그렇게 살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크나큰 원력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수행자로서 이름을 드날리려 했다거나 수행마저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이름없이 자신을 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의 은사스님이 통도사 스님이어서 본사가 같은 평곡스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분안을 자주 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따라 갔었는데 한번은 성철 방장 스님께서 들르셨다.

"무섭능교? 무서울 것도 없데이. 죽는 기나 사는 기나 매 한가지 아잉교? 화두를 챙겨야 합니

### "평생 대장경 지키겠다" 서원
### "열반당으로 옮겨 달라" 입적

다. 다른 데 정신 쓰지 말고 우째든지 정신 바짝 차리고 화두를 챙겨 보이소. 화두 말고 딴 길은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마지막을 경책해 주셨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스님은 열반당으로 자신을 옮겨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종에 이르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신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것만해도 대단한 정신력이다. 큰스님이라고 불리던 분들도 임종에 이르러 힘들어 하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비하여 이름 없이 한평생 장경각을 지키다 가신 스님의 모습에서 욕망 없이 살다 가는 수행자의 아름다운 임종을 보았다.

평곡스님은 조용하게 마지막을 맞았다.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죽음의 방으로 들어가는 심정은 어떠했을까, 살아서는 다시 나올 수 없는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 시절 스님을 뵈며 그런 생각을 했었다.

요즈음 사찰에서 열반당을 보기 어려워 아쉽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자신을 잘 챙기라고 조용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 죽음에 승속이 따로 없겠지만 목숨 걸고 수행해온 수도자라면 임종에 다다라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자신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구미 영명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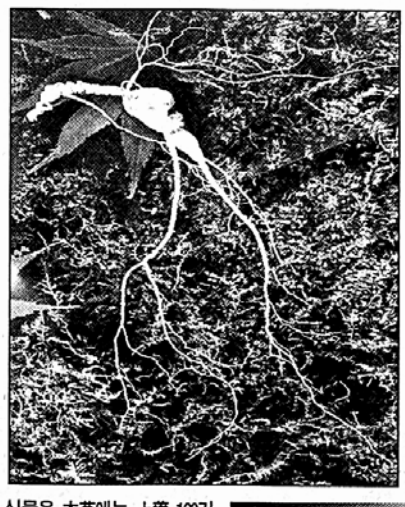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점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 713-7798, 701-4716

- 법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심마당 長腦山蔘

목아 박찬수 '불교미술 40년 회고와 전망'

# 반가사유상 등 108점 전시



◇홍송(紅松)의 나뭇결을 잘 살린 '석가여래좌상(釋迦如來坐像)'.



◇비자목(榧子木)에 정교하게 조각한 '자모관음입상(子母觀音立像)'.

'장인'의 또다른 이름은 예술가이며, 그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은 모두 다 '예술품'이다. 이 시대 전통 목조각의 장인인 목아 박찬수(목아박물관장, 중요무형문화재 목조각장 제 108호)의 40년 예술인생을 한 눈에 조명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서울 법련사 봄일미술관에서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 목아 박찬수, 불교미술 40년 회고와 전망전'을 주제로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보급 불상의 모작인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비롯해 파계사 관세음보살좌상, 상원사 문수동자상, 윤장대, 법상, 동자상, 나한상 등 108점이 선보인다. 우선 미술관 현관에 들어서면 박 관장의 초기 작품인 장승, 솟대, 탈, 도깨비 등 전통민속조각품 25점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옆 1층 전시실에는 '명상에 잠긴 삼매동자', '팽이를 돌리는 동자의 윤회' 등 작고 통통한 볼살의

**석가여래좌상 화려·정교함 극치**
**아미타·삼존여래 목각탱도 선뵈**
**"비구상·추상작품도 작업할 계획"**

표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동자상과 나한상 30여점이 있다. 박 관장의 최근 작품들을 감상하고 싶다면 지하 전시실로 내려가 보자. 48개의 붉은 소나무에 금칠을 하고 연꽃을 조각해 대나무 못으로 감쪽같이(?) 붙인 석가여래 좌상을 비롯해 석가여래삼존불감 등 보기만 해도 화려함과 정교함에 입이 딱 벌어지는 불상 모작품 3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최근 작품인 꼭둑각시 인형을 조각한 형형색색의 '꼭두'도 볼거리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박관장이 10여년전부터 작업해 온 고려불화를 나무로 옮긴 '아미타 삼존목각탱'과 '삼존여래목각탱' 등도 전시된다.

박찬수 관장은 "앞으로는 모작의 차원을 넘어 비구상과 추상작품 등도 많이 작업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앞서 박 관장은 11일 오후 2시 행위예술가 강만홍씨와 함께 '부처가 되고 싶은 나'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펼친다. 또 13일 오후 2시에는 '전통 목조각의 계승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문화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불교의 선(禪)을 현대무용과 선무도에 응용한 이선옥 교수의 '색즉시공'의 한 장면.

# 禪사상 현대무용으로 표현

선무창시자 이선옥 교수 '국제 예술축제' 공연

선무(禪舞)의 창시자 이선옥 교수(상명대 무용과)가 20일부터 24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제4회 국제예술축제와 심포지엄'에서 공연한다.

23일 오후 4시에 펼쳐지는 페스티벌에 참가할 이선옥 교수의 선 무용단은 불교의 선(禪) 사상을 현대무용과 선무기법에 녹인 '색즉시공'을 무대에 올린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이 교수는 염불과 관소리, 재즈의 다양한 배경음악을 사용해 이 교수만의 독특한 춤세계를 선보인다. 공연에 앞서 열리는 포럼에서는 적운 스님(골굴사 주지)이 '대금강문 선무도'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이 자리에서 적운 스님은 "선문도가 단순한 예술적 차원을 넘어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제 역할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APPAN(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네트워크)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7개 공연전문단체가 참가하며, △21일 개회식 및 심포지엄과 페스티벌 공연 △22~23일 페스티벌공연과 포럼 △24일 APPAN 이사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염불·판소리·재즈를 배경음악으로**
**공연 앞서 적운스님·'선무도' 주제 발표**

# 불교무용 새로운 장 열어

2002 이명미의 '옴마니 반 메훔…' 공연



◇춤추는 포교사 이명미씨가 궁중무용을 추고 있다.

국립국악원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는 창작무 '옴마니 반 메훔-땅의 소리'와 함께 태평무, 살풀이, 무고, 진주검무 등 다채로운 춤이 선보인다. 특히 선무도 동작을 춤사위로 재구성한 '옴마니 반 메훔-땅의 소리'는 진흙 위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춤동작을 통해 땅과 인간의 구별이 없어지는 경지를 열어 보인다. 골굴사 선무도 정공, 관정 사범 등이 직접 참여하는 이번 공연은 선무도를 춤동작과 접목시켜 불교무용의 새 장을 열어보이고 있다.

9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2002 이명미의 춤, 옴마니 반 메훔 땅의 소리'는 생명의 근원인 땅의 소리를 들으려 하는 인간의 몸짓을 통해 결국 인간과 땅이 하나의 생명체임을 깨닫게 해주는 춤판이다.

이명미씨는 96년 창단된 최초의 불교무용단인 우바이무용단의 안무가와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흙서 역동적 춤동작**
**'인간과 땅은 하나' 강조**

## 선재동자원 돕기 종이 의상展

## 승복·생활한복 등 80여점 전시



◇한지에 자연염색을 해 만든 문윤숙씨의 '종이승복'.

종이로 옷을 만들면 과연 입을 수 있을까.

종이공예가 문윤숙씨를 비롯한 20여 작가들이 모여 10일까지 LG패션 갤러리에서 '2002 우리 종이 의상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승복을 비롯해 생활한복, 여성용 드레스, 원피스, 모자 등 80여점의 생활의상이 선보인다.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가 2m 정도 앞에서 작품을 감상하면 종이로 만들었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는다. 특히 감색이나 흰색 여성용 드레스는 실크로 만든 것 같이 부드러워 탄성이 절로 난다. 자연 염색한 한지를 말려 50회-1백회 정도 손으로 주무른 뒤 재단해 만든 종이 의상은 비실용적이지만 원하는 디자인을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있고 영구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윤숙 작가는 "이번 전시회는 봉축을 맞아 의정부 선재동자원 56명의 원생들을 후원하는 뜻깊은 행사"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홍근이 쓰는

## 문학 속의 불교

계절의 여왕 5월이 왔다. 신록이 절정을 이룬 앞산을 바라보며 다양한 초록색을 하나하나 감상하다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정말 초록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했다. 그러다 문득, 이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 지금 여기에 내가 있어 저 신록에 감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니, 놀랍고 신비로운 생각이 들었다. 이 신비를 투철하게 깨닫고 잘 요약해 놓은 사람은 운문문언(?-949) 선사이다.

운문은 인간의 세 가지 신비(雲門三玄)를 이렇게 말했다. "하늘을 품고 땅을 덮는다(函蓋乾坤). 뭇 흐름을 끊어버린다(截斷衆流). 파도와 물결을 따라 그 흐름을 같이 한다(隨波逐浪)." 일반적으로 이 말은 운문이 체험한 '절대'의 세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내 나름으로는 이렇게 풀어본다. "공간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하늘을 담고 땅을 덮을 만큼 크다. 시간적으로, 인간은 흐르는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인간은 만물과 더불어 소통하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할 수 있다." 인간은 절대와 부딪칠 때, 활주로를 떠난 비행기처럼 비상하게 된다. 운문은 절대를 체험하고, 그 경험을 세 구절로 압축해 놓은 것이다.

'우주를 마음속에 품는 것'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상징은 '인드라(帝釋天)의 그물코'이다. 제석천이 살고 있는 수미산 위 도리천은 인드라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망의 그물코는 구슬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구슬들은 모두 서로를 비추고 있어서, 하나만 보면 전체가 다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 구슬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자신의 마음 하나를 보고, 우주 전체를 환히 파악한 것이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내용의 핵심이 아닌가.

### 운문의 '세 가지 신비'

**하늘을 품고 땅을 덮는다**
**뭇 흐름을 끊어버린다**
**파도와 물결을 따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시간의 흐름을 끊는 것' 즉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으로 도약하는 것을 화엄에서는 '열 번째 시간(十世)'이라고 불렀다. 흐르는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三世)가 있고, 그 각각은 다시 셋으로 나뉘어 총 구세(九世)를 이룬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상대적인 시간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험인 삼매(三昧)를 체험한다. 유한한 생을 사는 인간이 영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절대를 경험한 인간이 다시 상대세계로 돌아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떨까? 운문은 그것을 '물결 따라 흘러가는 인생'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그 '흐름'은 보통의 흐름과는 다르다. 뭇 흐름을 끊어버린 경험(截斷衆流) 뒤에, 다시 동승한 흐름(隨波逐浪)인 것이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시간을 끊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 운문이 발견한 인생의 신비는, 인간은 죽은 뒤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즉, 미래의 죽음을 현재의 삶으로 끌어와 미리 체험하고, 생사를 넘어선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원효가 제일 좋아했다는 화엄경의 구절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 일체 걸림이 없는 자유인(一道出生死 一切無碍人)'도 같은 뜻일 것이다. 운문의 점창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 이야말로 인생의 신비가 아닐 수 없다.

■문학평론가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온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 이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시공된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종등 신제품 • 실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 종 소리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악업과 고통을 멈추게 한다고 하여, 옛 사람들은 초파일 전에 종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전하고자 찬덕연등제작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에 쉽게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등 보관상태




만월등




◆연꽃입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031) 792-6288, 794-4055
전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 구한말 하층민 분노·원한 불법으로 푸는 젊은 스님

### 만월까지 (전 3권) 류영국 지음

구한말 봉건질서의 최하층에서 모든 것을 박탈당한 사람들, 그들의 분노와 원한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풀어 나가려는 젊은 승려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만월까지>(전 3권, 류영국 지음, 실천문학사)가 나왔다.

1920년대 전주 근방 뱀잣골. 정 참의네에서 종살이를 하던 중인댁과 차동 사이에 태어난 병삼과 월산은 종의 자식이다. 세상이 바뀌고 노비의 멍에를 벗었다고는 하나 큰아들 병삼은 양반집 머슴살이로 연명할 수밖에 없으며, 가난과 고통 속에 자란 원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작은아들 월산은 중이 된다. 각기 다른 삶을 사는 두 형제는, 봉건적 신분제도의 질곡 속에서 시대의 어둠을 헤쳐 나가는 하층민과 시공을 초월한 불교의 진리를 통해 중생의 한(恨)과 원(怨)을 풀어주려는 젊은 승려를 대표한다.

윤 초시네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병삼은 초시의 딸 덕례와 정을 통하고 야반도주를 하여 아내로 맞는다. 하지만 어릴 적 정 참의네에게 조부와 부모가 몰살당한 기억을 지닌 중인댁은 양반집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게 못마땅하다. 월산은 중인댁의 원한의 불길이 사그라지지 않음을 근심하며 출가를 결심한다. 병삼은 송 참봉네 살림을 봐주면서 재산을 늘려나가지만 '종의 씨'라는 굴레는 계속 따라다니며 병삼을 괴롭힌다. 월산은 상희라는 여자를 통해 중생 제도에 눈뜨게 된다.

소설은 단순한 원한과 고난에 머물지 않고 양반 간에 은밀히 이루어졌던 이른바 '씨내리'의 비밀을 통해 계급에 대한 강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봉건질서 붕괴 속의 과도기적 혼란과 갈등은 중인댁의 죽음으로 일단락된다. 중인댁은 숨을 거두면서 아들을 향해 말한다. "정 참의 가문에 원한을 품지 말아라. 알고 보면 다 한 핏줄이다." 핏줄에 얽히고설킨 모든 상처와 원한을 마지막 문장에서 풀어내고 있다. "흉터에 일던 물비늘이 차츰 가라앉고 그 자리에 덩실한 만월이 떠오르면서 숨소리가 멎었다. 뒷산 솔밭에서 산비둘기가 한창 먹피를 쏟고 있는 해질녘이었다."

'만월'은 월산의 화두인 동시에 그들의 마음 속에 놓인 원한과 모멸감, 분노의 그늘을 벗기 위해 키워나가야 하는 희망이다. 종으로 살면서 키워온 모든 원망을 다스리고 한의 덩어리를 풀었을 때 가슴에 차오르게 될 크나큰 희열, 박탈된 빈 곳을 채움으로써 이루어지게 될 온전한 인간의 경지가 곧 '만월'이다.

풍부한 토속어와 서정적 문체는 이 소설의 또 다른 매력이다. 민초들의 끈질기고 건강한 생명력이 문장 구절구절에 짙게 배어 있는 것은 물론, 사라져가는 우리말을 생기 있게 되살려냈다. 또한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소 부리기, 물꼬 싸움, 베 짜기, 굿판에 대한 묘사 등 가난한 이들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해 우리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풍습을 박물지처럼 보여주고 있다.

1999년 8월 국제신문 1억원 고료 장편 소설에 당선된 지은이는 이번에 출간된 1부에 이어 2~3부를 준비하고 있다. 값 각권 8천원.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불교문예 현대불교 문인협회

불교문예 2002년 봄호가 나왔다. 통권 19호인 이번 호에는 제7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발표와 당선소감, 제6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인 신경림 시인의 특집을 담고 있다. 신경림 시인에 대한 시인론은 동국대 장영우 교수가 썼다. 값 8천원.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그곳엔 부처도 갈 수없다 | 대 우 | 현암사 |
| 2 | 참선교육1 | 현 답 | 도서출판선 |
| 3 | 화 | 틱낫한 | 명진출판사 |
| 4 | 보왕삼매경론 | 김현준 | 효 림 |
| 5 | 회색고무신 | 윤청광 | 시공사 |
| 6 | 극락은 있다 | 관 정 | 붓다의마을 |
| 7 | 성철스님 시봉이야기1 | 원 택 | 김영사 |
| 8 | 근본불교 | 이중표 | 민족사 |
| 9 | 오계이야기 | 일 타 | 효 림 |
| 10 | 빠띠삼비다막가역주 | 임승택역주 | 가산문고 |

도서 안내: (02)737-0695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물리학 원리와 화엄경, 절장 禪語와 선문답을 아울러 깨닫지 못한 누구라도 결대 경지를 엿보게 하는 책.
大悲 지음 | 값 15,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 원동이

원성 스님 · 원동회 지음 / 원성 스님 그림



동자승 그림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원성 스님의 인터넷 홈페이지 '풍경(pungkyung.co.kr)'을 통해 공모한 창작시와 동화를 엮은 책 <원동이>(솔과 학)가 나왔다.

홈페이지 '풍경'의 회원들로 이루어진 '원동회'는 지난 1년동안 원동회 백일장, 동화제, 창작시 대회 등을 통해 공모한 작품을 '풍경'의 회지인 월간지 '원동이'에 소개해 왔다. <원동이>는 그동안 소개된 회원들의 글에 원성 스님의 그림을 함께 묶은 책이다. 책에 실린 글들은 주로 원성 스님의 동승 그림을 보고 떠올리게 되는 자연과 동심, 불심을 담은 것들이다.

1부 '그림움'편에는 동자승 그림에서 느끼는 애잔한 마음을 글로 표현한 '나는 늘 그립다', '날보고 형이래요' 등의 동화에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동승의 마음이 담겨 있다. 동자승의 일상을 담은 2부 '이야기'에는 '물고기', '꼬마바람 이야기' 등을, 3부 '길'에는 '동자승', '큰스님의 고무신' 등 동자승의 소박한 종교적 기원을 담은 동화를 실었다. 값 8천5백원.

### 인터넷 공모 창작시·동화 엮어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고운기 지음 / 양진 사진





◇장륙존상이 있는 경주 황룡사터.

## 후반부 2권 불교이야기 '가득'

'삼국유사'에 대한 연구서와 논문은 숱하게 나왔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고운기 지음, 양진 사진, 현암사)는 1991년부터 10여년간 삼국유사의 현장에서 건져올린 글과 사진을 현암사가 펴내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시리즈로 묶은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삼국유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야기의 앞뒤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본문의 한 구절씩을 짚어가며 그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권은 <삼국사기>의 기록과 비교했고 2권은 중국의 승전(僧傳)을 참고했다. 또한 삼국유사에 실린 140여 개의 이야기를 40개의 제목으로 분류해 실었다. 1권에는 '삼국유사'의 전반부 '기이편'을 중심으로, 2권은 후반부 '흥법편'을 중심으로 엮었다. 또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의 생애와 저술 의도를 책 곳곳에서 설명하고 본문에 없는 부분은 작가 나름대로 상상력을 가미하기도 했다. 이야기 중간마다 다른 책에 전하는 이야기와 연대표 등을 넣어 이해를 돕고 있다.

삼국유사의 후반부를 담은 2권에는 불교이야기가 가득하다. 경주 남산과 시내 곳곳에 펼쳐진 불교유적은 물론 원정사와 정암사 등 기이편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현장 사진을 담아 생동감을 더해준다. 값 각권 2만원.

### 관무량수경 이야기 법륜 스님 지음

## "이 세계가 정토" … 강의 내용 묶어



정토회 지도법사인 법륜 스님의 강의집 <관무량수경 이야기>(정토출판)가 나왔다. '아미타경', '무량수경'이 목송집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반해 이와 함께 정토삼부경을 이루고 있는 '관무량수경'은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관무량수경 이야기>는 고통 받는 한 여인의 기도에 부처님이 응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 정토 세계에 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관무량수경'을 법륜 스님이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법륜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정토임을 보여주고, 우리의 의지로 이 세계를 깨끗한 불국토로 만들 수 있음을 설파하고 있다. 값 9천원.

## 히말라야 시리즈 8권 계획

<히말라야의 순례자>와 <히말라야, 인도에 빠진 닥터> 등 그동안 히말라야와 인도를 여행하며 글을 써온 임현담 씨가 그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히말라야를 그린 '설련도장' 시리즈를 펴낸다. 이번에 나온 <히말라야 있거나 혹은 없거나>는 그 첫 번째 권으로, '히말라야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담은 것이다. 히말라야 하면 떠오르는 설봉뿐만 아니라 열대우림까지 함께 어울리는 공간인 히말라야를 보는 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책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글을 담은 것이라면 이번 책은 이제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히말라야를 찾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 주는 격이라 할 수 있다.



10여년 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떠난 임 씨는 갠지스 강가의 한 마을의 노인에게서 "히말라야에 가면 당신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 히말라야를 찾게 됐다고 한다.

그 후로 줄곧 히말라야는 임 씨에게 마음의 고향이었으며 의사라는 직업이 빚어내는 사회적 관계 혹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 같은 혈육적 얽힘에서 본래의 자신을 자각하게 해주는 '도량'이었다.

"히말라야는 열대우림부터 눈 쌓인 봉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산의 높이와 깊이, 넓이를 모두 갖춘 곳이다. 그 대자연에 사는 사람들은 소박하다. 자연이 인간에게 어떻게 하고 인간은 자연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나는 그곳으로 간다."

### 책과 삶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임 현 담**

여행경험 엮은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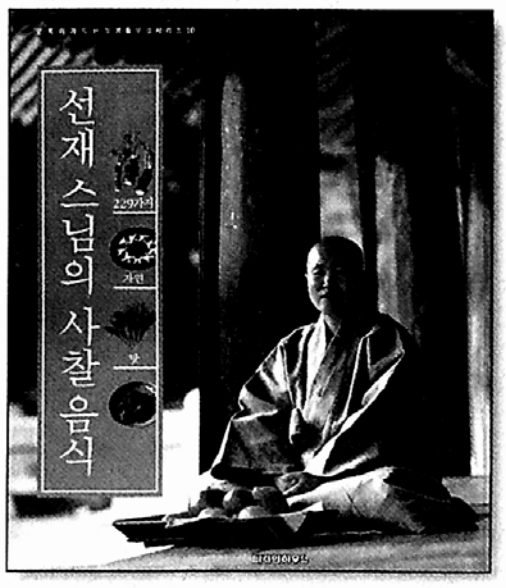
'수미산'으로 마지막 장식

그는 히말라야에 다니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오계를 지키게 됐다고 한다. 히말라야의 산과 바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를 대할 때면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무릎이 굽혀지고 그만큼 자신을 낮추게 된다. 이런 변화는 '의사라는 직업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환자를 볼 때 좀 더 지극하게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병뿐만 아니라 그 병에 걸리게 된 배경까지도 알고자 한다. 애정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게 된 것이다.

"현지인들은 히말라야를 어머니, 아버지처럼 자신을 키워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히말라야를 찾는 사람들이 높은 설봉만을 바라보며 '정복하듯이' 산을 오를 것이 아니라 산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임현담 씨. 앞으로 라마불교의 꽃을 피운 시킴 히말라야를 소개하는 2권과 힌두교도들의 성지인 가르왈 히말라야 등 히말라야의 곳곳을 살펴본 후 수미산이라 불리는 카일라스를 마지막으로 8권을 시리즈로 묶을 계획이다.

"직접 히말라야를 찾아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느끼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히말라야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맛 229가지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한국인의 건강식 사찰음식
"음식을 약으로 대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때에 맞는 음식을 먹어라. 제철의 음식을 먹어라. 골고루 섭생하라. 과식은 금하고 육식은 절제하라. 2천5백년 전 이미 최고의 영양사였던 부처님이 경전을 통해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사찰음식은 단순한 식도락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식, 자연식인 동시에 정신까지 맑게 해주는 선식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가득한집 가정생활문화지
design house INC.
www.design.co.kr • www.homeliving.co.kr
100-855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6-210 tel. 02-2275-6151 fax. 02-2275-7885
올컬러 양장본 | 240쪽 | 값 13,500원

눈물이 찔끔 가슴이 두근 010권
운주사의 하얀 도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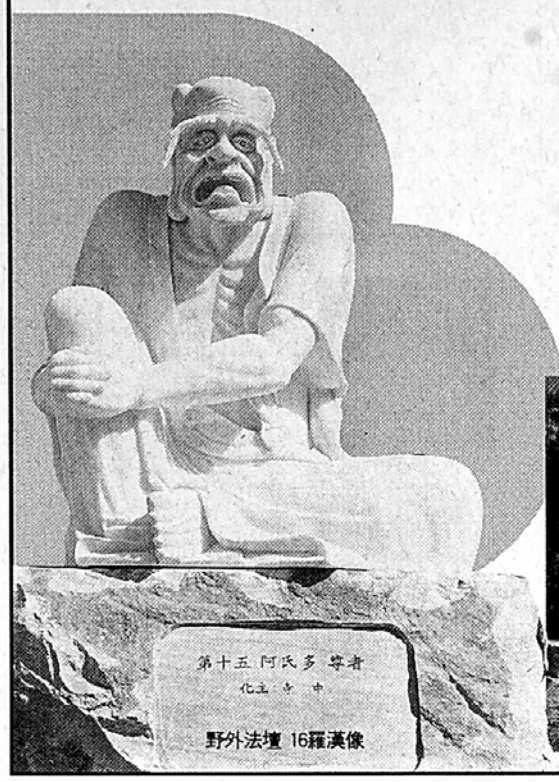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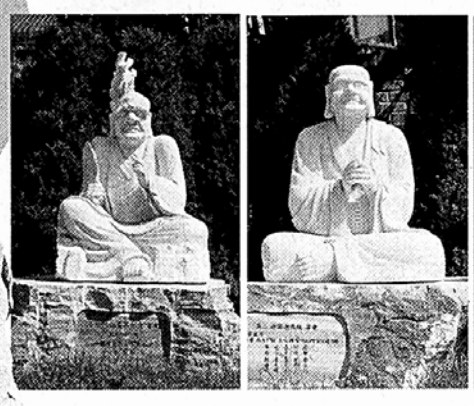
"부처님, 제발 못생긴 은희의 얼굴을 고쳐 주세요."
제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세상 사람들 때문에
꼼짝 않고 천년을 누워 계셨던 부처님이
어느 날 벌떡 일어난 사연, 궁금하지 않나요?
도깨비 마을에서 꽃겨난 구박덩어리 하얀도깨비가
참된 우정으로 부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에
이 책을 선물하세요.
디자인하우스 세상에 꼭 필요한 좋은 책을 만듭니다.
design house INC.
www.design.co.kr • www.dhbook.com
100-855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6-210 tel. 02-2275-6151 fax. 02-2275-7885
지은이 김자환 | 그린이 김태환 | 올 컬러 | 값 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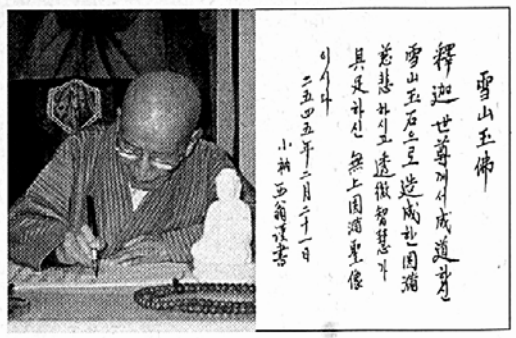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www.korea buddha 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서울(02) 864-6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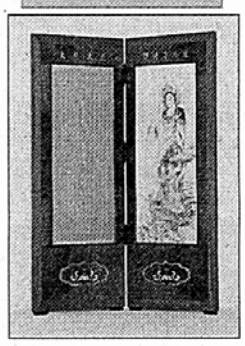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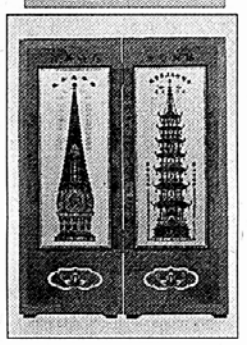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 음 병 풍



▣ 불탑다라니병풍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는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품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놔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신간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 생활 속의 금강경



지금 이 순간의 고난과 그릇된 마음을
항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공부를 잘 성취하고자 하십니까?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 큰스님께서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마음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시어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욕과 무 소유의 가르침을 오롯이 담아낸 핵심 경전, 금강경 !

《이 책의 특징》
· 한글 번역의 문체가 아름답습니다.
· 심오한 금강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 일상생활과 접목시켜 강설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능히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감동을 주는 일화들을 많이 삽입하여 재미를 더했습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하는가?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우룡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5,000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의 마지막 법문집. 불자의 근본 마음가짐에서부터 불교의 4대수행법인 참선·염불·간경·주력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5,000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의 대표법문집. 고된 삶 속에서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주옥 같은 법문으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천수경 천수신앙**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천수경에 대한 강설집. 경에 숨겨져 있는 참뜻, '천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준제진언, 여래 십대발원문까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어, 불자들을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혜국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 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 누구나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7,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다. 이 책을 읽다보면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자경문(自警文)》은 야운스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 가는 속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발현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것이다.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따끔한 말씀으로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비춰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에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에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향 예불문의 해설서.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제 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事物), 석등, 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번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육바라밀 수행법**



특별한 수행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의 성불을 보장하는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의 여섯 가지 바라밀에 대해 그 정신과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서술하였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책.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과 지장염불을 할 때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방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업장소멸 소원성취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 삼천대천세계 모든 진리가 불교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여러 대덕 스님네들도 같이 한자리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해 주셨다고 하지만 한 마디도 한 사이가 없다고 한 뜻은 어떠한 것인가? 삼천 년 전이나 삼천 년 후나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깊은 마음 속에 항상 살아 계십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더욱 뜻 깊은 그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 하리까. 부처님 봉축일은 찰나 찰나가 봉축일이며 오신 것이 없기에 가신 것도 없이 영원한 우리 마음 속에 깊이 계시어 무시무종(無始無終) 일승공법(一乘空法)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그 한마음으로써 일체 만물만생(一切萬物萬生) 어느 것 되지 않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가난한 자가 원할 때에는 한 찰나에 응신(應身)으로서 관세음이 돼 주시고, 또는 명이 짧다 하고 구원을 청할 때는 항상 칠성 부처가 돼 주시고, 또는 좋은 데로 못 간다 하고 소원을 하면 지장이 돼 주시고, 물에서는 용신이 돼 주시고, 길에서는 지신이 돼 주시고, 독성이 돼 주시고, 산신이 돼 주시고, 아프면 바로 약사가 돼 주시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어느 거 하나 아니 되시는 게 없고, 어느 거 하나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삼천 년 전의 부처님이 지금은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부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물도 생명이 있고 불도 생명이 있고 흙도 생명이 있고 바람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어느 자리마다 골골마다 부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 오신 날은 삼천 년 전이 바로 오늘이요, 삼천 년 후가 오늘이요, 오늘도 영원한 오늘이기에 어떤 것이 될 때에 내가 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 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여러분한테 '내 자생중생부터 제도를 해야 바로 내가 제도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자생중생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몸에는 모든 생명, 의식,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 아빠, 즉 말하자면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치고 자기 영혼과 더불어 업식이 그림자처럼 영혼에 딸려서 바로 종합이 돼서 이 세상에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입력된 것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독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또 그것을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역대 조사들도 그랬고 현재 스님네들도 그러시구요.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아라.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지 않는다면은 바깥으로 얽매이느니라. 길을 가다 엎어지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나야 일어나지지 허공을 허우적거린다면 일어나지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온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물질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을 해야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하는 까닭에 자동적으로 자기가 한 것만큼 즉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어떠한 말을 했든지, 어떠한 나쁜 일을 했든지 좋은 일을 했든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아는 것만큼 입력이 됐다가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가 꼭 먼 데만이 아니라 어저께도 과겁니다. 한 시간 전만 하더라도 과겁니다. 일초 전도 과겁니다. 과거의 입력이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을 되 거기다가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이 몰락 녹아지느니라, 없어지느니라. 그러니 본래 공(空)해서 붙어 있을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관습에 의해서 붙어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재 거르는 수행을 해야만 되겠기에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으라구요. 좋은 일, 착한 일, 또는 선행을 했을 때 안팎에서, 안에서 좋은 일 좋은 생각,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일 좋은 행동, 이렇게 했을 땐 감사하게 거기 놓고, 악한 마음이 생길 때는 '악한 마음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선한 마음을 나오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다가 되놓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모두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경계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타파 못한다면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고초가 많겠습니까.

##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항상 '내탓'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계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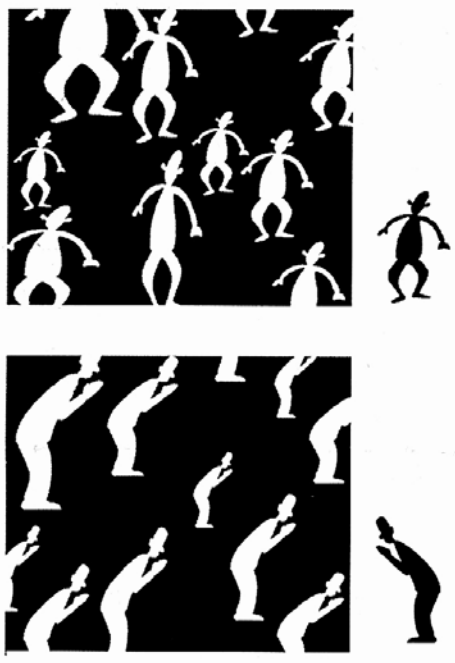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감사하는 마음이 깊은 내면세계 머물면 그 마음이 바로 정향

예를 들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프면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네 몸뚱이를 건강하게 끌고 다니면서 심부름 시킬 수 있어.' 하고 놔야 됩니다. 놓는데도 또 못 믿어서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면 안됩니다. 남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면 그대로 놔둬야 일이 되지 아, 서류를 맡겼다가 못 믿어서 도로 뺏었다가 도로 줬다가 도로 뺏었다 이런다면 무슨 일이 됩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이 바탕이 돼 있죠. 본래 집을 지으면 주춧돌을 세우고 기초를 튼튼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 자력 · 통신력이 충만히 우리에게 각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용도에 따라서, 마음을 발전 시킬려면 자꾸 거기다가 되놓으며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고, 이러는 이 자체가 참선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들끓는데 육체를 꿇어 앉혀놓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행선이나 와선이나 입선이나 좌선이나 모두가 참선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참선이니까 참선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말을 하자면 이 세상에 풀포기 하나도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구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인연 따라 봤으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했으면 행하게 되니까 모두가 스승 아닌 게 어디 하나나 있습니까?

우리 자체가 너무도 자기 자성(自性)을 무시하고 삽니다. 과거에 돌아가서 씨를 찾으려고 그런다면 어디 가서 찾습니까. 예전에는 화두(話頭)를 들어서 많이 깨우침이 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밝게 돌아가고 빨리 돌아가고, 너무 세상이 변천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화두를 붙잡고 '이거 뭣고?' 하기 이전에 바로 과거의 씨를 옵 봄에 심었더니 내가 새 싹이 됐구나. 그러니 그 싹 속에 열매도 있고, 바로 그 싹 속에 씨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 속에서 찾아야지, 내가 낳기 이전에서 찾는다면 찾을 수가 있는가? 하고 뛰어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라는 존재는 모두가 시자일 뿐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시자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구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구합니다. 마음을 구해야 부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역대 조사들의 마음도 알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의 마음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으로서의 나를 뛰어넘고 다스려라 하는 것은 이 몸뚱이 속에 수십억의 의식들이 있기 때문이며 그 의식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식들은 바로 중생이라고 이름합니다. "중생의 병이 나아야 내 병이 낫겠노라." 고 유마힐거사가 말했듯이, 부처님께서도 "네 자생중생을 먼저 제도해야 네가 해탈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자생중생을 제도하나? 이 자생중생들은 우리가 지금 지구에 매달려 살면서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이 몸뚱이 속에 중생들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좋고 나쁜 거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대로 강도질을 할려고 한다면은 강도질하는 대로 그냥 좋아주고, 착한 일을 할려고 하면 착한 일로 좋아줍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가는 데에 손이 쫓아다니듯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어찌 마음으로써 다스리란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 부처이자 법신이니깐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부처님의 법을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가르치는 스님네들한테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셋째는 자기에게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된단 얘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모든 게 자기 탓입니다.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생기는 것이 상대성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생겼습니까? 나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려야죠. 모든 거는 내 탓으로 돌린다.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깐 부딪힘도 있고 상대도 생겼고 세상도 벌어졌고 우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은 화목을 도모할 수도 있고, 의리와 도의를 절대로 허탈히 생각 안하게 됩니다. 저절로 말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써서 항상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이 이름해서 계향(戒香)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내면에 자기 자성신을 세우고, 즉 말하자면 선이 중심이 되고 찰나찰나 돌아가니까, 공해서 돌아가니까 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테 주인공(主人空)이라고, 각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의적으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러니 나쁘게 돌아가고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닥치고 이러는 것은 '나쁘게 나오는 것도 너니까 좋게 돌려서 나오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다가 놨을 때 좋게 돌려지죠. 또 안에서도 좋은 마음이 생기고 바깥에서도 좋은 행을 하고 이럴 땐 감사하게 놓죠. 그럴 때 그 깊은 내면세계를 떠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이름해서 정향(定香)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우리가 향을 피워놓고 초를 켜놓고 아무리 빌어봤던들 공덕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나를 이끌어가고 진짜로 나를 이익되게 하는, 그리고 업보를 타파하고 과거의 모든 번뇌망상 생사윤회를 타파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일체제불과 일체중생은 둘이 아니어서 모두가 마음으로 전달하고 통신으로 전달하고 말로 전달하고, 이게 교(敎)입니다. 풀 한 포기도 바로 생명이 있고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불(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가 돌아가는 그 진리를 불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불교도 문수!' 하고 주걱으로 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뚱이가 팥죽 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팥죽 솥에서 팥죽 방울이 나오는 거지, 딴 데서 오고 뺏어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망상도 또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거기에 속지 말라 이런 겁니다. 속지 말고 그냥 놔라. 미리' 이것도 팥죽 솥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너로구나!' 하고 탁 놓아 놓고 그러라구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몸뚱이 속에 의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그 업식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대로 거기다 되놓는다면 그게 마음으로 다스리는 마음이요, 바로 번뇌와 망상, 생사 윤회 모든 거를 타파하는 겁니다. 녹이는 겁니다. 용광로에다가 헌 쇠든지 새 쇠든지 다 넣으면은 녹아져요. 되놓는 그 작업만 한다면 녹아서 저절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말까 이런 거추장한

> "지혜로운 마음으로 내면 · 물질세계 관하고 체험하며 돌아가는 게 혜향"

생각을 마시고 진실히 믿고, 용광로에 쇠를 넣듯이 구정물이 나올 땐 맑은 물로 바꿔 써라 이런 겁니다.

모두 이런 것을 놓아 가면서 체험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혜향(慧香)입니다. 이름해서 혜향이지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하셔야 목적을 달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내면세계와 물질세계 양면을 따로 보지 말고 같이 관찰하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름해서 혜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도 그 자리에다 놓고, 두 번도 그 자리에다 놓고 보임을 해야 하는 도리죠. 세 번도 그 자리에다 놓고 보임을 해야 되겠죠? 그건 왜냐? 나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본래 없다면 찾는 것이지만 본래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부(父)와 자(子)가 상봉하게 되면 , 하는 소립니다.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데, 견성했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내가 견성을 했지.' 한다면 다시 미해져서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두 번 째는 둘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혜향' 했듯이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양면을 둘로 보지 않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혜향입니다.

계향 · 정향 · 혜향을 올바르게 한다면 해탈향(解脫香)도 바로 행하게 되죠. 이것도 이름해서 여러 부처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만물만생이 무명에 묶인 것을 푸는 것이며 또는 여여하게 다스리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해탈향입니다. 그 이름을 쑥 빼놓고 진실로써 그대로 작업하신다면 바로 해탈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탈향을 그렇게 했으면, 이게 마음의 향이지 물질적인 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도 이름입니다. 삼라만상 만물만생을 느끼고 보살핌이 항상 밝아서 말입니다, 걸림없이 구족한 것이 바로 해탈지견향이라고 이름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발 떼어놓을 때에 한 발을 지고 가십니까?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금을 쥐었다면 금을 좋은 데다가 깊숙하게 감춰 놓지만 걸레를 짰다면 걸레를 어떻게 놓으십니까? 빨아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밀어 놓죠? 그렇게 걸레 짜서 밀어 놓듯 하시면 좀 어떻습니까?

가고 오는 것도, 보고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다 고정된 게 없어서 우리가 걸어서 여기 올 때도 짊어지고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관습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쓰게끔 자유스럽게 줬습니다. 그랬는데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줄을 몰라요. 얽매여서 말입니다. 이사가도 이거는 날짜를 봐야 하고, 삼재가 들어서 뭐가 어떠니, 구랑신이 들어서 집을 못 짓느니 또는 혼인을 해도 날짜를 봐야 하느니, 이것도 관습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이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거니와 문을 찾아서 다니는 마음이 아닙니다. 문도 벽도 은산철벽도 지구도, 다 문이 없는 겁니다. 땅 속도 물 속도 어디든지 말입니다. 그건 통과입니다. 그냥, 그냥, 그냥 통과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을 가졌는데 마음대로 못하고 왜 얽매입니까? 왜 자기의 노예가 됩니까? 왜 항상 노예로서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 살기도 복잡하고 죽겠는데 종교마저도 얽매어서는 안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나는 그전에 그랬죠. "구랑신이 들어서 거기다 집을 지으면 당신 죽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허! 아니 언젠가는 이 몸뚱이를 다 버리는데, 쓰다듬고 만지고 그러던 것도 다들 버리는데, 누구는 안 버리나? 그런 놈의 거, 무엇이 그렇게 애틋해서, 죽을까봐 겁나서 집을 못 지어?" 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 일 없어요, 여지껏. 하하하.

여러분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귀신을 만들어 놓고 귀신한테 말려서 항상 얽매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옛날에도 어느 분이 묻습디다. "귀신이 정말 있는 겁니까? 어디 가서 보니까 물귀신이 꼭 자기를 해친다고 해서 물에 나가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대 물에는 가지 않는대요. 그러면서 그 물귀신이 정말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 물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당신의 마음이 물귀신이요." 그랬어요. "당신의 마음이 물귀신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뚱이가 물귀신한테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조심하시오." 그랬어요.

아니나 달라. 어디에 초청을 받았는데 손님들이 오신다고 계단을 그냥 물로 닦아서 청소를 잘 해 놨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냥 미끄러져서 곤두박질 쳤단 말입니다. 그래 허리를 다쳐서 그 해 일년을 일어서질 못했다는군요. 그러더니 그 후에 또 와서 정말 물귀신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하하.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 마음이 물귀신이 됐기 때문에 물귀신한테 당신 몸이 그렇게 된 거지, 당신 마음이 물귀신이 아니었더라면 그 몸뚱이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이 마음에 따라서 물귀신이 되느냐, 물귀신이 아니 되느냐. 일체 천차만별에 대한 것을 이 마음 하나로 다 타파할 수 있는 도리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를 깨닫고 너를 만날 수 있다면, 너를 볼 수 있다면 바로 나도 볼 수 있느니라. 너를 볼 수 있다면 자생중생이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으로서 화(化)하게 다스릴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깐 내 마음이 그래야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다 자기가 마음쓰는 대로 알아 들어서 행하죠. 작용을 해주고 행하고, 털구녘을 통해서 들고나면서 다 작용을 하죠. 그렇게 돼야 맨 나중에 자기가 견성을 하는 것이 그게 아주 첩단입니다. 말로만 들어서 견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천차만별의 병풍 둘러치듯

☞ 18면으로 계속

# 자생중생 제도해야 해탈할 수 있어

☞ 17면에서 계속

# 부정부패 중생들의 지나친 욕심 때문

한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진리가 어떻게 책으로 다 엮어지겠습니까. 하나하나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떻게 다 그것이 경전에 실어집니까, 그게. 이 마음, 마음법이라는 게 그래서 전자에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길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서도 댁의 집에 뭐가 놓이고 뭐가 놓인 거 다 가보시고, 지금 찰나에 가보시고 오실 수 있겠죠? 그런 거와 같이 지구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고 어느 혹성도 한찰나에 빛보다 더 빨리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안 믿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모두 때에 따라선 정신계의 50%를 모르시기 때문에 물질계의 50%만 가지고 살아 나가실려니까 힘들고 얽매이고 또는 애고나 업보나, 유전성 세균성 영계성까지도 타파를 못하면서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세계의 50%를 우리가 밝게 알아야 물질세계 50%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맥 동맥이 같이 돌아가듯 말입니다. 사람이 반이 죽으면 반이 생하고, 반이 생하면 반이 죽고 이게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 하나 , 우리가 땅속에 있는 금을 처음에 캐서는 금도 아닙니다. 그거를 다 깨뜨려서 물에 다 걸러서 추려서 금 뭉치로 만들어 놔야 비로소 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해서 다 금이 아닙니다. 빛을 낼려면 그거를 다 광을 내서 그만큼 인연에 따라서 손이 가서 광이 나야 그게 금으로써 떼어서 귀걸이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전부 그렇게 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열매 열리는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몸뚱이가 싹이라면 그 싹은 자라서 열매가 열리기 이전에 꽃부터 피어야 되겠죠? 꽃이 피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냥 꽃 향이 아닙니다. 마음의 꽃! 마음의 꽃이 피어야 바로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어야 씨도 생기고, 무르익게 되고, 그 무르익는 과정이 바로 수행의 과정이요, 무르익어야 제 나무에서 익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르익어서 완전히 익어야 모든 사람들이 맛있다고 모두 갖다가 먹게끔 돼 있죠. 제 나무에서 익지도 않은 거를 그냥 따다가 아무리 먹이려고 앨 써도 그거는 먹지 않습니다. 그것과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의 그 감사함을 어찌 다 말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감사 뿐만 아닙니다. 하다못해 돌뿌리 하나라도, 돌장승 하나라도, 풀뿌리 하나라도, 무정물이니, 식물이니, 동물이니, 곤충이니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우리의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두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느끼고 배웠겠습니까?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지든 거지가 아니든, 부자든 가난하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또는 곤충이든 풀포기든, 어느 거 하나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자체가 전부 스승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묘한 거 한 가지는 곤충이나 짐승들은 들이고 낼 줄을 몰라요, 사람처럼.

> 어리석은 사람은
> 부처를 구하지만
> 지혜로운 사람은
> 마음을 구하지요

사람은 들이고 낼 줄을 알아 지혜가 있는데, 짐승들은 지혜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냥 들이고 낼 줄 몰라서 자식을 낳아 놓으면 그냥 자기 몸뚱일 자식한테다 다 바치고 말입니다. 그 모습으로 나왔으니까 그 모습 행동을 해야만 되겠죠.

엊그저께도 그 말을 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험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개 무명을 쓰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사람의 의식이, 혹간에 사람의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짖어도 개 대접만 해주지 사람 대접은 안 해주거든요. 개 모습이니깐 개 대접을 해주지 무슨 다른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아무리 소리를 쳐도 "난 아무개" 라고 아무리 악을 쓰고 짖어도 그건 "이놈의 개, 왜 짖어." 하고서 개 대접을 해주지 사람 대접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한 번 쓰고 보면 그 습에 얽혀서 사람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사람되기가 어렵죠, 그 습에 얽혀서.

그러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신통(五神通) 통 속을 벗어나서 통을 굴려야만 하겠기에 우린 이 통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소립니다. 그래서 그 많은 깨우친 부처님들께서는 다 말씀하시기를 봤어도 봤다고 하지 말고, 또는 알아도 안다고 하지 말고, 타심통(他心通)이니 천안통(天眼通)이니, 숙명통(宿命通)이니 천이통(天耳通)이니 신족통(神足通)이니 하는 것을 다 했다고 하지 마라. 그 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바로 사대에 모두 통신을 못하고 마음의 전달을 못하고 행을 못하느니라. 그것을 이름해서 누진(漏盡)이라고 했지만 그 모두가 이 마음으로써 마음이 벗어나야 이 모두를 타파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창조력이 생기고,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처라고 하지만, 깨달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모르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는 바로 목석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발전이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니라. 어느 거 하나 참선 아닌 게 없고, 어느 거 하나 공안(公案) 아닌 게 없고, 어느 자리 하나 도량 아닌 게 없고, 어느 거 하나 중생이다 부처다 따로 볼 게 없고,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죠.

공과 색이 어떠한 것인가? '꽃이 필 때는 색이요, 꽃이 질 때는 공이다.'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의 정신계를 공이라고 한다면 물질계를 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색과 공이, 즉 몸과 정신이 둘입니까, 어디? 정맥과 동맥이 돌아가듯 어떤 거 하나 떼버릴 수 없는, 그저 둘 아니게 돌아가는 작용일 뿐이죠.

▲질문1: 자비로우신 스님, 먼길 광주까지 오셔서 불자들을 위해서 큰 법문 받들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불자입니다. 그동안 한마음 공부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 평안함을 체득하였습니다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공부 재료로 삼으시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믿고 생활해 왔습니다. 오늘은 공부 과정 중에서 몇 가지 의정(疑情)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민들의 지지 속에 문민정부의 부정부패의 척결은 정신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놀라운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통 세상을 들끓게 하는 부정부패의 근본 원인은 중생들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한마음 공부를 했더라면 그렇게 타락해서 인생을 망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님의 가르침이 새삼스럽게 더욱 고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해하자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 이거니와 기업이나 국가나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가에서 얘기하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참된 욕망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특히나 윤리와 도덕이 타락한 혼탁한 사회 속에서 진정한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욕망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스님의 높으신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스님: 진정한 욕망이라는 것은 이것이 더함도 덜함도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신계와 물질계를 둘로 보지 않는다면 둘 아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건 중용으로서 행을 하지, 그냥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팎을 다 겸해서 전자와 전자가 양면에 있다면 한데 이것을 갖다가 붙이면 불만 들어올 뿐이죠.

> 마음을 구해야
> 부처님 마음 알고
> 일체중생 마음도
> 알 수 있는 것

그와 같이 바로 우리가 저절로, 아까 얘기했듯이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만 특별히 마음의 향으로 지킬 수만 있다면 그대로 자동적으로 그게 지켜지면서 모든 공덕이 자기한테 스스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수없이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질문2: 과학 문명은 50% 뿐이 안되는데 전체를 채우려면 정신, 마음법, 심성과학을 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계합되지 않고는 완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무엇이며,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계합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나기 이전, 자기의 영혼의 근본 그것을 잠재의식이라고 일컬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즉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없듯이 씨가 없다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색과 공을 말했듯이, 그 잠재의식이란 바로 자기의 공(空)을 말하는 거죠. 주인공! 주인공이 바로 잠재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조그마한 불 바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로 보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계향, 정향 얘기를 했죠? 그대로 내 탓으로 생각한다면 가정에서도 어떠한 불편이 생긴다 하더라도 화목을 도모할 수 있고, 부드러운 말이 나갈 수 있고, 부드러운 행동이 나갈 수 있다. 그럼으로써 나는 나대로 지름길을 택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했으면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에너지를 배출할 수가 있다. 어떠한 용도든지 전력을 끌어쓰듯이 말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끌어쓰고 크면 큰 대로 끌어쓰듯이 각자가 다 끌어쓸 수 있는 그런 힘을 모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위 법문은 1993년 4월 24일 광주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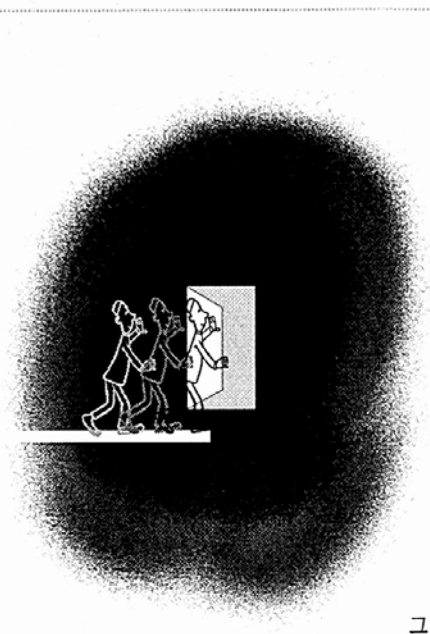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쿤달리니, 미간과 백회 차크라개발, 에너자이저,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 본체, 녹색광안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펌사)

* 오라진동무선 (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 광안경(블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펌사)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펌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선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론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화주시면 자세한 카다로그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3일 안에 깨닫는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의 수행에도 얻기 힘든 깨침을 3일 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백림사 (이북성 조인) 와 보봉사 (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칠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관념과 이상과 꿈이 아닌 구체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체계적인 수련방법입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할 때
● 일상 찌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번민, 갈등, 괴로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룰 수 있는 능력
● 자기 조상과 타인의 조상을 천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체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

수련내용
本性, 無分別智, 眞空妙有, 寂照現前, 無分別後得智
업장소멸, 조상천도, 원하는 대로 이루는 법칙

영혼의 안식처 :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참마음수련 心田 대광사

연등부처님의 미륵진경

이진경의 출처는, 현재 중국 산서평양부 악양현 왕가장촌으서, 어느 날 홀연히 한 우뢰소리가 나고 벽력이 내려치더니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한권의 미륵존경이 나와 천하 백성에게 전하여지게 되었다.

이경을 널리 세상에 알려 공양한다면, 크게 길하고 크게 이로울것이며 일신의 재앙을 모면하게 될것이다.



※ 일반서점. 불교서점 또는 직접 구입도 가능합니다

TEL 053)781-0102

히말라야의 성자
산트 타카르 싱 내한 강연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영혼(진아)임을 깨닫고 신을 찾는데 있습니다.
내면의 빛과 소리는 신의 현현체입니다.
신은 생명과 빛과 권능의 대양이며 당신은 그 안의 물 한방울 입니다.

Sant Mat -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

▶ 일 시 : 2002. 5.11 (토) 오후 4시
▶ 장 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
▶ 문 의 : 02-927-7054 / 016-9270-7054

강연 후 빛과소리의 명상법 무료 전수

주최 : 한국KTS명상회

(Know Thyself as Soul : 그대 자신이 영혼임을 깨달으라)
Homepage : http://www.santmat.or.kr

# "봄나들이 · 어린이축제를 함께…"

## 죽산축제 체험극 '흙놀이' 풍물놀이 · 거리마임

## 함평선 나비생태 · 북한나비특별전 · 나비날리기



◇함평 나비축제를 찾은 가족들이 나비의 한살이를 보여주는 '나비 생태관'을 둘러보고 있다.

바쁜 일상에 파묻혀 지내느라 미처 봄나들이를 못 했다면 전국에서 벌어지는 이색 테마 축제에 눈을 돌려보자.

자연과 함께 즐기기를 원한다면 11일과 12일에 열리는 '죽산 어린이 축제'를 권한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무천캠프 야외극장에서 열리는 제1회 죽산 어린이 축제는 복합장르 음악극 '봄날의 꿈', 체험극 '어린이를 위한 다섯 가지 흙놀이', 마당극 '백두거인' 등의 공연과 거리마임제, 풍물놀이체험, 거리 장승전 등을 준비한다.

죽산 어린이 축제의 특징은 어린이들이 참여해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체험극 '…흙놀이'는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흙을 보고 만지고 느껴가며 하나의 극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또 짚으로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짚풀 생활사 박물관 짚풀공예', '풍물놀이 체험', '거리 마임' 등도 준비돼 있다. (02)2248-2256

전남 함평에서는 '제4회 함평나비대축제'가 12일까지 열린다. '나비와 꽃, 천연 염색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알에서 애벌레로, 다시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자라는 나비의 한살이를 보여주는 나비 생태관과 북한나비 특별전, 멸종 위기 보호 동식물 특별전 등이 마련된다. 또 나비 날리기, 나비사육 및 채집 요령 배우기, 나비표본 만들기 등 참여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화훼전시회, 천염염색체험, 양서 학습장 등의 체험코너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축제기간 동안 나비 어린이한마당 잔치, 나비 연날리기 대회, 외국 민속공연 등 이벤트 행사도 열린다. (061)320-3223

11일과 12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언저리에서 펼쳐질 '남산 봄나들이'는 봄을 주제로 한 공연, 전시, 놀이를 한데 묶은 봄 잔치다. 국립극장과 서울 중구청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말 그대로 남산을 배경 삼아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문화광장무대에서는 오후 1시부터 무료로 남긍호 마임컴퍼니의 거리 무언극 '결혼식',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창극단의 '봄이 오는 소리'가 열리고 놀이마당에서는 오후 3시부터 남사당의 '봄바람',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의 널뛰기 묘기 '날아라 새들아'가 벌어진다. 또 남산 우리꽃 전시, 닥종이 인형전, 식물표본전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1천원~5천원 정도만 내면 열기구타기, 봉산탈만들기, 어린이 소방체험 등 체험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02)2274-3507

여성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여성 단신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무료 한방치료

여성부는 대한여한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무료 한방 및 치과 진료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이번 무료치료사업에서는 한약 제공, 물리치료, 침 등의 한방처료와 보첨, 틀니 등 치과 관련 치료가 제공된다.

한편 여성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구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전주 기독살림여성회, 나눔의 집은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서적 안정과 치매 예방을 위해 상담, 한지공예, 한글수업 등을 월 2회 진행할 계획이다.

### 여성 발명아이디어 현상 공모

한국여성발명협회는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제3회 여성 발명아이디어 현상공모대회'와 '제7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 참가신청을 받는다.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최고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참가 희망자는 11일까지 발명 및 창작아이디어, 발명 사례 등을 A4용지 5매 내외로 제출하면 된다.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는 17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참가 자격은 발명을 통해 기업을 성공시킨 여성, 여성발명 생활화 풍토 조성에 이바지한 여성 등이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 발표내용 요약본,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체) 각 1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02)2203-946

# "천연염색 옷 몸에도 좋아요"

## 눈 부담없고 환경오염 없어

## 전자파·악취제거 ·혈행 촉진



◇황토와 쑥, 도토리, 오배자 등 천연 한방재료를 이용한 속옷은 민감한 피부나 아토피성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좋다.

합성염료는 염색하기가 쉽고 염색물이 쉽게 변하거나 퇴색하지 않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합성염료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천연염료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천연염료로 염색한 옷은 눈에 부담이 덜하고 인체에 무해하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천연염료의 재료로는 황토, 맥반석, 쑥, 숯, 치자 등을 들 수 있다. 각 재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숯으로 염색한 옷은 전자파를 막아주며 악취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다. 노란물을 들이는데 쓰이는 치자열매는 소염이나 황달, 각혈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황토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적외선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천연염색을 이용한 제품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마하몰(www.mahamall.co.kr)의 한방팬티와 티셔츠의 경우 숯과 황토, 쑥, 도토리, 오배자 등 100% 천연 한방약재로 염색 처리한 것으로 피부를 자극하지 않아 민감한 피부나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진 사람에게 좋다. 살균작용이 뛰어난 참숯과 메밀을 이용해 만든 참숯베개는 코골이가 심하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천연염색제품의 가격은 1만5천원에서 3만원 선이다. (02)732-1520

# 신행담

제7회 신행수기 당선작

종단협의회장상

## 포교사로서 가야할 나의 길 ㊦



그림 · 이준석

## 97년에 포교사 자격, 중고생 지도

## 더욱 정진… 포교원 독자 운영 서원

96년 8월 영남불교대학에 입학했다. 97년에는 포교사고시에 합격하고, 98년 2월 동화사에서 1박 2일 연수를 마치고 품수를 받았다. 포교사가 되고부터는 신심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가 느끼는 이행 · 불행도 결국 나의 업연에 따라 순간순간 마음에 이는 장난임을 알게 되었다. 또 더욱 열심히 공부하면서 포교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우게 되었다. 그해 3월 신입생 저녁반중 한관음회의 지도교사직에 자원하여 4~5개월을 지도하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순수한 학생들에게 보다 올바른 삶, 양심을 지키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예의범절을 아는 청소년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런 나의 보수적인 생각이 전자시대와 각종 문명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세대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리위주로 강의를 하다보니 학생들이 지루해하고 재미없어 해 그 다음부터는 퀴즈를 내고 명시를 낭독하고 수시로 질문하는 등 나름대로 재미있게 진행하려고 변화를 시도해보았다. 그래도 법문시간에 잡담과 산만함이 없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 중 단 한명이라도 불교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일념으로 임했다.

2001년 새해가 되면서 나는 이제 청년단체 포교를 부처님께 서원 올리고 약 1개월 뒤 그 기회가 주어졌다. 용연사의 청년회원들의 신도교육을 맡게 된 것이다. 나는 한달에 최소 두 번은 일요법회를 열고 초하루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만 스스로 나오도록 했으며 스님께서 법문에 빠지시는 날에는 내가 대신하기도 했다. 기복적인 신앙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절에서도 체계적인 신도교육을 기초교리부터 사찰에서 철저히 지도하고, 가정수행과 연결 될 수 있는 가정법회를 지도해 주고 스님이 나서서 사회봉사활동도 하는 적극적인 포교만이 불교의 현대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부처님의 소명을 받아 일생을 바쳐 포교사로 살고 싶은 소망이 뜨겁게 용솟음치고 있었다. 이 마음을 담은 장문의 편지와 소개서를 우학 스님께 보냈다. 이후 찾아가서 상담을 드렸더니 우선 중고등학생회의 지도법사로 수련을 쌓으라고 하셔서 매주 일요일 중고등학생회의 법회를 맡아 지도하게 되었다. 99년 1월부터 후임포교사에게 맡길 때까지 약 20개월을 중고등학생회를 지도하면서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4월부터 관음사에서는 포교사 시험 대비반을 모집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불교교리에 대한 강좌를 개설했다.

과연 내가 일반신도들을 대상으로 교리법문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청년 지도법사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스스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할 것을 다짐해본다. 또 때가 되어 성숙되면 나도 포교원을 열어 독자적인 포교원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다. 이 서원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임을 믿기에 그날이 올 때까지 부단히 정진하고 공부할 것이다. (끝)

장만수(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권行"

권行 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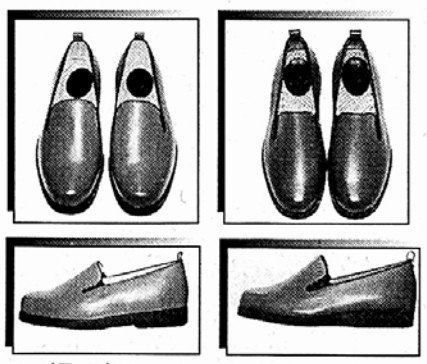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 코르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기존신발 모래사장 건강콜크 신발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권行 만행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 · 정맥 · 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위 10㎝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건강신발 권行의 특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권行대표 박동진 합장

"스님들께서 육임을 하면 역술이 아닌 법력이 되고 맙니다. 육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출간 ▶

- 바인더 차트식으로 되어 있어 하루치씩 꺼내 보게 되어 있습니다. -

음양오행을 몰라도, 역술공부가 부족해도, 이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좌정용과 휴대용」 만 있으면 그 고민은 이제부터 해결 됩니다.

■ 육임은 시간으로 보는 고등역술로서,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사람
의 비밀한 속사정을 먼저 말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는 비서(秘書)입니다.

■ 출생 년월일시를 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찾아 온 그 날 그 시간
전화 온 그 날 그 시간
가서 만난 그 날 그 시간
만 보면 이미 그 해당 시간 칸칸 마다에 상대방의 비밀한 속사정들이 다 적혀 있는 기서(寄書)인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러명이 오거나 전화하거나 가서 만나더라도 각기 다르게 말해 줄 수 있게끔 쓰여 있어서 편리하고 신통합니다.

■ 또, 어디를 출타할때도 방문 앞에 오늘, 내일, 10일후, 한달후, 1년후 어느날 어느시간에 온 방문자이든 아래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써 놓고 외출할 수 있으며, 미리 써 놓은 그것들이 신통하게 맞으므로 내가 자리에 있을때나 외출 할때나 나의 법력과 도력이 크게 과시 되는 것입니다.

■ 이름테면
-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했는지
- 어떤 특별한 속사정을 이미 겪고 있는지, 아니면 장차 겪게 될 것인지
- 묻고자 하는일이 어떤것이든 그 목적사가 될 것인지, 안될것인지, 된다면 묻는 그 목적사가 어느절, 또는 어느 일에 가서 성사 될것인지
- 본인이 저지른 일인지,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
- 상대방의 천성이 선한지, 악한지
-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사람인지
- 하고자 하는 일의 시작과 중간과 결과가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 그 귀신을 어떻게 제압시킬 수 있는 것인지
- 지금 누구의 산소에서 방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탈을 해소 시킬 것인지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상이 흉한지, 길한지
- 이사를 어느 방위로 몇일날 해야만 재운이 될 것인지
- 부적, 굿, 천도, 고사등 수법을 행할때 효과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그렇다면 언제 해야만 좋을 것인지
- 어는 방위에서 사는 남녀 누구가 묻는 목적을 방해 하고 있는지
- 부부간 누가 밀통을 하고 있는지, 한 남자에 두 여자 관계인지, 두 남자에 한 여자 관계인지, 남자가 적극적인지, 여자가 오히려 적극적인지
- 병(病)이 나을지 안 나을지, 낫는다면 언제까지 낫게 될 것인지
- 집(土地)이 팔릴지 안팔릴지, 팔린다면 언제 팔리게 될지
- 임신한 아이가 여아인지, 남아인지

■ 이처럼 핵심사항들에 대해 들어서자 마자, 전화 받자 마자, 가서 만나자 마자 즉시 말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당장 기선이 제압당해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게 되고 맙니다.

■ 이 외에도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 승진, 구재, 구직, 시험, 혼사, 임신, 가정, 이사, 소송, 질병, 매매, 도난, 가출, 대인, 방문, 채용, 투자, 승부, 가격, 경작, 묘지, 기후** 사항 등을 밝혀 놓았습니다. 육임은 참으로 신통하여 역술인이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워낙 난해하여 포기하고 마는데, 이처럼 쉽게 차트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활인전문** 천역자 분들에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993-8680 부산지사 : 051-851-2349
▷ 본 사 : 02-996-3335 당일배달 : 정현철

▷ 입금구좌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 책 값 : 좌정용 1,300,000원 휴대용 1,500,000원 증보판 350,000원
매월별 12권 분권(부록, 비디오 포함) 각종 카드로 장기분할 구입이 가능합니다.

■ 육임강의안내 : 육임기초 · 기본에서부터 육임제비법활용단계까지 3개월 12강으로 완성합니다. 수강료는 1백 5십만원이며, 현재 제 1기 30명, 제 6강까지 진행되어 있고, 제 2기는 6월 7일부터 30명 제한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셔야만 순서에 드십니다.

■ 육임 통신 강의안내 : 지방에 계시거나 참석시간에 애로가 있는 분들께서는 비디오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80만원이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의 강의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3일이내 도착됩니다.

● 참고 하실 것은 사주명리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을 공부한 육임가의 판단능력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문을 아는데는 태를, 지리를 아는데는 기문, 인사를 아는데는 육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사주나 일반명리는 묻는 것에 즉답할 수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육임은 묻는 것을 시간만보아 딱딱 부러 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보다 당장의 문제를 물어 옵니다. 여기에 육임의 진가가 있는 것입니다.

#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02)848-5702
011)9962-1643

## 법당 및 공양주 보살 운전기사 관리보살 모십니다
031)533-4405

## 공양주 구함
· 사찰 : 대한불교조계종 대전사
· 위치 : 경북 청송 국립공원 주왕산 127
054)873-2908
011)306-0963
018)204-6922

##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곳은 연락바랍니다
051) 462-7374
018) 523-7374

## 배우자 구함
현재 포교원을 운영중인 포교원장으로 있으며 평생을 불심으로 함께 할 38~45세 사이의 진실한 여성분 원함
011)9893-3421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1)631-4196

## ◇ 판매합니다 ◇
-염 주-
직거래를 통하여 각종 염주를 저렴하게 공급해드리겠습니다
011)610-4879
061)337-4879
061)337-6340

##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 "부처님 인연에 오직 정성을 다합니다"
스님을 위한 승복과 신도님이 입으실 법복, 오로지 정성을 다해 짓습니다.

### 아 라 냐
승복 맞춤 판매전문
- 가사, 장삼, 두루막, 누비, 모시, 삼베, 승복, 신도복, 몽배, 티셔츠, 남방, 방석 등
부산시 서면 지하철역 부전지하상가 F6호 051)818-8063

##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P : 011)255-3286

## 기도스님과 행자님 모십니다
▷ 대구 근교 있는 공기맑고 숲이있는 정법도량입니다.
011)9317-9181

## 포교당 같이 운영 하실 분 구 함
▷ 위치 : 서울
019)9108-0909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60세 관음사
02)359-7317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세이상 노보살님 원합니다 (정릉)
02)917-3363

## 녹 차 판 매
※ 지리산 화개 야생수제차
※ 사찰 보시 가격 공급

## 차만들기 교실
■ 차만들기 실습 견학
■ 차를 만들어 갈 수 있음
Tel : 055)883-9321
영목다전(지리산 하동 쌍계사 근처)

##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 행자(예비스님)모집 - 조계종
● 행자전문도량 - 행자원 (시내 또는 산중)있음
● 앨리트 스님양성 목표 (40세 이하,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 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납골당
● 최신의 시설로 영구보존
● 설, 추석 재사천도 및 기일 축원 해 드림

▸ 문 의
대구 053)474-8228
www.TVbuddha.co.kr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60세
02)2234-3310
관 음 사

## 맑은 영혼 깨끗한 마음 반야 다원과 함께 하실 분을 구합니다.
▷ 40세 이만의 용모단정하신 분 다도에 관심이 많으신 분
061)783-0096
지리산 화엄사 반야다원

## 49재 천도재 시다림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무보시 상주한 사찰을 찾습니다)
사주 명리학도 연구합니다
053)751-1176
016)857-4500

##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 연꽃
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 독거꼽추인분들께
부전 비구니 스님과 신심이 있는 꼽추인 보살님을 모십니다. 신체상 변화를 보신 후 부탑, 불사사 등에 동참하실 분 모십니다
043)423-182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달성
· 법 당 : 10평
· 요 사 : 20평
· 부 지 : 78평
· 가 액 : 8천

· 위치 : 충주
· 법 당 : 15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700평
· 가 액 : 1억 9천

· 위치 : 경기 오산
· 법 당 : 30평
· 요 사 : 60평
· 부 지 : 330평
· 가 액 : 4억

※ 전국사찰, 포교당대량보유, 양도,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 ◇ 붓다쇼핑닷컴 ◇
인터넷 불교용품 전문쇼핑몰
마하(大) 만다라 액자 및 족자
유명작가 진품 달마도쇼핑몰
금강경백자등 도예 광고방송
불교음반 불교예술 불교정보
홈페이지 제작, 관리 및 홍보
http://www.buddhaShopping.com
http://www.buddha.ne.kr
연락처 0505)882-3456
붓 다 넷 코 리 아

## 불상 탱화 모실 분
불상삼존불 2,5자
후불탱화, 신중탱화
한국 제일의 탱화불모였던 혜각스님에게 전수받은 탱화전문 작가작품
작품성 뛰어남. 영가제공
051)637-2271

##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877-7514

## 공양주 또는 기도보살님 구함
▷ 스님 1분 학생1명있고 산속 조용한 암자입니다
061)835-5179

## 탈 종 공 고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신길 5동 421번지 17호
● 사찰명 : 보인사
● 법명 : 보인보우(송만석)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 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함
2002년 5월 8일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법하

## 사찰 안내
● 위치 : 봉화 춘양
● 면적 : 1400평
● 법당 22평
요사 30평
(태백산 부근 암자)
● 양도가 : 3억 7천

## 사찰 안내
● 위치 : 사천 곤양면
● 면적 : 8,000평
● 법당 24평 삼성각 주지실
(풍수 만점, 기가막힌 절)
● 양도가 : 4억 2천

## 사찰(터)안내
● 위치 : 양산 내원사 부근
● 면적 : 700평
● 현황 : 도로 전기 완비 부지조성 완료
● 양도가 : 1억 3천

영남지방 전문 사찰 컨설팅 (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 불심있는 보살님,처사님
최고 물좋고 산새 우령한 조용한 암자에서 같이 불사하며 가족처럼 사실 분을 원합니다.
017)792-8969

## 아! 싸다
● 사찰터 · 임야 7만평
● 가액 : 몽땅 1억 8천 5백만원
● 위치 : 경북 경산시 하양읍 소재지
● 특징 : 무지개골 계곡물 졸졸 산수수려함. 대로변 200m 위치. 산입구까지 차량진입가능
(산주연락처)
011)9370-2629

## 사찰 안내
● 위치 : 창원시 대산면
● 건물 : 석굴법당 관음전 요사채 2층 누각 1, 2층, 기도방 1개
● 평수 : 1200평
● 가액 : 2억
011)592-1347

## 사찰 급 안내
● 위치 : 노원구 당고개역 3분거리
● 부지 : 약 30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5대
● 가액 : 1억 7천
011)9756-4845

## 탈 종 공 고
● 주 소 :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계양리
● 사찰명 : 영천암
● 주지 : 김경애 ● 법명 : 혜국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 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함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 권 대창불교건축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781-4989
H P 016)768-4324
011)246-2210

## 권 대 창 목 재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연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종봉 합장

##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 전철역 부근
● 평수 : 35평(실평 27평)
● 보증금 : 5백만원 월 백만원
● 시설비 : 2천 5백만원 합 3천만원
● 시설물 : 석기불 관음불 지장보살 탱화
016)710-8535

##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진주 20분거리)
● 임야 : 5,000평, 종교부지 80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황토방 30평)
● 가액 : 3억 2천만원
● 특징 : 경치수려, 기도도량 적합
011)804-

## 사찰 터 안내
● 주위 경관 수려하며 절터로서 최상급 임
● 경북 영주시 소재(시내에서 10분 거리)
● 전 : 약 730평 (실평수 1천평 내외) 현재 1차공사로 터 조성과 전기+지하수관정, 시공한 상태 임
● 가액 5300만원(절충가능)
011)9770-1581

## 사찰 안내
● 위치 : 회성시 팔탄(도로근접)
● 법당 : 23평
● 산신당 5평, 요사체 70평
● 부지 : 240평
● 가액 : 3억 3천 절충가능
- 관심있는 분만 전화요망 -
011)785-5670

##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 부지 : 7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5평
· 가액 : 2억 5천 만원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지하철 7호선 광명역)
● 법당 : 20평
● 요사 : 방 1개
● 보증금 2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천만원

● 위치 : 수원시내
● 대지 : 90평
● 법당 : 45평
● 요사 : 70평
● 양도가 : 3억 3천
※ 뒤는 산세 좋은 도심 사찰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용도 마음수련원, 별장, 토굴, 기타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내, 대구에서 50분~1시간
● 부지 : 600평 ● 건물 : 3동
● 건물 : 1동 통나무집, 1층 50평, 2층 30평, 3층 30평 (심이보일러) 2동 벽돌, 25평 방 4, 거실, 주방, 욕실 (심이보일러) 3동 욕각정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마당에는 흐르는 생수 연못과 정자가 있고, 잔디와 소나무 조경이 잘되어 있음 정원 앞에는 마르지 않는 계곡이 있어 항상 시원한 물소리를 즐길 수 있음 채소밭 텃밭이 있고, 과일나무가 있음.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양도가 : 3억 3천 (절반가격)
011)9374-0126

## 신설 사찰(급)전세안내
●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447 ● 평수 : 600평
● 시설 : 대웅전 1동, 요사채 방 6개 주방 대형 1개, 욕실, 화장실
● 기(氣) 찜질방(방비석) 40평 수용
● 가액 : 2,000만원 보증금 월 45만원 (계약기간 5~10년까지)
● 시설비 : 5,900만원(모든 비품 포함) (현장 답사 후 가액 절충)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 도보로 정문 5분거리 주차장 완비, 대덕산 명당자리
※ 주지스님 건강문제 때문에 급 전세
미 륵 사
053)793-5808/017)588-1656

##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통영간
● 부지 : 약 800평(준농림지) 안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트여 아주 좋음
● 가액 : 3000만원(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낳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천식이 뜸어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저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 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10kg(황기, 진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 1Box × 60포 : 15만원 ■ 2Box × 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육모정 근처 ● 대지 : 1200평 중 종교부지 : 300평
● 전 : 700평 [하천부지 : 300평, 주택지 : 283평 사용가능]
● 대웅전 : 20평 ● 산신각 : 4평 ● 독성각 : 2평
● 요사채 2동 방 4개 조립식 건물 ● 회의실 : 13평 1동
● 현시세 신축건물 매매가격 3억만원(절충가능)
● 불사 할 수 있는 도량. 스님 및 법사님 환영
063)625-9992 011)9642-8833 011)9642-1202

## 사찰 안내
● 대지 192평
●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새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임진강 앞이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가액 3억 2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영월근교)
● 임법당 : 방 3개 동각을 인접해 겸치 좋음
● 가액 : 3천 2백만원(절충가능)

## 사찰(터)안내
● 2080평 준농림지 중국관정 대법사께서 인정하신 명당터
● 가액 : 평당 3만원
033)378-5713
011)806-4867

##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천 역곡 남부역 앞 3분거리
● 법당 : 삼존불, 20평, 방 2개 (요사채)
● 보증금 · 권리금 : 1,500만원
● 월세 : 35만원
● 도로변에 위치
017)232-3389

##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방동 호곡리 (뒷골)
● 대지 : 304평
● 건평 30평
011)564-4171

## 토굴 안내
● 충북 단양읍 소재 유진 빌라 6동 306호 14평 3층
개인적인 학문연구나 건강휴양처로써 나만의 공간이되어 걸망 풀어놓고 편히 쉴 수 있는 토굴이라 생각하고 미련할 스님이나 불자님은 연락바랍니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 입니다.
● 가액 2100만원
011)9770-1581

##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왜관시내 중심가
● 건물 : 2층 건물 중 2층 (70평, 방2 주방 1) 시설완벽, 포교당 최적지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822-9622

##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백두대간
● 상태 블럭조 17평 집 1동(재래식) 1991평(실사용평수 4000평) 불사할 수 있도록 터 잘 되있음 전망좋고 좋은터
● 가액 : 5천 5백만원(시세보다 쌈)
011)9542-2537

##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근교
● 면적 136평 법당 30평(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모셔져 있음)
● 요사 : 30평 ● 노천 : 칠성각
노천석가모니불 산신불 ● 주지실 15평
● 가액 : 2억. 절을 맡아서 운영하실 스님
055)271-7587
011)592-7587

## 사찰(급)안내
● 위치 : 영덕 영해 중간 지점
● 대지 : 400평 중 250평만 이전 됨
● 건물 : 대웅전 20평 요사채 40평 종무소 7평
● 교통편리 앞 도로 뒤강
● 가액 : 7000만원
054)733-7881
016)540-0027

##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동구 방어진 소재
● 평수 : 50평 2층
● 보증금 2,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011)566-1365
052)234-1365

## 불교 이래서 좋다

조희진 고려대 불교학생회장

### "독선적이지 않고 포용력 커"



지난해 단지 관심이 있어 고대 불교학생회에 들렀다가 인연이 되어 회장이란 중책까지 맡게 되었다. 고교 때부터 법정스님의 글들은 무료한 일상에 큰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집안이 불교라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작년에 읽은 현각 스님의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는 관심에만 머물던 불교에 대해 진지하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부끄럽게도 솔직히 아직도 나는 불교 교리에 밝지 못하다. 그래도 불교가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부처라는 가르침 때문일 것이다.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외치는 독선적인 종교가 아니라 자기와 다른 사람도 포용하는 불교가 좋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각자가 불성을 깨닫는 것을 도와주는 불교는 편안하다.

지난해 수련회에서 1080배를 한 적이 있다. 할 때는 너무 힘들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내가 왜하고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하고 나서는 무언지 모를 뿌듯함과 내 안의 불성을 조금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참선을 하면서 '나란 무엇인가'와 같은 본질적인, 근원적인 물음에 마주할 수 있었다. 지난 학기에 어느 교양 강사가 불교는 회의론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불교를 통해서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뜻 깊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연기와 윤회론 등을 통해 인생에 대해 깊이 고찰할 수 있었으며, 인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선승들의 선문답을 보면서 너무 형이상학적이며 현실 도피적이지 않나 한때 회의가 들었지만 소쩍새마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불교가 사회에도 큰 이바지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아직 불교를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안의 불성을 믿고 정진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 담배를 끊읍시다

### 흡연과 심장질환

일반적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60~70%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관상동맥질환에 걸릴 확률도 60% 이상이다. 또한 피임제를 복용하는 여성이 흡연을 할 경우 비흡연 여성에 비해 심혈관계 질병에 걸릴 확률은 최대 10배가 넘는다.

30대 이상 돌연사에서도 흡연은 주요 원인 중 하나다. 30대 이상에서 흡연자가 돌연사할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3배나 높다.

흡연이 심장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근에 필요한 산소 공급 방해하는 것이다.

흡연으로 인해 심근 운동에 필요한 산소공급이 줄어들면 심장은 산소부족상태에 빠진다. 이것은 산소가 부족할 때 자동차 엔진이 불완전하게 연소가스를 내뿜는 것과 같이 심장운동 효율을 떨어뜨린다. 이런 상태에 자주 노출된 심장은 협심증, 심근경색 등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흡연은 교감신경 흥분제인 카테콜아민(Catecholamine)의 분비를 자극한다. 이 효소는 심근의 전기적 자극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 효소의 과다는 심장 부정맥 현상의 원인이 된다. 또한 흡연은 혈소판 응집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소공급 줄어 협심증 · 심근경색 유발**

## '청소년의 달' 5월

# 축제 잇달아

### '파라미타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눈길
### 사경공모전 · 백일장 · 문화축제 등 풍성
### 국악 · 고전무용 등 전통예술 경연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교계 청소년 단체들이 '댄스경연대회', '1318Power 응원 페스티벌' 등 축제형식의 문화 공연을 비롯해 '통일환경 백일장 대회', '전통예술경연대회' 등의 풍성한 행사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전국 사경공모대전'을 지난 달 1일부터 시작한 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도영 스님)는 12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특설무대에서 '제2회 파라미타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를 연다. 이번 댄스 경연대회에서는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만화나 T.V 주인공의 모습을 따라하는 코스튬 플레이(costume play) 등의 공연과 함께, 풍물패와 탈춤패의 공연도 있을 예정이어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심인고등학교(교장 박노선)도 19일 오후 2시부터 국채보상공원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댄스페스티벌'을 갖는다.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총 20여 팀이 참가해 역동적인 춤사위를 선보인다.

'2002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행사도 잇따라 개최된다.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대표이사 혜명 대정사)는 11일 오후 4시부터 성북구민회관에서 한일 월드컵 축제인 'S.A.Y(Sungbuk Area Youth WorldCup Festival) 월드컵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성신여고 풍물패 '땅울림' 등 댄스, 락그룹, 힙합 동아리 총 7팀이 참가하는 가운데, 불교방송 '프라임 뮤직' 공개방송이 이어진다. 또한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관장 범산 스님)은 11일 오후 3~5시 부산교육문화회관 야외 원형무대에서 'Power 1318 청소년 응원 페스티벌'을 연다. 부산 지역 7개 청소년 응원동아리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특히, 순수창작 응원퍼포먼스 작품만 발표되어 열띤 춤솜씨와 함께 청소년들의 안무연출력까지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기대된다.

이밖에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 스님)는 26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제15회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악연주를 비롯해 탈춤, 고전무용, 농악, 판소리, 가야금병창, 설장고춤 등 전통 예술분야에 참가해 청소년들이 마음껏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또한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총재 월주 스님)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교정과 명륜당에서 '제8회 청소년 통일환경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6월 5일까지 '2002 청소년 자연사랑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행사도 벌인다.

청소년 담당=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이 개최한 '댄스경연대회'에서 청소년들이 신나게 춤추고 있다.

◆ '5월 청소년의 달' 맞이 교계 청소년단체 행사 일정

| 행사명 | 주최 | 일자 | 전화번호 |
|---|---|---|---|
| 제2회 파라미타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 파라미타청소년협회 | 5월 12일 | (02)723-6165 |
| 부처님오신날 기념 댄스페스티벌 | 대구 심인고등학교 | 5월 19일 | (053)627-2644 |
| 'S.A.Y 월드컵 페스티벌' | 비로자나청소년협회 | 5월 11일 | (02)942-0635 |
| 'Power 1318 청소년 응원 페스티벌' |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 | 5월 11일 | (051)868-0750 |
| 청소년문화축제 | 제천청소년수련관 | 5월 12일 | (043)651-7474 |
| 웅변대회 | 불교웅변인협회 | 5월 12일 | (02)735-1896 |
| '어린이를 위한 문화답사' | 부산불교연합회 | 5월 12일 | (051)867-0501 |
| 제17회 어린이 글짓기 대회 | 불국사 | 5월 12일 | (054)746-1472 |
| 봉축 청소년 한마당 | 청교련 아산지부 | 5월 19일 | (041)545-5228 |
|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 | 목동청소년수련관 | 5월 19일 | (02)2646-0181 |
| 제15회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 |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 5월 26일 | (02)735-8165 |
| 제8회 청소년 통일환경 백일장 |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 5월 26일 | (02)722-7552 |
| '청소년을 칭찬합시다' 캠페인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5월 내내 | (02)2667-0479 |

## 청소년 단신

### 몽골문화 자연탐사 캠프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몽골 울란바토르, 흡스굴 등 '몽골 문화 및 자연탐사'를 1차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7박8일간 떠난다. 참가인원은 초 · 중 · 고등학생, 지도자 포함해 80명으로, 참가비는 1인당 1백3십만원. 마감은 5월 17일. (02)723-6165

### 청소년 자원봉사단 모집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제17기 청소년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약물예방 활동 등의 교육을 펴게 될 자원봉사단은 매주 토요일 오후2시부터 3시간씩 총 3회 교육받는다. (02)571-2988

### '우리누리' 참가자 공모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은 정신지체 장애아동 방과후 보호교실 프로그램인 '우리누리'를 관내 3층 창작공방에서 운영한다.

5월부터 12월까지 주5회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저소득 영세가정 정신지체 장애아동 8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 (051)868-0750

##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 새내기 불교동호회들

◇인각사 어린이회(http://cafe.daum.net/ingaksa) 5월 1일 개설. 부산 문현동에 있는 인각사 어린이회 카페. 선생님들을 위한 뒷간, 자기 소개를 하는 일주문. 지대방, 해우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능인선원 등룡사 청년회(http://cafe.daum.net/deungcheong) 5월 1일 개설. 능인선원 등룡사 청년회의 카페. 발빠른 등청, 진솔한 등청, 패기있는 등청으로 거듭나겠다는 인사말과 함께 카페 운영포부를 밝히고 있다.

◇∑불교♀—☆(http://cafe.daum.net/Bulgyo) 4월 30일 개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기도, 편지쓰기, 시, 나의 이야기, 가입인사 등의 코너가 개설되어 있다.

◇청산은 나를보고 말없이살라하네 (http://www.freechal.com/mahabanya) 4월 30일 개설. 게시판과 자료실로 꾸며진 커뮤니티.

◇미라래빠(Milarepa) (http://cafe.daum.net/milarepa) 4월 20일 개설. 티베트, 히말라야의 영혼의 대성자로 널리 알려진 미라래빠에 대한 카페. 미라래빠, 바즈라야나, 크리야, 십만송 등의 코너로 꾸며져 있다.

◇달마할배 우리하고 놀아요 (http://cafe.daum.net/dharmayumahl) 4월 16일 개설. 달마스님 왜 동쪽으로 오셨어요?, 달마그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림 갤러리 등의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3개월간의 재밌는 만남 (http://www.freechal.com/doisclass) 4월 13일 개설. 광동중학교 종교수업과 불교학생회를 위해 만든 재미있는 커뮤니티. 학년별 종교수업과 불교학생회 방이 있다.



◇'달마할배 우리하고 놀아요' 카페 초기 화면.

◇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 (http://cafe.daum.net/tnqhfl) 4월 4일 개설. 전국불교 산악회 서울지부인 금강메아리의 카페. 향기실은 산행길, 문학의 향기, 깨침의 향기 등의 코너를 통해 불자 산악인들의 친목을 도모한다.

◇금정 Family (http://cafe.daum.net/kjfamily35) 3월 12일 개설. 육군 제28사단 무적 태풍부대 법당 호국광명사 불자들을 위한 카페. 금정법사의 깔끔한 운영이 돋보이는 곳. 불교스터디, 이법사가 사는 법, 공양 등 다양한 코너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제주불교성지순례

"불교문화체험 제주관광과 함께"

1일 : 제주공항 도착 → 관음사 → 선광사 → 도깨비도로 → 점심공양 → 존자암(산신각도) → 법화사 → 약천사 → 저녁공양 후 철야정진

2일 : 아침공양 후 사찰 출발 → 일출관경가정 → 유람선승선 → 마라도도착 기원정사 → 점심공양 → 산방굴사 → 소인국테마파크 → 저녁공양 → 호텔(or 불사리탑)

3일 : 아침공양 후 호텔 (or 불사리탑) 출발 → 산굼부리 → 성읍민속마을 → 점심공양 → 섭지코지 → 중달리해안도로 → 불탑사 → 공항

※ 현지 사정에 의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출발지 | 숙박 | 요금(원) | 포함내역 |
|---|---|---|---|
| 서울 | 사찰 1박, 호텔 1박 | 219,000 | ※ 왕복항공료<br>※ 호텔 1박 (4인 1실)<br>※ 공양비 (사찰공양비 포함)<br>※ 관광지 입장료 (유람선료 포함)<br>※ 차량료<br>※ 주차료<br>※ 여행자보험료 (최고 5천만원) |
| | 사찰 2박 | 204,000 | |
| 부산 | 사찰 1박, 호텔 1박 | 188,000 | |
| | 사찰 2박 | 173,000 | |
| 대구 | 사찰 1박, 호텔 1박 | 197,000 | |
| | 사찰 2박 | 182,000 | |
| 광주 | 사찰 1박, 호텔 1박 | 187,000 | |
| | 사찰 2박 | 172,000 | |
| 청주 | 사찰 1박, 호텔 1박 | 203,000 | |
| | 사찰 2박 | 188,000 | |
| 군산 | 사찰 1박, 호텔 1박 | 187,000 | |
| | 사찰 2박 | 172,000 | |

성지순례전문여행사 --------

(주)다도문화기획 · 투어

TEL. 064)724-1185~6

우스이레이키(Reiki 靈氣)가 왜 화제인가!

- 3일만 배우면 됩니다 -
- 탁월한 우주 생명에너지 이용법입니다 -
- 건강 전체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생명에너지입니다 -

일본의 정토진종의 구도자 우스이 마카오씨(1865~1926년)가 교오토의 산속에서 21일간의 처절한 단식명상 끝에 번개를 치듯이 몰려 오는 우주생명에너지와 감응하고 그 이용법을 체계세워 레이키라고 이름지은이래 이미 레이키는 전세계 50개국 이상에 보급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부터 미국을 통해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을 거치다 보니 본래의 내용이 빠지고 에너지의 질에 차이가 생긴 갈래들도 도처에서 생겨 났습니다.
저(박희준)는 많은 갈래의 레이키를 고루고루 외국에서 배웠지만 특히 일본에서 소수의 인물에게만 전해지는 우스이씨 본래의 어튠먼트(능력전수절차) 기법과 에너지를 전수받고 더욱 개량한 끝에 3일이라는 최단기간에 우스이 레이키 제3단계 까지를 전수하는 일을 1998년 부터 우리나라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3일 교육제도는 일본, 미국의 어떤 레이키 교육기관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 우스이 레이키(교육기간 3단계까지 3일. 교육비 70만원)
교육내용 : 우스이 레이키 발영법. 12지료점 치료법.
급만성질환에 대한 원격치료법. 동식물 치료법.
악몽 음식물등에 대한 에너지주입법. 생활의 여러방면이 걸쳐서 레이키를 활용하는 법. 박희준식 레이키 특별참나(본성 자성 불성) 촬성화법 등.
▶ 3일간의 교육이 끝난 1개월후에는 1일간의 무료 추가 교육이 실시됩니다. 환전레이키요법, 차크라활성 호흡법, 간단한 제령법등을 이때 배웁니다.
2. 카루나 레이키(교육기간 2일 교육비 5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우스이 레이키를 배운분이 다음 단계로서 배우는 새로운 레이키입니다. 9종류의 氣를 요법에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이 끝난 1개월 후에는 카루나 레이키 제령법 등을 배웁니다.

※ 현대불교신문 독자는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10%씩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일괄등록 103만원

현대 생활 레이키연구회

대표 박희준 (그랜드 마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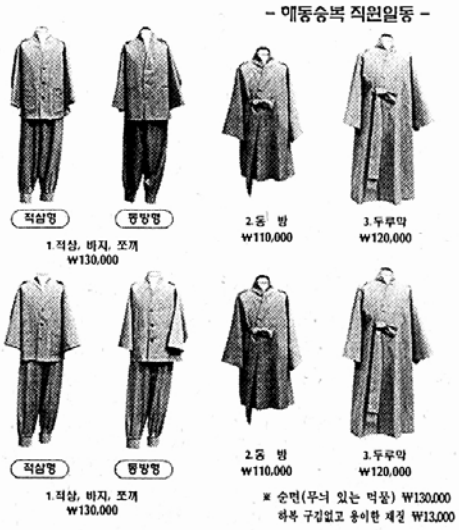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화 : 02)720-5682, 720-5719, 팩스 : 02)720-5720
◇핸드폰 : 019-392-2557, 018-850-1680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저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 순면(무늬 있는 먹물) ₩130,000
하복 구입없고 용이한 재질 ₩13,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탓충주문 받습니다.

조끼 · 몸배 셔츠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중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당뇨 · 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볶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1개월분 ₩150,000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친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곱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정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경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인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 신행 캘린더

**5월 8일 (수)**

■김영임 '회심곡 2002공연' =세종문화회관은 오후 3시 심청의 효심을 주제로 한 '회심곡 2002' 공연을 마련했다.

12일까지 계속되는 이 공연은 회심곡의 대가인 김영임 경기명창을 통해 애절하면서도 맛깔스러운 회심곡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02)786-8886

**5월 11일 (토)**

■여수 석천사 '티베트 사진전' =사진 작가 이상원 씨의 티베트 사진 전시회가 석천사 주최로 여수문예회관에서 열린다.

티베트 사원과 스님, 티베트인의 생활풍습 등을 담고 있는 이번 사진 전시회를 통해 티베트 불교의 모습을 확인해 보자.

(061)662-1607

■용진신행회 '성지순례'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의 승병 총본영이 있던 곳으로 유명한 대둔사.

의심 · 삼우 · 도안 · 영우 등 선사와 강백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신심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 출발은 오전 7시 을지로 6가 국립병원 앞.(02)2278-1191

**5월 12일 (일)**

■심곡암 '산꽃축제' =심곡암은 오후 1시부터 심곡암 경내에서 사부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산사음악회와 사진전시회 등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해 열린 제1회 산꽃축제.

노래하는 스님 심진 · 진명 스님과 장사익 씨 등이 초빙된 음악회, 북한산 심곡암 인근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담은 사진작가 전제우 씨의 사진 전시회는 모든 불자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다.(02)914-8860

■전북불교대학 '부처님그리기 대회' =전북불교대학은 오후 2시 전주시 완산동 정혜사에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의 부처님 그리기 대회를 마련했다.

대상과 우수상 등을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상금도 수여된다.(063)226-7878

■터사랑 '성지순례' =성주사지는 신라 구산선문 중 하나로 신라 고승 낭혜화상과 최치원 등의 사적이 얽혀 있는 곳. 그 천년 고찰의 자취를 더듬고, 바닷길이 열리는 것으로 유명한 신비의 무창포 갯벌도 함께 볼 수 있는 여행.

터사랑과 떠나는 이번 여행의 출발은 오전 7시 30분 안국역 (02)722-9747

**5월 15일 (수)**

■귀일스님 '기와 그림전' =기와 위에 불보상 그리기를 통해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귀일스님. 스님이 3년 동안 그린 불화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28일까지 서울 인사동 가나아트홀에서 열린다.

잡귀를 몰아내는 도깨비 얼굴을 그린 귀면, 동종, 사리탑, 비천상, 불보살 등 60여 점이 선보일 예정이다.(02)734-1019

**5월 16일 (목)**

■윤덕경무용단 위빠사나 주제 창작무용공연=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 주제의 창작무용공연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청주 서원대 무용학과 윤덕경 교수는 저녁 7시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고요한 시간, 깨달음-위빠사나' 주제로 창작 무용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일상생활 속에 바쁜 현대인들이 위빠사나 수행 특유의 느린 동작을 통해 '느림의 미학'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043)299-8950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포교도 수행이다

**5월-전법의 달**

- 전법의 공덕
- 포교도 수행이다
- 온 가족이 '포교사'
- 누구나 전법사



◇경기불교문화원 권준서 사무국장이 여주 신륵사를 찾은 학생들에게 사찰에 깃든 불교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 부산 범일동 밝힌 '조방연등제'

## 자유 · 평화시장 · 보석상가 불자상인들 6번째 행사

### 시장번영회 가세 축제 자리잡아

### 청각 · 언어장애아들 연주 눈끌어



◇이두선, 강홍자, 장일선, 서분선(왼쪽부터) 보살이 부산 자유시장 앞에서 공무과 직원과 함께 연등을 달고있다.

대규모 도매시장 상인들이 주축이 된 연등축제인 '조방연등제'가 3일 환하게 불을 밝혔다.

부산 범일동 일대를 환히 밝히는 연등 점등식과 함께 시작된 조방연등제는 자유시장, 평화시장, 보석상가의 불자상인을 주축으로 타종교 상인들까지 참여하는 행사로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조방연등제는 범일동 시장 일대의 옛 명칭인 '조방'에서 유래한 것.

시장 발전을 기원하고 부처님 오신 뜻을 널리 펴겠다는 몇몇 시장 상인들의 원력으로 시작된 조방연등제는 해를 거듭할 수록 인근의 약불사, 부산불교방송, 부산불교신협, 한빛은행 불자회 등이 뜻을 모으면서 부산 범일동 일대의 축제로 자리잡았다.

2천5백여 점포 상인들이 밀집한 상가 건물과 현대백화점 앞 대로변 등 주위를 밝히는 연등의 숫자만 3천 여개. 또한 조방연등제 행사 진행과 불우이웃돕기에 필요한 성금을 내며 동참하는 상인들은 6~7백명에 달할 정도.

특히 올해는 조방연등제를 위해 결성된 조방연등회 조직이 한결 탄탄해졌다. 정각스님과 혜륜스님을 고문과 지도법사로 모신 가운데 시장의 대표기구인 시장 번영회가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번영회가 힘을 보태면서 앞으로 조방연등회는 조방연등제외에도 지속적인 법회활동과 봉사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주위를 환히 밝힌 연등 불빛 아래서 진행된 올 조방연등제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성우원 청각,언어 장애아들의 연주회. 10여명의 장애아들이 들려주는 연주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일깨우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봉축의 기쁨을 나누는 감동의 무대로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이날 상인들의 찬조금으로 마련된 성금으로 농아들의 악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으며 연등부착 작업을 도와준 시장 공무과 직원들에게 부산불교신도회의 공로패가 전달됐다.

조방연등제를 맨 처음 발의한 장일선 수석부회장은 "내년에는 노래자랑, 독경대회 등 좀 더 다양한 문화행사로 시민들에게 불법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 불자가 해야할 첫 덕목

포교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이다. 살아있는 진리의 전파를 포교라고 할 때, 포교행위는 곧 종교의 끊임없는 자기 갱신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포교는 적극적인 실천을 수반하는 수행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경기불교문화원 권중서(47) 사무국장은 선방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것만이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장에서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포교가 더 적극적인 수행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권 국장은 사람들이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도소로, 거리로, 사찰로 찾아다닌다. 여주교도소 수용자 포교, 신륵사 사찰 안내 봉사, 재가불자를 위한 경기불교문화원 건립 지원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저함 없이 나서고 있다.

"포교는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 과정을 거치는 수행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동사섭의 실천을 보여줄 때 포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최복천(64) 포교사는 68년부터 불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후 평소 108배는 물론 경전 강독, 참선, 염불 등 개인적인 수행에 전념해 왔다. 동시에 5계를 범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최 씨는 장의 염불 봉사를 벌이는 포교사가 됐다. "부처님 일대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포교였습니다. 45년 동안 포교를 수행으로 삼았던 부처님의 삶을 이해하고는 포교사가 되기로 결심한거죠."

최 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불자들이 행해야 할 첫 번째 덕목으로 꼽는다. 포교야말로 불국토를 이루는 첩경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다. 최 씨의 포교는 가족으로부터 시작됐다. 아내는 물론 두 아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로 교화했다.

97년부터는 장의염불 봉사를 통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최 씨는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몸소 실천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세가 여법한 포교가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포교는 생명력을 잃고 만다. 수행을 전제로 하지 않은 포교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포교'없는 종교 또한 공허하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지 않는 진리란 화석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포교의 길을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박봉영 기자

## "'거사는 사회발전의 주체' 인식을"

## "왜곡된 한국불교현실 극복해야"

### 거사운동방향 토론회

전국적으로 많은 사찰내에 거사회가 조직되어 신행을 펼치고 있지만, 거사법회가 다양한 프로그램 없이 단순 반복되는 법회만으로 유지되는 것은 이른바 '치마 불교', 기복불교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사찰의 거사회가 거사운동의 발전방향을 조망하는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모았다.

수원포교당거사회(회장 진철희)는 4월 30일 수원 경기불교문화원에서 '제2회 거사회 발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효림스님(보광사)은 기조법문을 통해 "거사불교는 그동안 해 온 신행형태의 고정관념을 탈피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신행단체의 운영도 주5일제 근무에 맞춰 인격수양과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위지 한국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거사는 단순히 승단에 대한 보조적인 기관이 아니라, 승단과 화합해 불교는 물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연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거사불교운동의 방향은 이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펌과 동시에 왜곡된 한국불교의 현실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질곡을 극복하려는 데 모아져야 한다"며, 재가불교운동 활성화를 위한 물적 자원 확보, 인적 자원의 재생산, 출자자의 도덕성과 재가자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룬 불교운동 등을 제안했다.

김재경 기자



◇한마음선원이 1일 대구지원 준공법회에 앞서 테이프 절단식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성우, 지성, 원명, 혜원, 혜계 스님.

##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법당 준공식

조계종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스님)은 1일 원명스님(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성우스님(파계사 주지), 혜원스님(한마음선원 본원주지)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원(지원장 혜계) 준공법회를 가졌다.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명스님은 법어를 통해 "새 법당 건립으로 대구 경북지역에 불법이 널리 홍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준공법회는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다도회의 육법공양과 원명스님의 법어, 지성스님(동화사주지)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3년 6개월간의 불사 끝에 연건평 750여평으로 지어진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불교적 전통미와 현대적 실용성이 접목된 건물로서, 대구 도심지역의 신행공간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대구=고영배 기자

## 삼광사, 첫 연등만들기 대회

### 15지역회 · 11개 신행단체회원 1천명 참가

4월 30일 천태종 삼광사(주지 도원) 지관전에서는 삼광사의 전체 신도조직이 참여한 제1회 연등만들기 대회가 열려 이색풍경이 연출됐다.

지관전을 가득 채운 15개 지역회와 11개 신행단체의 회원 1천여명의 신도들은 저마다 진흙에서 핀듯한 청초한 연등을 만들기 위한 손짓으로 분주했다. 특히 이날 연등만들기 대회에 앞서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연등만들기 시범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은 "연꽃의 청정한 마음으로 전 신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부처님 오신 참뜻을 되새길 수 있도록 연등만들기 대회를 마련했다"며 참여한 신도들을 격려했다. 앞으로 삼광사는 연등만들기 대회를 삼광사만의 독특한 봉축행사로 정착시키기 위해 창작등 만들기, 전통등 만들기, 가족등 만들기 등 대회 운영방법이나 참가 분야 등을 보다 다양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 봉축 상징물 점등식

### 부산역광장 500명 참석

부산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오)는 2일 부산역 광장에서 불기 254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상징물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부회장 도원스님, 안상영 부산시장,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 회장을 비롯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 동국대 불교대학원 돋보기 증정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제21대 총학생회(회장 양성홍)는 4월 28일 서울 종로3가 종묘공원을 방문한 어르신 들을 대상으로 돋보기 안경을 무료로 증정하는 현장봉사활동을 가졌다. 불교대학원 제21대 총학생회는 어르신 2000명분의 돋보기안경과 떡, 음료수를 준비했다. 선무도 경기본원(원장 김연삼 포교사)의 선무도 시범공연에 앞서 양성홍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선각종 월드컵승려홍보단 회향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4월 28일 강진 옴천사에서 종단 차원으로 벌여온 월드컵 승려홍보단 및 성공기원 깥페인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정업스님, 김두원 광주 · 전남 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했다. 법회에 앞서 열린 산사음악회에서는 가수 김흥국 씨와 국악인의 공연이 마련됐다. 총무원장 정암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주용직 광주지사장

## 미륵종 자비포교원 개원법회



한국불교 미륵종 자비포교원(주지 영성)은 4월 29일 종단 간부스님 및 신도 1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송정스님은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법회와 행사로 불심의 도시 부산에 어울리는 도심포교당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미륵종 간부스님들이 개원식에 앞서 테이프 컷팅을 하고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 복지도 전문화…컴넷하우스 문열어

## 교계 첫 정신장애 치료시설…부처님 가르침으로 자립능력 배양




◇컴넷하우스는 대표이사 범산스님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29일 개소식을 가졌다.

### 정신보건복지사등 10명이 재활도와
### 컴퓨터·탁구교실 운영 자활훈련 실시

교계 최초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인 '컴넷하우스(대표이사 범산스님)'가 4월29일 부산에서 문을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산하 컴넷하우스는 만성정신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게 되며, 이를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커뮤니티 네트워크(Community Network)에서 따온 컴넷하우스는 정신 병원 퇴원 후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건강한 사회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컴넷하우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과 참여를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만성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 강화, 권익 옹호, 지역민들의 인식전환을 통한 편견해소 등에 주력하게 된다. 컴넷하우스와 같은 정신장애인 복귀시설은 전국적으로 83개, 부산에만 7개가 운영중이었으나 불교계에서는 손을 놓고 있던 사각지대로, 이번 컴넷하우스 개소는 불교 복지의 영역을 보다 전문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춘 컴넷하우스의 이용인원은 10명. 부산여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윤숙자 교수를 원장으로 정신보건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가사관리부, 사무행정부, 취미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계발하도록 돕는다. 적응능력이 향상되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나 사업장과 연계, 취업 기회도 마련해 줄 예정이다.

특히 교계 수탁시설인 양정청소년 수련원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컴퓨터 교실이나 건강을 돕는 탁구교실 등을 실시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활훈련을 쌓도록 할 방침이다.

컴넷 하우스는 5월에 제4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 걷기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월 가족 교육, 캠프, 연합운동회, 등반대회, 소식지 발간 등의 사업계획을 세워두고 회원을 모집중이다.

대표이사 범산스님은 "컴넷하우스는 불교계가 최초로 시도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정신장애인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051)759-1268

부산=천미희 기자

# 훼불 청원서도 발생

## 백족사 본존불 부분파손·佛器에 십자가

부처님 오신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청원지역에 또다시 훼불사건이 발생했다.

4월 24일 새벽 3시30분경 충북 청원군 가덕면 백족사(주지 승근) 대웅전 본존불의 무릎아래 부분이 파손되고, 누군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두고 간 훼불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범인은 또 불단위의 불기(佛器)에도 십자가를 그려 놓았으며, '주 예수님의 적은 부처'라는 글귀를 적은 광목천을 남겨 놓았다. 신고를 받은 청주 동부경찰서는 즉각 현장감식을 벌인 후 불기를 수거해 지문을 채취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청주청원불교연합회(회장 이두스님)는 지난 3월 29일 충북대 불교학생회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불상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불교를 비방하는 세력이 부처님 오신날 봉축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조직적으로 훼불사건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 학림스님 북한친형 만나
## 4차 이산가족상봉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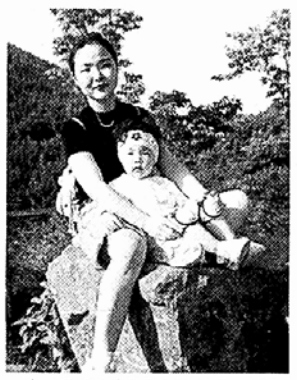
한 스님이 이산가족 상봉단으로 50년 만에 친형을 만나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상계동 보현정사 주지인 학림스님(사진·56)이 1일 제4차 이산가족 상봉단 2진으로 강원도 속초를 출발, 금강산 온정각에서 북한에 살고 있는 친형 최수림씨와 만났다. 50년 만에 상봉한 스님과 형 최수림씨는 오랜만에 가족의 두터운 정을 나누었다.

1963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한 스님은 그 동안 원주 염불암 주지 등을 역임하며 도심 포교에 진력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 희망의 등달기 운동 전국확산
# 조계·신흥사 등 사찰 속속 동참



◇조계사가 '희망의 등달기' 대상자로 선정한 모항문병 환자 지연이.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와 본사가 공동주최하고 생명나눔실천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교구신도회가 공동주관하는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 캠페인에 교구본사급 사찰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2일 현재까지 이 캠페인에 동참한 사찰은 조계사, 용주사, 신흥사, 범어사 등 조계종 4개 교구본사를 비롯 봉은사, 도선사, 화계사, 한마음선원, 내원정사, 석왕사, 봉국사, 수원포교당 등 20곳에 이른다.

이중 조계사와 안양 한마음선원, 서울 연화사 및 개운사는 어린이 환자, 군장병, 소년소녀가장, 초록의 집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선정해 불자들의 '희망의 등' 성금을 받고 있다. 특히 3년간 '이웃을 위한 등'을 달아온 조계사는 올해 선천성 '모항문' 병에 걸린 야은초등학교 1학년 채지연 양의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태어날 때부터 염색체 이상으로 모항문이란 병에 걸린 지연이는 인공항문 수술과 귀 수술이 여러차례 계속되어야 하나, 정부 보조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심한 생활고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문의 (02)732-2115

김재경 기자

## 우정·협력 더 공고히
### 천주교, 초파일 봉축 메시지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최기산 주교는 6일 부처님오신날 축하메시지를 발표하고 "부처님의 자비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며, 불교계와 가톨릭 신자들이 그 동안 다져온 우호와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 비구니선원 공통규율 확정

## 선문회 2차 총회, 현 회장단 전원유임

비구니선문회(회장 영운)는 1일 경북 울진 불영사에서 제2회 총회를 개최하고 현회장인 영운스님(석남사 주지), 부회장 일운스님, 법증스님, 기획실장 성정스님 등 전임 회장단을 유임시키기로 결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방부 들이는 시간을 엄수하고, 사미니 중 기초선원 입방자도 각 선원에서 받기로 하는 등의 전국 비구니 선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규율도 확정했다. 특히 전국의 각 비구니 선원은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천성산, 금정산 고속철 통과 반대 등 수행환경 수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스님들과 환경단체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의하고 기금 1천만원을 모금했다.

천미희 기자

## 국제포교사 240명
### 원불교 307명에도 뒤져

"불교계의 국제포교사는 240여명으로 원불교의 307명 보다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백원기)는 4월 26일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그릴' 에서 개최한 '후원의 밤' 행사에서 '불교계의 해외 포교사는 현재 1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종교계 전체의 2.5% 수준인 240여명에 불과하다'며 해외포교 현황을 공개하고, 종단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제포교 정책수립과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제포교사회 강영성 봉사팀장은 '한국불교의 해외포교 현황과 미래' 주제의 영상자료 상영을 통해 "개신교계의 선교사 파송이 9천여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신도수가 10만명이 채 안되는 원불교가 3백여명에 달하는 반면, 불교계는 전체의 2.5% 수준인 240여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해외포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 외국인노동자 위안잔치
### 12일 구미 남화사서

구미 외국인근로자쉼터(대표 성화스님)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12일 남화사에서 구미공단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 위안잔치를 마련한다.

이날 행사는 풍물팀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과 한국 전통 및 외국 음식으로 마련된 점심, 장기자랑과 노래 자랑 등으로 진행된다.

김재경 기자

## 자비의 선물 나누기

봉축위원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포교사단과 조계사가 주관하는 '자비의 선물 나누기 행사'가 4월3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1백여 참가자들은 불교를 소개하는 소책자, 염주, 음료수, 과자 등을 넣은 선물을 포장했다. 이날 포장된 5천여 개를 포함해 모두 2만개의 선물이 논산훈련소를 비롯해 1백여 곳의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등에 전달된다.

한명우 기자

## 해인사 8만대장경 축제
### 6월30일까지, 경판하선·이운 행사

유네스코가 지난 95년 12월 세계문화유산 제463호로 지정한 팔만대장경의 호법정신을 이어받아 겨레의 번영과 자유, 평화를 기원하는 팔만대장경 축제가 4월 20일부터 6월30일까지 72일동안 합천 해인사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다.

해인사(주지 세민)는 축제 일환으로 4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대적광전 앞 광장에서 정대불사를 봉행한데 이어, 11일 오전 10시에는 고령군 개진면 개포리 낙동강 나루터에서 대장경판 하선행사를 펼치고 길상암~해인사 장경각 3㎞에서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옮기는 이운행사를 벌인다. 이날 저녁 8시40분부터는 산사음악회도 열린다.

행사기간 다도와 사찰음식 시음회, 달마도 체험 등 하루 산사문화체험, 어린이 백일장 및 사생대회, 연꽃그리기 시연, 합천오광대 시연, 합천농악한마당, 불교영화 상영 등 관련 행사를 개최, 누구나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미술전시회(6월30일까지, 산정갤러리)와 외국인을 위한 사찰체험(5월10~6월30일), 팔만대장경 인경 시연(5월10~6월30일) 등이 준비돼 있다.

김재경 기자

## 한중일 3국 차문화 대회
### 11일 보성 대원사서

전남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는 11일 오후 4시 대원사에서 개산 1500년 기념 '한중일 삼국 차문화 교류대회'를 개최한다.

한국 차문화협회와 중국 죽군다회(竹君茶會), 일본 표천가(表千家)가 참여하는 이날 행사는 삼국에서 전승되는 고유의 차문화를 소개하고 신라 왕자 김지장스님의 기념관 건립과 삼존상 봉안식 등이 함께 진행된다.

박봉영 기자

현대불교사회문화원
불교지도자 아카데미
(Buddhism Leader Academy)
스피치 과정 모집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하고, 설법과 강의,
대중연설에 필요한 자신감을 갖추어 대중포교에
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 설법과 강의, 대중연설에 자신있는 화술이 필요한 스님과 포교사
◇ 교육기간 : 1개월 과정 총 12회 강의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교육장소 :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교육실
◇ 개강 및 강의일정 : 5월 27일 ~ 6월 지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 강의내용 : 불교스피치 방법론, 명지도자는 명스피커, 효과적인 내용구성법, 발성 및 스피치 훈련(I), 스피치 실습 및 평가(I), 연단의 자세와 제스쳐, 음성표현의 5대원리, 유머 스피치, 유명성직자 화술분석, 불교스피치 예화 사용법, 발성 및 스피치 훈련(II), 스피치 실습 및 평가(II)
◇ 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현재 접수중(2002년 3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 장소 : 현대불교사회문화원 사무국
- 문의 : TEL : 02) 736-6940 FAX : 02) 730-1203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 동일빌딩 603호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교육아카데미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비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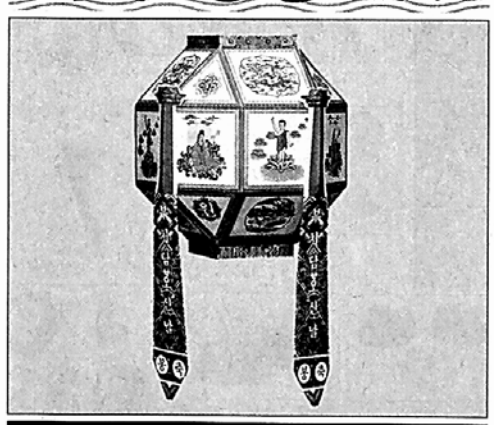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연등초벌용 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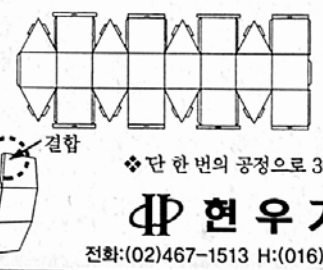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02)467-1513 H:(016)552-9360

[mahamall]

# 아직도 다리품을 파십니까?

1600여종의 불교용품,불교와 관련한 모든 상품을
마하몰에서 준비 하십시요. **02~732~1520**

[안내-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 행사내용: 삼성카드로 5만원이상 결제하는 전 회원에게 무이자할부 3개월 서비스 제공
- 행사기간 : 2002년 05월01일(수) 00:00 ~ 2002년 12월31일(화) 24:00 까지
- 행사내용 : LG 카드로 5만원이상 결제하는 전 회원에게 무이자할부 3개월 서비스 제공
- 행사기간 : 2002년 04월 10일(수) 00:00 ~ 2002년 06월 30일(일) 24:00 까지

※ 3만원 이하 구매시 발송비 2,000원 추가

공방인화문5인다기세트



75.000원

## 녹차·다구전

분청5인다기세트



30.000원

청자백상감다기부부세트



30.000원

청자흑상감다기부부세트



30.000원

흑상감국문다기세트



30.000원

청자백상감다기부부세트



30.000원

분청당초문다기19p세트



50.000원

청자국화문다기8p세트



30.000원

청자흑상감목단문다기6p세트



30.000원

분청양각목단문다기6p세트



30.000원

청자5인다기세트



40.000원

## 道心茶園



### 불성차 우전

불성차는 지리산 심산유곡의 야생 차밭골에서 갓 피어난 어린 녹엽을 손수 채엽해 동(銅)가마솥에 전승비법으로 빚어낸 전통 수제차

우전 90,000원
세작 50,000원
중작 30,000원

특우전



150.000원

우전



80.000원

세작



45.000원

중작



25.000원

대작



15.000원



## 천도 주요 상품

**범어금반지, 목걸이**



천연자원 등라찍고 있는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각을 상징하며, 태두리의 작은 원형도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반지(14K / 18K) : 110,000원(14K) / 145,000원(18K)
목걸이(14K / 18K) : 155,000원(14K) / 195,000원(18K)

**미농4종혼합세트**



순국내산 원미(보리)장에 배합시켜 비상에 가지는 우수한 성분을 매끼 밥으로 섭취할 수 있는 산뜻함의 기능성 밥입니다.

곤약 : 도라지분말 300g + 청국장분 300g + 현미글루텐식 7kg + 배분식김치 300g

33,500원

**연꽃불자시계**



불자님분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드리운 시계를 원하는 불자님에게 안성 맞춤한 시계

남성용 / 여성용 각각 99,000원

**한방온열보료**



생명의 기를 보충하고 병독을 흡수하며 항균성분이 인체에 흡수되어 자연치유를 증진시켜드립니다.

규격 90cm × 200cm
재료 표면 참백 금도 두꺼운 전체의 인체부분에 선택 보존

1인용 1,100,000원
2인용 1,300,000원

**37° 기베개**



40°C 이상의 전열을 가해야만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기존의 제품과는 달리 체온만으로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기능성 섬유(Life Soul)이 부착되어 누워 매니 건강에 좋은 침구입니다.

사이즈 47cm x 29cm x 5cm
※세균을 억소해줌 증상

69,000원

**서울건강무항**



이외가 주시거나
어떻게 결합해
목에 빠르면해
무엇이 시원해

※ 흡 분해시킨을 억무방법
포함하여 다양한 부합법

98,000원

**대나무수액시트**



발바닥에 수독과 노폐물을 빼니 놀랄 만한 효과가.

(※ 축진액은 설균, 소염, 소독작용이 뛰어나 약 25~30회가 눌러집니다.)

50매 50,000원
100매 90,000원

**건강향기방석**



천연약재(12종)의 향재를 이용, 인체에 좋은 음이온을 발생할수 있는 해결방법의 약재로 만들어진 한(K)집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45,000원

**오분향(목욕용)**



각종 피부질환에 고생하시는 분, 심폐약화가 심하신 분은 하시에 한증심기를 배워하고 천연약재의 장점만을 이용하여 제조하므로 부작용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000원

**염마의약존 ₩36.5**



염마의약은 ₩36.5는 온(溫),혼(混),난(暖),구(救)기능을 갖 지시로 조작이 기능하여 매직밸드로 시리되어 허리 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절할수 있는 건강벨트 입니다.

● 구성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이동테 충전기(벨테리(휴대용)

가정용 : 148,000원
휴대용 : 248,000원

깜짝세일

### 참선명상방석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 의장등록 출원 제 14387호
※ 30개 한정 판매
전화 주문자에 한함)

개당 25,000원

## 추천상품



**해탈전경륜**

예탄전경륜은 여러부분의 연화와 대, 봉황부분의 선물장, 다라니문의 모티브로 이루어진 티벳정교 공예품입니다.

소원성취 / 길상원만 / 만사형통 / 가족화목

198,000원



**탄소염주**

● 숲은 탄소장애하여고 탄소는 기업 모으고 복기 부족한 곳엔 복등 공급합니다.
● 숲은 정화와 재독의 작용한 천연소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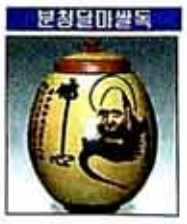
108염주 : 10m/m 160,000원
단주 : 8m/m 45,000원

**백자달마쌀독**



20kg 68,000원
40kg 98,000원

**분청달마쌀독**



20kg 68,000원
40kg 98,000원

**순금금강경책자**



금강경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불상 같은 책자의 장엄과 예술의 혼이 담긴 작품입니다.

사은품 : 예쁜산악인배두, 24k금장제주, 환경친화용 계기판(실내온도계)주 제작 중입

가격 : ~~730,000원~~
특판가 : 198,000원

## 2546 Buddha's Birthday 봉축행사용품

부처님오신날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

우리도 부처님같이

2546 Buddha's Birthday 연등축제

봉축 현수막 : 90cm×6m(40,000원), 10m(60,000원), 12m(70,000원) ※ 폭 105m, 150m제작 가능

일반 현수막

불교기초교리강좌

사월초파일 연등점수합니다

하안거 결제 및 해제기도 봉행

대웅전 만형불사 봉행

큰스님 초청 수계 대법회

세로 현수막

부처님오신날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



일반 리본 250원 (왼쪽부터 3개)
고급 리본 350원 (오른쪽에서 두번째)
귀빈용 3단 리본 1,000원 (오른쪽 첫번째)

봉축 타이슬링 700원



봉축 버튼 400원





아동용 썬캡 3,000원 / 성인용 썬캡 3,000원



어깨띠 : 2,500원
100매 이상 제작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창엄 번(만장기)90cm×210cm
창당 40,000원



20cm×30cm 4,000원

8,000원



3,000원

보온 · 보냉 머그컵
보온 3시간 / 보냉 :6시간



장면 점퍼 50,000원



연꽃타올 4,000원
100장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방생 타이슬링 1,000원
100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봉축 차량 스티커 300원



캐릭터 풍선 300원
100단위 포장(대롱포함) 바람넣는 펌프 있음



캐릭터 부채 700원
5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



천전동차 라이트 펜 / 10개들이 한세트 30,000원



캐릭터 앞치마 A형:4,500원/B형:4,000원
300장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 초파일등



비닐만월등 2,000원
축구공등 2,500원